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3월 4일(음력 2월 8일) 수요일(주간)



"우리 대학생이예요"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2월 26일 서울 캠퍼스 만해광장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입생 3127 명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에서 오영교 총장은 식사를 통해 "동국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 포토존에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자비나눔 캠페인 전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최근 자비나눔 캠페인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은 총 2200개가 제작돼, 조계종 교구본 · 말사와 봉축행사 참가단체 등에 배포된다.

홍보물은 주요 사업인 △희망의 등달기 운동 △1배 100원 모금법회 △한끼 나누기운동 △자비연꽃 뱃지달기 운동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경제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시대에 나누는 정신을 함께 실천하자"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2011-1822. 아름다운동행(www.thenanum.org)

종교편향 시민이 잡는다

범불교도대회 후 바뀐 국민인식, 법적 토대는 '걸음마'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크리스마스트리나 성탄카드를 만든다면, 선거 투표를 교회에서 한다면, 종교차별일까, 아닐까?

2008년 8 · 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무심코 넘어갔던 일상생활의 종교편향이 시민의식 변화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

문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2월 5일 '타 · 무종교 학생의 거부감'을 이유로 각 교육청에 트리 및 카드를 만들시 선택 지도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렸고, 앞선 2일에는 '일반국민의 차별오해'를 들어 서울시청에 시청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십자가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4 · 29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전북 전주 덕진, 완산 갑, 경북 경주와 부평 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종교시설 투표소 반대 여론으로 투표소를 일반시설로 모두 변경했다. 전북 덕진 선관위는 기존 선거까지 이용됐던 인후1동 2투(충암성결교회), 4투(성도순복음교회) 등 총 9군데를, 전주 완산 갑 선관위는 중앙동 1투(전주신흥교회) 등 총 3군데 종교시설 투표소를 노인정과 학교로 바꿨다.

부평을 선관위는 청천1동 1투(세계로교회)와 갈산1동 3투(사랑의교회)를 다른 시설로 변경했으며, 경주 선관위도 동천동 3투(평안교회)를 변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편향에 달라진 시민의식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1172개에 달했던 종교시설 투표소와 크리스마스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종교편향 사례가 개선된데는 8 · 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바뀐 시민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에게 행정을 소개하기 위한 동업무 보고회를 교회에서 열었다가, 한 주민의 제보로 교계 언론에 보도돼 호된 비판을 받았다.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도 종교편향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신림동 한 주민센터는 교회에서 제공한 복음구절이 쉬인 현판을 내걸었다가, 다음(Daum) 메인화면에 기사화돼 11만명의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KBS시사매거진 '쌈'도 MB정부 1주년을 맞아 22일 소망교회 주말 예배에서 "이명박 장로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아버지.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B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구호를 여과없이 실어 게시판이 '종교 방송이냐'는 글로 도배됐다.

이러한 변화는 범불교도대회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미 예상됐다. 2008년 9월 리서치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700명을 대상으로 한 'MB정부 종교편향'에 대한 결과는 바뀌어가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당시 '종교 편향적'이 59.3%(매우 공감 38.4%)로 대회 직전인 8월 13일 조사 당시 54.1%에 비교해 약 5.2% 증가했다. 특히 무교(29.7%→62.2%)의 '종교 편향'에 대한 인식변화도 나타나 범불교도대회가 '종교편향'을 사회적 의제로 띄워 올렸음을 나타냈다.

#법적 뒷받침은….

하지만 이러한 국민인식 변화에도 법적 뒷받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1월 13일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고, 종교투표소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적 미비는 당장 범불교도대회 이후 수그러들던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월 16일 '인천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전용태) 행사에 참석해 "영적 축전인 국제성시축전이 열려 기쁘다"고 축사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07년 인천 세계복음화 발언을 비롯해, 2008년 웨슬리교회 복원비 20억 및 한국선교역사기념관 15억 예산 배정 등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2월 26일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지원예산 투명공개, 종교합의기구 마련 등 요구가 3월 5일까지 실현되지 않을 시 4월 연등축제에서 본격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편향적 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모니터링 등 감시체제 시작

이러한 법 · 제도적 미비점에 불교계는 공동대응을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지역별 사찰과 연계하고, 감시센터와 사이버 호법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인식확산에 앞장서겠다. 우선 종교차별 모니터링단 '로터스 네트워크'에 호법양성과정을 거친 7~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 수도권(인천), 영남(대구), 호남(광주), 충청(대전)의 5개 권역에 활동가를 두고 종교편향 사례를 적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계 노력에 더해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과 함께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편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계 현장가들은 '종교편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2월 28일은 4 · 28 재보궐 선거의 현직공직자 선거 영향발언이 금지된 날이다. 각종 선거와 공직자 발언, 더나가 일상생활까지 많은 대중의 정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하고싶을때 하는 공부가 진짜"
선지식을 찾아서 ▶14 법정 스님

"전문·특성·차별화 교육이 비전"
동방대학원대학교 ▶5 정상옥 총장

▶ 8 대불련 총동문회장 명호근
▶ 9 현장속으로 선지식들과 함께 뛴 주선일미 체험
▶23 함께가요 강의실 우승택이 말하는 '희망 투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5월말 시행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5월말 시행된다.

이에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개발제한 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명시했다.

국회 통과 당시 기획실장 장적 스님의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 호평했던 조계종은 이번에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관보고시와 시행령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청서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NAVER 통합검색 | 산상차 | 검색 | 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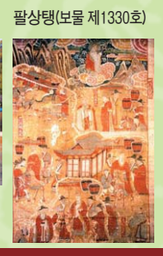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작지만 강한 금강대가 뜨는 이유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전국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는 졸업 · 입학식 인파로 넘쳐났다. 졸업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험난한 사회속에서, 신입생은 자유와 낭만이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꿈을 펼칠 각오다.

IMF환난 이후 또다시 맞이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조계종립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 등 정규 4년제 종립대학들도 사회 초년생과 대학 입학생을 보내고 또 맞으며 인재불사를 통한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원대학인 태고종 동방대학원대학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개교후 처음으로 박사 5명과 1명을 각각 배출해 어느 해 보다 뜻깊은 졸업식을 맞았다.

그러나 몇몇 대학 구성원들은 축하해야 할 졸업 · 입학식을 맞으면서 한편으론, 씁쓰레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이사회와 교직원 및 학생의 분열로 가슴 아픈 학위수여식을 중앙승가대는 장기간의 총장 공석상태에서 졸업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역시, 사리에 어긋난 동국역경원장 해임 여파와 대학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신바람이 난 곳도 있다. 바로 충남 논산에 소재한 금강대다. 졸업생들의 세계 명문대 진학과 행정고시 합격 등 경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 · 2회 졸업생 30%가 해외 명문대대학원에 진학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HK)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전세계 불교학 연구 센터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2002년 11월,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 · 2등급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소수정예' 대학이다. 신입생 전원(올해 105명)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며(97% 해당), 전교생에게 2인 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학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돼야 하는 전환기에 금강대는 천태종단과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작지만 강한' 신흥 명문대학으로서 교육의 국제화와 특성화(불교학, 통상전공 등) 중심 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최고의 사립명문대에서 나날이 교세가 약해지고 있는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들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금강대의 돌풍 비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황에 빠진 불교상담개발원 어디로?

실무자 2인 외 실질적 업무수행 인력 無

불교상담대학 및 대학원 개강을 앞둔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조직 내 성희롱 파문사건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상담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에 출근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두 명뿐. 정덕 스님을 포함해 5인이 근무하던 환경과 비교했을 때 상담개발원의 가동율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정덕 스님과 성희롱 관련 직원 2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 사무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해도 징계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당사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3월 9일과 11일 산하 불교상담대학과 불교상담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있다. 성희롱 파문으로 인력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홍보는 물론 업무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포교원 측이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를 미룸으로써 현재의 인력공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前 관계자는 "자비의전화를 시작으로 정덕 스님을 비롯한 많은 상담원들이 이뤄낸 공덕이 사라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동안 자비의전화에 의지했던 상담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17년간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상담을 해왔다는 다른 관계자도 "포교원이 수수방관하면서 수습할 시간을 놓쳤다. 종단과 상담개발원, 개인간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포교원은 2월 23일과 26일 제2차와 3차 불교상담개발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포교원 인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성희롱에 관련된 B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렸으나 노동청에 징계결과 통보를 연기했다. 제3차 회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선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원장 정덕 스님의 사표 수리 여부도 공식확인 되지 않고 있다.

원력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을 이끈 정덕 스님과 실무 직원 2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조사 대상자인 사무총장만이 남은 불교상담개발원이 설립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호진 스님 잠적…표류하는 중앙승가대

총추위·교수회 등 갈등, 일파만파

호진 스님이 끝내 중앙승가대 총장직을 고사했다.

무주공산 (無主空山)이 된 중앙승가대를 두고 총장추천위원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보이는 행보는 스님의 의도와는 달리 총장직을 둘러싼 내분으로 변질돼가는 형국이다.

2월 18일 승가학원이사회의 호진 스님 추대 결의 후 월우 스님(총무처장) 등은 호진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경주 기림사를 찾았다.

동문들을 만난 자리에서 호진 스님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해, 총장직 수락에 긍정적인 듯 했지만 결국 스님은 잠적했다.

호진 스님의 총장 영입이 무산되자 당장 중앙승가대가 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을 총장 후보로 추대한 것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협의회는 태원 스님(중앙승가대)을 단독 후보로 추대했다. 27일 현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중앙승가대 총장이 선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스님의 총장 추대에 앞장섰던 정념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월정사 주지).

호진 스님의 총장직 고사가 정념 스님 책임론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한 스님은 "절차상 무리가 있었다지만 결과만으로 정념 스님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호진 스님의 선량한 고사가 중앙승가대 내홍이라는 악과(惡果)가 되고 안되고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외 승가학원 이사스님들의 지혜에 달렸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국립공원 정책 본격 참여

국립공원제도개선위 위원 위촉, 세미나 개최 잇따라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불교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2월 26일 국립공원제도개원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와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했다.

추진위원은 노현 스님(법주사) 종삼 스님(화엄사) 혜오 스님(개암사) 계호 스님(진관사) 대원 스님(내장사) 등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와 현응 스님(중앙종회 의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장적 스님(기획실장)을 위촉했다. 정념 스님(재무부장)과 세영 스님(사회부장), 수경 스님(문화부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제2차 회의를 갖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 및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어 개최된 워크숍에는 이병인 교수(부산대),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문화부)등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포교원, 종단신도 위한 東大의료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6일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체결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일산 동대병원, 분당 한방병원, 경주 동대병원 진료비의 10%,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됐다.

혜총 스님은 "4월 새 신도증 발급과 함께 신도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줌으로써 종단 신도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며 "동국대학교 의료원에서 협약에 흔쾌히 응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사회부, 외국인 스님들 마곡사서 연수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미얀마, 라오스,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찾아 온 160여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단 초청 외 조계종 사찰 체류 외국인 스님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7~9일 공주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외국인 스님 초청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불교 교육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교육,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연계한 강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외국인 스님들의 애로점을 듣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와 귀종을 희망하는 스님에 대한 일정도 마련된다.

사회부는 연수 전 외국인 스님이 주로 체류하는 무상사 등 전국 100여 개 사찰에 연수 공문을 배포하고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02)2011-1830 노덕현 기자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3월16일 개회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16일 개회한다.

16~2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종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안 승인 △총무원장 선거법, 승려노후복지법 등 종헌 · 종법 개정건 등이 다뤄진다.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교육원장 청화 스님 후임 원장 선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제 19회 불교종합 복지관 완공기념 및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경·율·론(經律論) 삼 장(三 藏) 백고좌대법회 (100일 법문)

▶일시 : 2009년 3월 4일(수) ▶ 6월 11일(목) 100일간 오전 11시(법문) ▶장소 : 법왕사 큰법당 ▶증명 : 조계종 대종사 원공 정무스님

백고좌 법회란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각 백 분씩 모시는 한편, 백 명의 법사를 청하여 사자좌(獅子座)에 모시고 100일간 법문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는 전통 불교 법회로 숭유억불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졌던 것을 저희 법왕사에서 매년 백고좌 법회를 봉행해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아니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왕사에서는 현재 국가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시름에 깊은 서민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천평의 대지위에 건평 8천평의 불교 종합복지관을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시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하는 행사도 같이 봉행하게 됩니다. **조계종 대종사 정무큰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마지막날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로 회향하는 100일 동안의 이번 백고좌 법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 상 합장



1일차 3월4일 정무큰스님 조계종 대종사

100일차 6월11일 종진큰스님 해인사 율주 (보살계 불명 수지법회)

1일차 3월 4일 정무스님(대종사)
2일차 3월 5일 도문스님(죽림정사조실)
3일차 3월 6일 일연스님(완주/안심사주지)
4일차 3월 7일 수경스님(총무원문화부장)
5일차 3월 8일 일진스님(운문사학감)
6일차 3월 9일 지오스님(전범어사승가대학강주)
7일차 3월10일 원산스님(통도사백련암)
8일차 3월11일 종석스님(온양/불국사주지)
9일차 3월12일 지안스님(은해사승가대학장)
10일차 3월13일 암도스님(백양사청량원)
11일차 3월14일 혜거스님(금강선원장)
12일차 3월15일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13일차 3월16일 선용스님(거창/아림사주지)
14일차 3월17일 자광스님(관오사불교종합복지회회주)
15일차 3월18일 현응스님(육조사선원장)
16일차 3월19일 활안스님(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17일차 3월20일 지운스님(성주/자비선사)
18일차 3월21일 혜경스님(양주/화담정사조실)
19일차 3월22일 각성스님(부산/화엄사주지)
20일차 3월23일 화정스님(평택/명법사주지)
21일차 3월24일 인환스님(서울/경국사회주)
22일차 3월25일 정여스님(범어사주지)
23일차 3월26일 지관스님(김포/용화사주지)
24일차 3월27일 현장스님(대원사수련원장)
25일차 3월28일 종연스님(인천/수미정사주지)
26일차 3월29일 시몽스님(백양사주지)
27일차 3월30일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
28일차 3월31일 지장스님(광주/증심사주지)
29일차 4월 1일 무구스님(서울/수효사주지)
30일차 4월 2일 수안스님(통도사축서암)
31일차 4월 3일 동봉스님(우리절주지)
32일차 4월 4일 대주스님(정토사주지)
33일차 4월 5일 용산스님(수덕사주지)
34일차 4월 6일 혜남스님(통도사전계사)
35일차 4월 7일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36일차 4월 8일 정엄스님(군포/정각사주지)
37일차 4월 9일 성열스님(강남포교원장)
38일차 4월10일 명정스님(통도사/극락선원장)
39일차 4월11일 마가스님(천안/만일사주지)
40일차 4월12일 경성스님(해인사희랑대)
41일차 4월13일 지현스님(송광사율원장)
42일차 4월14일 주경스님(강릉/성원사주지)
43일차 4월15일 해월스님(동화사수련원장)
44일차 4월16일 혜해스님(은해사연수원장)
45일차 4월17일 도오스님(환성사주지)
46일차 4월18일 정음스님(정음사원)
47일차 4월19일 장산스님(서울/대각사주지)
48일차 4월20일 세준스님(동국대강사)
49일차 4월21일 정락스님(만의사율주)
50일차 4월22일 지묵스님(장흥/보림사주지)

※ 스님들의 법문은 CD, TAPE로 제작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법왕사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법왕사 종무소 053) 766-3747 ※ 동참신행단체는 미리 연락바랍니다. www.bubwangsa.or.kr

▶ 50일차, 회향시 2번에 걸쳐 음악회 찬조출연 기다립니다. ◀

"문화재 정밀실측 통해 데이터 기록화해야"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발전 위한 토론회'

"문화재 실측조사 및 기록화 사업 시 정밀실측보다 인문 · 역사학적 접근에 치중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전남대 천득염 교수(건축학부)는 2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천득염 교수는 주제발표 '문화재 원형보존과 기록화사업의 의의'를 통해 "기록화사업의 근본 취지는 건물 소멸 전 기록을 통해 재난발생에 대비하거나 후세에까지 알리는 것"이라며 "건축물 문화유산의 경우 기록화사업에서 가장 부각돼야 할 사항은 정밀실측 후 도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유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관련 기록을 총괄하는 상부기구 신설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기록매체의 다양화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적정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경원대학교 IT대학 황보택근 교수(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장)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기술 발전동향 및 표준화 방향'을 발표했다. 황보택근 교수는 일본의 '그레이트 붓다(great buddha)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문화재를 디지털로 기록하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교수는 또 "사진 · 동영상의 해상도 및 화질의 기준 등 기록데이터의 표준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5년부터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도 이전까지 총 123건(국보 24건, 보물 85건, 사적 14건)의 문화재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진행했으며, 2000년도 이후 사업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 2008년까지 문화재 204건의 기록화사업을 마쳤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범국가적인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지자체와의 협력 · 지원기반 강화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성과물 제출 · 공유의 의무화 추진 △기록화방법의 정교화 및 표준화 강화 등을 향후 기록화 사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4대강 정비사업 안돼!

오체투지 순례 다시 시작…대표에 수경스님

수경 스님을 비롯한 불교환경연대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 반환경정책 맞서 다시 오체투지의 길을 떠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월 28일 묘향산까지 오체투지 순례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불교환경연대와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들은 2008년 지리산 하악단 노고단에서 계룡산 중악단 신원사까지 53일간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오체투지 순례를 봉행했었다.


2008년 9월 4일 지리산 하악단에서 오체투지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오른쪽)과 문규현 신부(왼쪽).

이에 앞선 2003년에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전북 부안 갯벌부터 서울 광장까지 삼보일배 순례를 봉행한 바 있다. 당시 수경 스님은 55일째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등 목숨을 건 순례로, 환경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체투지 순례는 2008년 회향지였던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서 시작해 묘향산 상악단까지 74일간 전개된다. 순례단은 하루 4km씩, 총 230km를 3보 1배로 정진하게 된다.

특히 5월 초순에는 서울에 도착해 24일 경 시청광장을 비롯해 서울 일대에서 오체투지 순례를 진행하며, 6월 9일 경에는 임진각 망배단, 6월 15일 경에는 묘향산 상악단에 도착해 천고제를 올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2009년 이번 오체투지에서 더 나아가 대사회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영상 및 인터넷 뉴스레터가 격주 1회로 발송되며, 순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도 모색한다. 지부 · 지회 개설을 통해 서산 철새도래지 문제 등 지역 환경 현안과 연계한 오체투지 순례활동도 펼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MB운하가 재추진되고, 규제완화의 미명 아래 생태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오체투지 순례를 환경 · 신행운동으로써 정착시키고, 전국조직을 설립해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수경 스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상임대표 직을 고사했지만, 임원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佛 정법따라 생활하는 청정승가 만들 것"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3월 6일 창립

환경 · 인권 등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검소하고 청빈한 승가를 만들기 위한 조계종 단체가 창립된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만초, 이하 대중결사)는 2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6일 오후 4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창립 준비위원장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은 "대중결사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청빈한 승가상 정립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대중결사 회원들은 사후 모든 재산을 조계종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해 모든 것을 종단과 사회로 회향하고자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대중결사는 정치색을 띠지 않기 위해 정관에 총무원, 포교원 등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사자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결사는 앞으로 환경 · 인권 · 통일 · 복지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 · 연구하고, 불교적 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창립준비위원인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은 "대중결사 회원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승가상을 생활화하고, 교계 및 사회현황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청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립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결사는 현재 40대 전후반 스님 40여 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의장 등 임원진은 6일 오후 3시 총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무료시술로 불법 전하는 궁플란트치과


궁플란트 치과는 2월 24일 독거노인 강증훈 어르신의 무료 틀니시술을 시작으로 매달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 시술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 조계사 앞에 위치한 궁플란트치과(원장 최우환)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 시술로 희망을 전달하고 있어 화제다.

궁플란트치과는 2월 24일 조계사가 선정한 무의탁 독거노인인 강증훈(65세, 여) 어르신에게 첫 무료 틀리시술을 진행했다.

불자인 최우환 원장은 20여 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불법에 귀의하며 살아왔다. 그는 "부처님 제자로 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최근 조계사(주지 세민)와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btn과 협력 조인식을 맺었다.

한편, 궁플란트치과는 앞으로 본지 독자들이 진료 시 우대할 계획이다. (02)722-2870 이상언 기자

불교문화재 대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11건 보물 지정

불교문화재가 새롭게 발견 · 재평가 돼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월 23일 총 11건의 불교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606호) 등 조각 2건과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608호) 등 불화 6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보물 제1603호) 등 전적 2건,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거(보물 제1604호) 등이다.

이 가운데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은 무염(無染)유파 도우 스님이 처음으로 수화원(首畵員)이 돼 조성한 작품으로, 17세기 불교조각사 및 조각유파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포항 보경사 괘불탱(보물 제1609호)도 17~18세기 대표적인 괘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2월 16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동원 스님(양산 통도사 사명암)과 홍창원 이사장(단청연구원)을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보유자로 인정했다. 동원 스님과 홍창원 이사장은 前 단청장 보유자였던 故 혜각 스님과 故 만봉 스님의 기능을 전수받아 궁궐 · 사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세계 곳곳에 부처님말씀 전하길"

운문승가대, 日 하나조노대와 학술교류협정


2월 24일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 운문승가대학과 하나조노대학 학술교류협정식에서 명성 스님(오른쪽)과 아베코산 스님(왼쪽)이 협정을 체결했다.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과 일본 임제종 종립 하나조노대학(학장 아베코산)은 2월 24일 청도 운문사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행사에서 아베코산 스님은 "운문승가대학과 하나조노대학이 함께 세계 곳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교류 협정이 한일 불교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하나조노 대학은 교토(京都)에 위치한 일본 임제종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다. 이날 하나조노대학 대표단은 해인승가대학과도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한편 운문사는 2008년 9월, 중국 칭화대학과도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취 임


제7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

대한불교관음종

제7세 종정취임 법회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불기2553(2009)년 3월 6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은 본종 종통을 계승하는 제7세 종정 취임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천 죽산 대종사의 종정 취임법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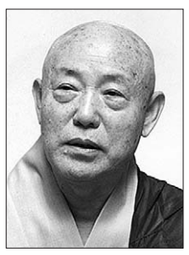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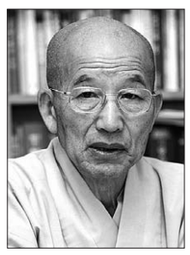
◈ 취임 봉행위원회
• 고 문 : 인 봉, 성 각, 정 암, 화 암, 혜 학, 송 월
• 봉행 위원장 : 총무원장 홍 파
• 부 위 원 장 : 법 륜, 경 철, 종 명, 백 재, 경 담, 혜 동, 월 담
• 집행 위원장 : 법 명
• 집 행 위 원 : 대 홍, 대 광, 성 해, 경 원, 종 일, 학 림, 지 선, 효 천, 도 각, 법 경, 도 원, 도 중, 도 현, 도 법, 도 일, 지 성, 진 각, 혜 담, 호 명, 여 여, 법 능, 도 문, 경 관, 지 현, 경 혜, 녹 봉, 경 심, 경 수, 무 학, 운 산, 혜 정, 최윤섭, 김종남, 유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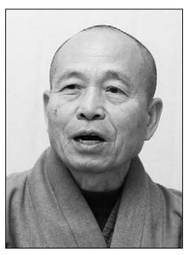
대한불교관음종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연락처 : 02) 763-0054

‘경제난 극복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서 출가재일부터 100일간


도문 스님.


정무 스님.


각성 스님.

100명의 선지식들이 100일간 <화엄경>과 <법화경>을 설하는 법석이 마련된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출가재일인 3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100일간 매일 오전 11시 큰법당에서 ‘제19회 불교 종합복지관 완공기념과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법왕사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백고좌법회 50일차와 회향시 두 번에 걸쳐 산사음악회도 연다.

입재일인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까지 8일간 ‘팔상성도(八相成道)’를 주제로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 정무 스님 등 8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 법문한다. 이밖에도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 암도 스님(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포교원장),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수암 스님(축서암) 등이 <법화경> <화엄경> 등을 품수별로 법문한다. (053)766-3747 김성우 기자

동화 ‘오세암’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봉축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공연

연극과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동화 ‘오세암’이 봉축기념 노래극으로 제작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와 북앤송(book&song) 콘서트’를 연등축제에 앞서 3월 6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연한다.

연등축제 음악과 연희단 공연이 어우러진 이 행사에는 故 정채봉 선생의 명작동화 ‘오세암’과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풍경 달다’ 등 불교적인 시각이 담긴 작품들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봉축위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축제의 즐거움과 산사음악의 고요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기존 산사음악회에 음악과 문학의 다양성을 접목해 대중성을 넓힌 공연”이라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지속적인 우리 작품과 공연자를 발굴해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02)2011-1744 조동섭 기자

불레협 ‘찬불율동제 · 연꽃노래잔치’

어린이들의 불심 · 법우애 키울수있는 기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공연장에서 ‘제4회 어린이 찬불 율동제’를 실시한다. 전국 사찰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사찰별로 찬불가 1곡을 선정, 율동을 창작해 발표한다.

또 3월 29일에는 ‘제21회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해 어린이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고, 법우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창 · 중창은 자유곡(찬불가) 및 창작 찬불가를, 합창은 지정곡과 자유곡 각1곡씩 발표한다. 독창은 3월 10일 오후 12시에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한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연등축제 율동리더 20명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02)738-7860 www.burec.org 이상언 기자

출가·열반절 의미 되새겨

전국 사찰서 행사 잇따라 불자들 수행열기 북돋아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절(3월 4일)과 열반절(3월 11일)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행사가 잇따라 열려 불자들의 수행열기를 북돋고 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한 날인 출가절과 생사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열반으로서 보인 열반절은 불자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함축된 날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3월 4일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의 특별법문을 시작으로 8일간 특별기도를 봉행한다. 열반절인 3월 11일에는 무관 스님(前해인사 율원장)을 초청해 특별법문을 듣는 회향식을 개최한다.(02)732-2183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참선정진 특별법회’를 진행한다. 8일간 경내 법왕루를 정진중인 신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해 용맹정진의 분위기를 북돋는다. 4일과 11일에는 주지스님의 특별법문이 예정 돼 있다. (02)511-6070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같은 기간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경내 제1선원에서 특별기도법회를 연다. (02)902-2663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제12회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니르바나 정진법회에는 흥교 스님(성주사 회주), 백운 스님(부산 미륵사 회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선원장) 등 여덟 선지식의 법문이 이어진다. 또한 불자들은 8일간 매일 108배 참회 기도를 한다. (055)262-0108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매일 주지스님이 법문과 함께 1250배씩 절하는 ‘1만배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51)508-0345

재가신행단체인 불력회는 서울 아미타사에서 하루 3번 반야심경을 봉독, 1000배, 나무아미타불 염불 삼천념을 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출가재일의 의미를 되새긴다. (011)768-8881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새싹 불자들 부처님 품으로 오세요~”

잠실 불광사, 친환경 · 생태유치원으로 신축 이전 개원



2월 22일 서울 잠실 불광사 신축 이전 개원식에서 원생 어린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부처님 품에서 어린 새싹 불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 생태유치원이 개원됐다.

서울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는 2월 22일 불광유치원 신축 이전 개원식을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이 불광사를 세우고 대중불교를 위해 하신 첫 사업이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포교였다”며 “불광사 중창불사의 첫 시작을 유치원 개원으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신축 불광유치원은 건축규모 대지 120평,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28평의 유치원 전용 건물로 2008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개원했다.

불광유치원은 뚝섬자연학습장 선유도공원, 하늘공원 등에서 친환경적인 산책활동 및 견학, 영어 · 중국어, 다문화 교육, 국악 활동 등으로 특성화 교육과 친환경 생태유치원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02)622-1311 이상언 기자

군불총, ‘비전 21’ 추진

창립9주년 법회서 군포교 의지 다져


지관 스님이 김기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태영 육군대장)는 2월 20일 서울 국방회관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군포교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장 김태영 육군대장을 비롯해, 현역 장성 및 예비역 장성불자회 소속 회원 30여 명과 불자장병 및 신도 500여 명이 참석해 군포교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또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도 함께 자리해 축사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장군은 군포교에 앞장선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김태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불교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신도정보 DB화, 간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군불총 비전21’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종교구와 함께 수계장병 10만명 달성도 적극 주도해 나가고, 종단뿐만이 아닌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와 인욕으로 옷을 삼으면 어떤 고난도 침범하지 못하며, 지혜의 칼과 계율의 화살로 삿된 마음을 잘라낸다면 능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군불총은 군불자의 중심으로 군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총신도회의 9년 연륜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게시판

●한국위빠사나선원 ‘초전법륜경 법문 및 위빠사나 수행’=한국위빠사나 선원은 3월 4일~6월 24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초전법륜경 법문 및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마하시 사야도의 <초전법륜경>을 교재로 하고 묘원 법사가 지도한다. 동참금은 20만원.(02)512-5258

●서울 능인선원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 수련’=서울 능인선원은 3월부터 2개월간 매주 월 · 화 저녁 7시 능인선원에서 티벳트 정통 명상인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 수련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15만원. 02577-5800

●서울불력회 ‘3000배 및 염불정진’=서울 불력회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광릉 봉선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성북동 길상사, 마지막 토요일 오후 9시 수유리 화계사에서 3000배 및 염불정진을 실시한다. (011)768-8881

●부천 석왕사 ‘다라니독송 기도’=부천 석왕사는 3월 4~11일 새벽 4시부터 3000배 정진기도를 오후 2시부터는 다라니 독송기도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각 3만원. (032)663-7771

봉 행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법인 이사장 지산 대종사 · 3세 종정 월호 대종사 취임 대법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입춘지절에 법하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에서는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대법회와 함께 법인 이사장 석지산 대종사, 제3세 종정 석월호 대종사, 부종정 석해심 대종사, 석각호 대종사 추대 취임식과 함께 제4대 총무원장 석무각 종사 취임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3(2009) 2월

초 청 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이사장 석지산. 종정 석월호
총무원장 석 무 각 합장

◆일 시 : 불기 2553년(2009) 양력 3월 16일 (음력 2월 20일) 월요일 정오 12시
◆장 소 :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 2층 대연회장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812번지)
◆문 의 :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 ☎ 전화 032)543-2693 / 팩스 032)868-2694
라마다호텔 대표전화 032)832-2000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25-10 석목법조빌딩 701호

“전문화·특성화·차별화 교육이 비전”

데스크 초대석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총장


사이버대학 설립 등 새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옥 총장.

‘동방문화창달’ 이념 구현 위한 성장동력 최대한 가동
동방사이버대학 설립 준비… 학점은행 제도 활성화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鄭祥玉) 총장이 3월 2일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2월 20일 졸업식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박사(5명)를 배출한 동방대학원대학은 2005년 개교 이래 ‘동방문화 창달’이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대 총장에 취임해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내놓은 정상옥 총장을 만났다.

–동방대학원대학교가 처음으로 박사 5명을 한꺼번에 배출하고 총장님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개교 과정과 개교 이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감개가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동방문화창달을 위해 선비정신의 계승을 통한 온고지신으로 최첨단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을 접목,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설립을 인가받아 2005년 3월 개교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교 당시 3개 학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서화심미학과,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옻칠조형학과, 미래예측학과, 문화정보학과 등 6개 학과에,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금년에 석·박사 통합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고 이미 승인된 학생정원 210명도 모두 수급돼 우리 대학교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2007년 첫 석사를 배출했고, 특히 지난 2월 학위수여전례에서 5명의 첫 박사학위를 수여해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가 내실을 잘 다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대학교의 이념과 비전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며 차별화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적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등한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400개 대학들은 나름 뛰어난 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개가 비슷비슷한 백화점식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비슷한 학제를 가지고는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설립자 겸 총장으로서 제시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비전입니다.

현대사회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조류가 변하면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조직을 변화시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우리 대학교의 최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높은 학문적 수준과 폭넓은 강의와 유익한 학문연구가 되도록 해 타 대학과 분명한 차별화를 했습니다.

동시에 학사학위가 없는 일반 사회인들을 위해 전공과 관련되는 단기의 전문과정과 특별과정 등을 설치해 폭넓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접학문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학문연찬을 위한 학술발표지 <동방논집>과 <백악논총>을 발간했으며, ‘동방신보’를 발간해 새로운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불교예술의 한 분야인 영산재의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전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으며, 민족 33인중 끝까지 일제치하에서 유일하게 지조를 지킨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다례재와 만해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희석돼가는 민족정기를 새롭게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영체제를 기업경영 방식으로 도입해 성과주의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대의를 살리고 우리 대학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내용의 학교 제 규정과 교수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우리 대학교 조직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을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고 조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중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 한 것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 일사분란하게 학사일정을 추진해 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적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 만큼 외적 팽창도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의 성장 발전을 위한 비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대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확충하였으며, 학교 강당의 난방시설을 새로이 하고, 각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그리고 총학생회의 활동 공간을 최소한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생 대학교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식약청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기관 등으로부터 외부 연구비를 수주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취지를 선도하는 선발주자로 자리매김 한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올해를 우리 대학교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건물증축과 교육용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9억여만원을 가배정받아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증원해 현재 총 정원 21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력과 비전은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09년도 상반기 서울장학생 선발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 2명(고현숙 조주은)이 인문분야의 장학생에 최종 선발돼 2년간 장학금을 받습니다.

–사회 흐름에 발맞춰 사이버 대학의 설립을 통한 인프라 확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교의 가장 큰 단점과 아쉬운 점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학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사이버대학을 조속하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대학교가 동방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준비하는 첫해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 및 유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학교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동방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학술대회 및 유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대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 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우리 동방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려 새로운 동방문화와 예술을 정립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약사전 삼존불 개금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 옻칠조형학과 권순섭 교수가 처음 발견한 삼존불 중 본존불이 문화재위원들에 의해 통일신라 전성기의 최초 채색소조불임이 확인됐고, 아울러 좌우 협시불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복장에서 귀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와 한국미술사를 새로 써야만 하는 경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기림사와 우리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최고석학들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였고, 우리 대학교가 그 실무를 맡아 삼존불 원형복원 불사를 위해 치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학술발표를 실시해 이러한 기림사의 국보급 성보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룡산과 충청문화의 재검토’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 우리 정신문화의 발굴과 재해석을 위한 학술회의와 가칭 ‘동방학회’를 창립해 다양한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동방문화창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전통문화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성과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학 협력 활동을 통한 실용학문의 발전과 수익모델 창출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방사업단을 통해 그 동안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산학협력과정사업들을 통해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치유학연구소를 활성화시켜 능력이 있는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우리 대학교 자체 실험실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우리 대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인류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2대 총장에 취임하시면서 많은 계획과 포부가 있으실 줄 압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의 편제완성에 따른 학교조직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사이버대학을 조속하게 설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이미 설치돼 있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통합한 전문연구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화교육원과 별도로 민속악교육원의 신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문화창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수료와 동시에 해당 민간자격증을 수여할 것입니다. 이미 미래예측분야인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민간자격을 인증하는 민간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아 명리상담사와 명리교육강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격을 받은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교육해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민간자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장차 국가공인자격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가 없는 단설 대학원대학의 최대 맹점인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학점은행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수급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방웹진’을 구축해 동방문화 전반에 관한 소식 전달매체로 삼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학교법인 동방사업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기부문화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도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많은 분들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자진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대담=임연태 부국장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관절과 연골이 불편하십니까?

글루코사민 ‘파격할인’

“선착순 300분께” 총18개월분을 69,800원에 드립니다.

한일그린팜(한일그린제약) 30년만에 특별세일!!

창사 30주년을 맞은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이 하루 129원으로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대박세일을 선언했다.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은 올해 부터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무대 진출을 선언,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연것이다.

◇하루 129원으로 효도실천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창사 30주년 기념과 글로벌 선언으로 인해 발표된 대박세일은 다름 아닌 ‘효도세일’.

어르신들의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글루코사민 6개월분, 해조칼슘 6개월분, 비타민 6개월분. 총18개월분을 선착순 300개 한정 69,800원에 판매하는데, 이는 하루 129원인셈, 제품 구입을 서둘러 볼 만하다.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 글루코사민은 ▲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 나이, 비만 등으로 관절에 무리가 오신 분 ▲ 생활환경 등으로 무릎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 중, 노년기 갱년기 여성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박찬스’다. 특히, 이는 어르신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칭찬받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글루코사민 6개월 + 해조칼슘 6개월 + 비타민 6개월 = 총18개월

구입문의 080-223-7000
※택배비 고객부담 2,200원
농 협 1285-02-011378 이현실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이웃 종교 RELIGION

故 김 추기경 생가 공원 조성 '논란'

경북 군위군 추모공원 계획에 네티즌 부정적

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가 위치한 경북 군위군에 300억원 대의 추모공원 조성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언론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청은 김 추기경의 추모미사가 열린 2월 22일 300억원을 들여 33만㎡ 부지에 김수환 추기경 추모공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청 관계자는 "故 김 추기경의 생가에 추모공원을 조성해보자는 희망 안건이 나왔던 것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군청을 방문했을 때 거론했던 안건을 김 도지사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예산 지원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면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군위군과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추기경의 이름을 붙인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건물을 세울 계획은 없지만 교회박물관을 건립해 1~13대 역대 교구장들을 소개할 계획은 있다"며 "교구장들을 소개하는 데에 12대 교구장이었던 故 김수환 추기경의 유품이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김 추기경만을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모씨는 "추기경님 돌아가시길 손꼽아 기다린 건 아니신지? 이런 행각으로 추기경님 죽음이 헛되어진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300억이 뭔말이냐"고 말했다.

전모씨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다 아름답게 가신 추기경님께서 답답해 할 것 같다. 300억원으로 군위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썼으면 한다"고 했다.

이나은 기자

교회 목회자 사례비 기부

기독교사회책임 '고통분담' 캠페인

총 125명의 교회 주요 목회자들이 십일조를 제외한 사례비의 5%를 경제위기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김요한 목사)은 2월 23일 '한국교회가 고통분담에 앞장섭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 경제위기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평신도들도 고통분담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목회자들이 십일조 이외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5%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고통분담에 앞장서고 △교회유지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하는 대신 구제비는 훨씬 증액하고 해외선교비도 줄이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가급적 지역의 작은 교회를 통해 돕는다 등 3개 항목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 화합 증진'

KCRP 정기총회서

"어려운 때일수록 종교계가 희망을 주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근덕)는 7대 종단 공동회장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0일 2009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종교간 대화와 소통'을 다짐했다.

이날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대표자들은 종교간 화합을 위해 △이웃 종교간 대화와 이해 증진활동(종교 · 문화 유적지 탐방) △생명과 평화 실천 활동 △사회복지 활동(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다문화 가정 돌봄)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었다.

국제교류사업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KCRP산하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ICRP)은 △국제종교 세미나 △베트남 라이따이한 지원사업 △종교간 대화순례 △종교 교류 협력 사업 국제사회에서 종교간 화해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이 공동회장단의 추대로 연임하게 됐다. 최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사업에 임해 종교간 화합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실업 위기 극복에 종교 역할 절실"

강윤구 청와대 수석 조계종복지재단 14주년 법회서 요청



"경제 난국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침체로 모두가 고통 받는 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3% 성장한다던 경제는 불과 며칠 새 -2% 성장으로 바뀌고, 10만여 개가 생긴다는 일자리도 오히려 20만여 개가 줄 것이라는 전망으로 바뀌며 불황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사진)이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불교계에 도움을 요청해 눈길을 끈다.

강 수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 설립 14주년 기념법회에서 '실업극복 대책과 종교계 역할'이란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 수석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 심화현상과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소개하며 "적극적 고용안정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직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실직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훈련지원 △청년층 취업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실업자 수를 최소화 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현재 노사에게 요구되는 협력은 물질적 손실 감내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나눔 · 희생 · 인내'등의 가치와 일맥 상통한다"며 "노사를 넘어서 전 국민의 역량 결집과 단합을 위해 종교계 등의 도덕성을 기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종교계에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창립 기념 법문을 통해 '참다운 보살행을 통한 복지사업 수행'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가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일체중생을 위한 보살행이 아니다"라며 "모든 중생의 아픔을 대신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다음으로 미루는게 보살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어떠한 경전을 막론하고 부처님의 뜻이 복지 아닌 것은 한 구절도 없다"며 "복지사업은 섭중생계(가난하고 방황하고 힘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안아주는 것) · 섭선법계(선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 · 요익유정(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의 대승보살계를 바꾸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종광),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다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륜)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한 '2008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교계 복지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100인 초대전

우리문화복지재단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우리문화복지재단(대표 상인)은 '2009 자비 · 사랑 · 베품의 나눔'을 주제로 2월 27일~3월 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지하1층 갤러리에서 한국미술 100인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해 10월 재단이 설립된 후 갖는 첫 행사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대표 상인 스님은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최근 경제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회 수익금은 재단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게 될 '엄마의 집' 운영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곳은 무료급식, 무의탁노인 생활공동체 등 지역 내 소외계층 쉼터로 활용된다. (053)741-7652 김성우 기자

골수 기증

동대 박하림양

호주 어학연수 중이던 동국대 여학생이 골수 기증으로 40대 백혈병 환자를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문학과에 재학중인 박하림(24)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박양은 2월 19~20일 서울 모 병원에서 골수(조혈모세포)를 기증했고, 얻어진 조혈모세포는 어린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백혈병 환자에게 이식됐다.

박양은 2005년 10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골수기증을 약속했고, 2008년 10월 경 조직 적합성 항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국내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09년 1월 어학연수 일정을 접고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친한 선배 언니를 백혈병으로 잃은 아픔을 겪은 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골수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작은 실천으로 새 생명과 환자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어머니 버팀목 되고파"

생명나눔 3월 환우 최장우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3월의 환우로 설암(舌癌)으로 고통받고 있는 최장우(21 · 사진)군을 선정했다.

대학생인 최군은 2007년 10월, 군 입대 후 전에 염증정도로 생각했던 증세가 심각해져 검사를 받은 후 설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07년 11월 혀의 절반과 임파선을 완전히 절제했으나 안면기형도 발생돼 결국 의가사 제대 후 복학을 준비하게 됐다. 2008년 암이 재발해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은 후 뇌 정맥으로 전이된 정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전이된 암을 완전 절제하지 못했다. 최군은 수술 후 목 근육의 수축으로 바른 자세가 안 되고, 매일 시행되는 방사선과 항암치료로 구토증상이 생기고 입안이 다 헐어 있어 음식섭취도 어렵게 됐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토모테라피라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하지만, 30회 치료에만 3000만원이 필요하다.

최군은 "홀로 저를 키운 어머니를 위해 어서 졸업해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며 "늘어나는 치료비에 포기하고 싶지만 매일같이 병상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면 차마 아픈 표정을 지을 수도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서울메트로 안국역과 3월 5일 사회공헌 업무 협약식을 맺고 매월(3일간) 장기기증 캠페인활동을 펼친다. (02)734-8050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비영리 종교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 공덕

양화사 건강원 귀 자원봉사의 집 귀 서금요법수지침술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화사 귀 자원봉사의 집 귀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양 화 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 광 합장

박사 학위 논문 핵심소개

동방대학원대 첫 박사학위자 5명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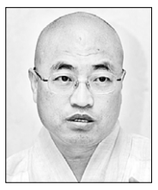
불교 전문 대학원대학인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개교 4년 만에 첫 박사를 배출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는 2월 20일 졸업식에서 도각 스님 등 5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도각 스님(자연치유학과), 김일두 변호사(서화예술학과), 소재학 회장(하원정명리학회), 오청식, 유경진 박사(이상 미래예측학과)는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 배출한 박사들이다.

특히 원효의 무애춤을 비롯해 사주로 대표되는 역학(易學)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에 박사학위가 수여돼 눈길을 끈다. 이날 학위수여로 원효의 무애춤은 1600여 년 세월을 거슬러 효과를 증명했고, 잡기로만 인식되던 역술은 국내 제1호 박사가 셋이나 탄생해 역술이 아닌 역학으로 제도권 학문에 안착했다. 미수(米壽)의 나이로 만학의 꿈을 이룬 김일두 변호사까지. 화제가 가득한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최초 박사학위자 5인의 논문을 소개한다.

조동섭 기자

#' 원효 무애춤' 효과 증명-도각 스님



도각 스님은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라 고승 원효 대사의 무애춤을 중심으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 스님은 호흡명상 못지않게 동작명상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무애(無碍)춤은 깨달음을 얻은 원효 대사가 저잣거리에서 무애라는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애가를 부르며 추었다는 춤이다. 고교 때부터 몸이 이완될 때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했던 스님은 1987년 출가 후 명상과 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에 "원효 스님이 호로를 들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름을 무애라 했다. 배는 가을 매미 같고, 목은 여름 자라 같다. 그 굽은 것은 남을 따르려 한 것이고, 그 빈 것은 물건을 용납하려 했다"는 기록과 한쪽 발을 들고 췄다는 춤사위 묘사에서 영감을 얻은 도각 스님은 무애춤 복원에 앞장서 왔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우울과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2008년 7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연구대상 선정 △프로그램 개발 △보조자 훈련 △사전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 △추후검사 △자료 분석 순으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을 가르친 후 1개월 뒤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게 했다. 스님은 토론내용을 기록한 종합평가서와 보조자 2명의 종합평가서를 대조해 분석했다.

도각 스님은 "종합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부적 정서(우울, 불안)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및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처리를 위해 스님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검사지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에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해 활용했고 양적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시점을 반복측정치로 해 반복측정 변량분석(ANOVA)이 실시됐다.

도각 스님은 "연구를 통해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명상치료에서 통용되던 호흡치료법과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찰 편액 정리-김일두 변호사



김일두 변호사(85)는 故 육영수 여사 저격시 서울지검장으로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사찰의 편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일두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한국의 사찰에 산재된 편액을 작가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찰편액은 명가들이 쓴 필적을 목판에 새겨 대웅전이나 당우(堂宇)마다 걸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편액 · 현액 · 주련을 포함한다. 김 변호사의 논문은 시대별 신분별로 재정리해 불교서예사 및 문화재보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두 변호사는 "사찰편액은 목판에 새겨진 것으로 화재나 전란으로 소실되지 않는 한 해당 사찰과 역사를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과 화재로 인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사찰이 매우 드물다"며 "그만큼 오래된 사찰편액도 휘귀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행히 신라의 김생과 최치원, 고려의 공민왕이 쓴 사찰편액이 전해지고, 조선에서는 세조를 비롯해 영친왕까지 다양한 어필편액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사찰 편액을 통해 조선의 명가와 명필 및 법사들이 쓴 선필을 정리한 그는 금석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자(大字, 큰 글씨)의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살폈다. 김일두 변호사는 "금석문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근현대 명가와 명필들이 쓴 서찰 편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역대 대통령의 하사편액(下賜扁額)을 비롯해 어린 동자나 여성이 쓴 편액도 조사됐다. 작가의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찰편액과 전혀 쓴 사람을 모르는 무명씨의 편액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법력이 뛰어난 선사의 선필과 외국인이 쓴 사찰편액, 한글로 쓴 편액까지도 정리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사찰편액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서예사의 실물자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한국서예사와 불교미술과 문화를 연구에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찰편액은 사찰에 딸린 문화재의 일부분이다. 불상 · 석탑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비해 사찰편액은 그렇지 못하다.

김 변호사는 "편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고, 편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사찰편액은 불교교리를 적어 불교건축 등을 보여주며, 서예적으로는 금석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앞으로 사찰편액이 국보나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행·십간십이지 새롭게 조명-소재학 회장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십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 열두 동물을 뜻하는 십이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말한다.

소재학 회장(하원정명리학회)은 박사학위논문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오행과 십간십이지의 기존 견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해석을 시도했다.

소재학 회장은 오행설 등 이론에 대한 문헌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오행설 연구는 '오행원(五行圓) 모델' 분석과 관찰자의 시점 등을 적용해 새롭게 해석했다.

소 회장은 "오행의 상생상극론(相生相剋論)에서 일반적으로 상생(相生)을 설명할 때 목(木)은 화(火)를 생(生)하지만 화(火)는 목(木)을 같이 생(生)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극(相剋) 역시 목(木)은 토(土)를 극(剋)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화가 목을 생하고, 토가 목을 극하는 것은 편생(偏生)과 편극(偏剋)의 형태이다. 오행 간에 서로 생하고 극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주장됐던 것은 '관찰자의 시각' 혹은 오행을 바라보는 '기준'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재학 회장의 주장은 불은 나무로부터 생하지만 나무가 많으면 작은 아궁이에 큰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 오히려 아궁이 불을 꺼트릴 수 있고, 나무가 불을 살린다고 해도 나무 역시 불 기운이 있어야 썩지 않고 나무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공생(共生)의 도리를 증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 회장은 "'부분' 기준으로 오행 각각의 관계를 보면 상생상극이 아닌 편생편극이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생상극"이라고 말했다.

소 회장은 토(土)가 오행에서는 흙 기운을, 방위에서는 중앙을 뜻한다는데 착안해 토의 역할 변화과정을 연구했다. 소재학 회장은 "오행이 관찰자 시점 변화에 따라 '오행'으로 인지될 수도 있고, '사행'으로 인지될 수도 있다"며 "오행의 5요소가 동서남북의 사방과 춘하추동 사계절의 4요소에 대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재학 회장은 "음양오행설 등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며,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에 합당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학문"이라고 역설했다.

#기문둔갑비결 주해-오청식 박사



기문둔갑은 병법술의 하나로 음양의 변화에 따라 길흉을 택하는 술법이다. 기문둔갑의 형성시기는 대략 춘추전국시대로 추정된다. 오청식 박사는 학위논문 '기문둔갑 연파조수가(烟波釣叟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 박사 논문의 요지는 기문둔갑 이론에 기초한 연파조수가의 주해. '연파조수가'는 송나라 초기 재상인 조보(趙普)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7언 224구 1568자로 구성된 대서사시로 기문둔갑을 광범위하고도 가장 정밀하게 묘사한 시결(詩訣)이다.

오청식 박사는 '연파조수가'를 군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기문둔갑 이론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논문은 '연파조수가'를 항목별로 대분류하고 다시 같은 내용끼리 소분류해 풀이했다.

오 박사는 "기문둔갑 이론의 핵심은 원사(元帥)인 갑목(甲木)이 경금(庚金)의 극살(剋殺)을 피해 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수의 직할부대인 삼기(三奇)를 이용하거나, 예하부대인 육의(六儀)의 아래에 숨는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기문둔갑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파조수가'가 필수"라며 "기문둔갑이 불확실성과 무한경쟁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 유용한 대안으로 순기능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명리학 용신 도출법 재정리-유경진 박사



사주에서 용신(用神)은 약이다. 불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을 끄기 위해 소방수(물)가 필요하고,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는 나무를 베어낼 도끼(금)가 있어야 하는데, 용신은 소방수와 도끼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유경진 박사는 논문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쉬운 용신 도출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사주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데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용신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잘못된 예측이 있기 쉽다"며 "논문을 통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용신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경진 박사는 명리학 고전에서 용신론의 발전과정과 내용부터 살폈다. 용신이라는 용어는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개념은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확립됐다. 유 박사는 논문에서 <명리정종>은 병약용신론의 기원이 된 병약설과 억부용신론의 태동이 된 개두설, 동정설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유경진 박사는 간명법을 설한 <삼명회통(三命通會)>이나 격국용신론에서 순역론의 시초인 <자평진전(子平眞詮)>, 조후용신을 위주로 억부용신을 설한 <궁통보감(窮通寶鑑)> 등을 용신론별로 재정리했다.

유 박사는 "격국론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격국 등이, 억부용신은 중화론, 절기, 포태법, 생극희기론, 통근법, 강약론, 육신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후용신은 한난조습론, 일주희기론 등이 병약용신에서는 병약설이, 통관용신은 통관론이 주된 내용이었다. 변격은 종(從)하는 오행이나 육신(六神)이 용신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명리학은 기상의 변화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더우면 시원한 것이 필요하듯 엄격한 법칙이 있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법회에 모십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청정하고 화합하는 진정한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종단 내외의 염원과 의지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법망구의 심정으로 오직 부처님의 정법대로만 살고자 서원하는 결사대중이 모였습니다. 21C 한국불교의 대안을 모색하고 정법에 입각한 자자와 탁마정신으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법회

▸일시 : 불기 2553(2009)년 3월 6일 오후 4시
▸장소 : 조계사 극락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준비위원장 만 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810호
전화 (02)732-1209 / 팩스 (02)739-5570 / 홈페이지 : seungga.org

한국불교 법안 조계종 창종 및 임원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을 창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창종 및 취임법요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 정 운봉 명예종정 상봉 부종정 송봉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승정원 법성 승정원 운경
총무원장 대현 종회의장 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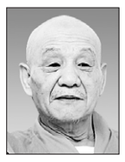
교육원장 : 승법 호법원장 : 원광 포교원장 : 정도 감사원장 : 법안
고시원장 : 원진 문화원장 : 무공 수선원장 : 서연 의전원장 : 동선
비구니원고문 : 도하 비구니원장 : 효상
총무부장 : 불현 재무부장 : 혜진 사회부장 : 혜명 규정부장 : 도영
호법부장 : 무성 사업부장 : 혜명 복지부장 : 영산 봉사부장 : 홍운
비구니원사무부장 : 정담
호법부원장 : 광월 문화부원장 : 설운 포교부원장 : 원주 감사부원장 : 현공
경북교구원장 : 제법 강원교구원장 : 도현 충북교구원장 : 지호

다음

◆일 시 : 2009년 3월 9일(음 2.13) 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수원 마이웨딩 뷔페(동수원사거리 동수원병원 옆)
◆연락처 : 총무원 / 봉행위원회 (031)217-2633, 221-0116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종하시는 분은 입종비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불교 법안 조계종 창종 및 취임 봉행 위원회

일주문



오현 스님 결핵아동돕기 동참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은 2월 25일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에 불자들이 모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동화사 3·1절 맞이 절마당음악회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3·1절을 맞아 동화사 봉서루 앞 특설무대에서 '대구시민을 위한 절마당 음악회'를 개최했다.



도심포교사찰 주지 초청 일요법회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3월 1일 혜자 스님, 8일 지홍 스님, 15일 정우 스님, 22일 종하 스님을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2)3218-4820



위안부 피해 위령추모제 봉행

불교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시설 '나눔의집' 대표 원행 스님은 3·1절을 맞아 광주 나눔의집에서 피해자 위령추모제를 봉행했다.



백운암 상도선원 낙성법회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 원장 미산 스님은 3월 22일 오전 10시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서예 퍼포먼스, 무용, 거문고 연주 등 문화행사도 펼친다.



청주교도소 교정협 회장 피선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태고종 중앙홍보국장)은 2월 26일 청주교도소(소장 한본우)에서 열린 2009 교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3 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특강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3월 11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3 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주제로 특강한다. (02)719-2606



'아름다운 한국불상'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3월 9일부터 3개월간 '아름다운 한국불상' 강좌를 개최한다.



풍경소리 이종만씨 4집 앨범 발표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가수 겸 작곡가)가 최근 4집 앨범 '이종만 노래이야기'를 발표했다. (02)723-9836



국방홍보원 홍보대사 위촉

불자가수 김흥국씨는 2월 19일 국군방송 제1스튜디오에서 '2009년 국방홍보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자비나눔 봉사단' 구축해 어린이 포교"

제23대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회장



"참다운 구도자·생명가치·복지사회를 위해 앞장서 온 대불련은 사회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총동문회의 법인화를 기점으로 불교인재의 산실인 대불련 총동문회가 21세기 사회 변화의 주축으로 우뚝서겠습니다."

제23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장으로 명호근(67·사진)씨가 선출됐다.

2월 22일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정기이사회에서는 대불련 총동문회와 현재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사)대불을 일원화함에 따라 (사)대불 이사장 명호근씨를 대불련 총동문회 2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명호근 회장은 "동문들의 원대한 뜻으로 세워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큰 원력을 세워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명 회장은 "(사)대불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대불련을 지원하고, 총동문회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 사회 활동으로 동문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불자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를 하며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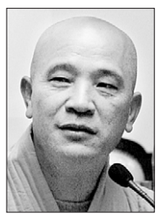
(사)대불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어린이와 청년포교에 앞장서 불교인재 양성에도 앞장선다. 명호근 회장은 "어린이 법회를 종단이나 사찰에서 기피해 새싹불자의 씨가 말라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산하에 '자비나눔 봉사단'을 구축하고 어린이 법회 등에 대불련 동문회원의 인적자원으로 법회자원봉사를 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대불은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광장이 될 전망이다. "법률상담·기업금융·취업·자녀의 진학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터전을 마련해 대불련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서울대 법학과 61학번인 명호근 회장은 현재 불교방송 및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이사장, 성진지오텍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쌍용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시절 총불교학생회를 이끌었고 대불련 총동문회 초대회장, 명예회장,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평화는 생명간 화해에서"

생태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현고 스님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생태지평연구소 2009총회에서 공동이사장으로 선출된 현고 스님(58·광주 원각사 회주·사진)은 "생태지평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아토피, 비무장지대 환경, 대운하 등 환경현안에 대해 연구·대안을 제시하는 민간환경기관이다.

현고 스님은 송광사 주지와 조계종 기획실장·총무부장을 거쳐 2005년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후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이양을 수행했다. 현재 환경법인 '주암호보전협의회' 이사장과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등 환경·청소년·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고 스님이 환경운동을 펼치게 된 것은 바로 불사의 회향 때문이었다. 1983년 스승인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 유훈에 따라 현고 스님은 1998년 주지 소임을 마칠 때까지 송광사 건물 61개동을 개·신축했다. 이외 김천 청암사, 울진 불영사, 제주 법화사 등의 대웅전과 요사채 200여 채가 스님의 손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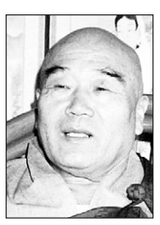
현고 스님은 취임사에서 "어려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커가며 천식에 시달려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됐다"며 "출가해 200여 채의 터닦기를 하며, 땅속에 서식하는 무수한 생명을 죽게 한 참회의 정이 환경활동에 참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진정한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 생명과 생명간의 화해에서 온다"며 불자들이 탐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청담기념관장 혜명 스님 입적

봉선사서 다비 봉행



도선사 청담기념관장 혜명 스님(사진)이 2월 24일 서울 미타정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62년, 세수 82세. 혜명(慧明)은 법명, 법호는 송타(松陀).

청담·성철·자운 스님 등과 봉암사 수행결사에 참여했던 스님은 1927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했다. 1947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문경 봉암사에서 출가했다. 194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10안거를 성만하고 1966년 서울 도선사 실달학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경남 고성 문수암과 옥천사, 도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혜명 스님은 서울 도선사포교당 혜명정사에 주석하다 최근 미타정사로 자리를 옮겨 수행 정진해왔다.

청담기념관 관장을 맡아 은사 청담 스님의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전하는 데 앞장섰다. 다비식은 26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봉행됐다.

생전에 혜명 스님은 "불교는 마음을 깨닫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해 자유자재하고 불생불멸하는 본래불의 청정심을 깨닫는 것"이라며 염불선을 강조했다. 은사 청담 스님이 내린 '본래면목 불조(佛祖)의 혜명(慧明)'이란 법명에 부끄럼 없이 수행하겠다는 원력으로 일생을 살았던 스님은 70세까지도 매년 섣달그믐이면 1000배 정진을 했다.

"세상살이에 발심과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님의 가르침은 희망을 잃고 경제적 고통에 빠진 현대인들이 귀담아야 할 경구이다.

조동섭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 천태종정 도용 스님 예방



한승수 국무총리는 2월 26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방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했다. 한 총리는 "불교계에 좋지 못한 일들이 빚어져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종교편향에 대해 사과했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전국승려연수교육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2월 23~24일,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승려연수교육을 개최했다. 법계별로 치뤄진 이번 연수교육은 3일간 600여 스님들이 교육에 동참한 가운데 성료했다. 김진성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3사관학교 졸업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2월 25일 영천 충성호국사에서 3사관학교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생도 500여 명과 군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산불교대 30회, 대학원 21회 졸업수계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은 2월 22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대학 30회 및 대학원 21회 졸업수계식을 봉행했다. 졸업생 96명 중 前민주당대표 한화갑을 비롯한 10명은 공로상을 받았다. 이상언 기자

단양노인복지관 이랑봉사단 발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전해두)은 2월 25일 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이랑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지역어르신 및 장애인 34명이 참석해 활발한 지역봉사를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희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상기병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 자신 및 **가족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 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이웃에 건강 **복 짓기**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우주의 기운
- 전통따주기 개요.인체의 구조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병 예방 비법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5행으로 본 인체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의 비장 따주기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작명 비법

5.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12명)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 2009. 3. 21(토) ~ 3. 22(일) 〈금요일 오후 도착〉 (34만원)
- 금요일 09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다. 장 소 : 한결자연학교
(옥황토방 숙박 / 자연식단 제공 / 따주기 도구·비법교재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양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며 참회기도와 참선수행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혀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기초반 12기 / 경전반 10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5기
- 모 집 접 수 중 -

특강 교수진

세민 큰스님 – 현 조계사 주지
법산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현각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태원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현종 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권기종교수님 – 동국대 명예철학박사
성태용교수님 – 건국대 철학과 교수
김호귀교수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강의내용

- 기초반 : 기초교리, 천수경
- 경전반 : 금강경, 지장경, 참선수행법
- 야간반 : 금강경, 지장경, 기초교리

지장경 권기종교수 강의
금강경 김호귀 교수 강의
조계종 표준 금강경 편찬 실무위원

강의시간

기초반 : 매주(화) 오후 2시~4시
경전반 : 매주(금) 오후 2시~4시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수) 오후 7시~9시
안양불교대학 합창단 매주(목) 오후 2시

● 문의처
전화 : 031)444-5935~6 팩스 : 444-5655
입학식 : 3월 20일 오후 2시

시티 신문 마스터즈 챌린지 레이스 FINIS

2009년 2월 22일(일) 오전10시 출발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마라톤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2월 22일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한국불교마라톤협회(회장 정해선, 이하 한불마) 식구들이 시즌을 시작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함께 뛰었다. 개그 '달인'의 우스갯소리처럼, 군 제대 후 모처럼 뛰는 10Km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팔다리가 마치 기름칠 벗겨진 기계처럼 삐거덕 거렸다. 함께 뛰는 도반이 있었기에 완주가 가능했던 그 날의 환희. 불심으로 뛴 '2009시즌오픈 마스터스 챌린지'를 현장중계한다.

마라톤 선지식들과 함께 뛴 '주선일미(走禪一味)' 체험

"마라톤으로 수행해요"

#상암 축구경기장 남문 행사장 앞

아침 7시에 일어나 평상시와 같이 음료수 한잔을 마시고 상암 축구경기장으로 향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대회 전 한불마 정해선 회장을 비롯한 식구들을 먼저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암 축구경기장 남문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행사 진행진에서 준비한 순두부를 먹고 있는 사람들부터,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화장실 뒤로 길게 늘어 선 줄까지 5000여 명이 운집, 마라톤 열기를 느끼게 했다. 인근 병원에서는 구급차 7대를 대기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열기에 더해 여대생들이 중앙무대에서 쥬얼리S의 '데이트' 등 최신가요를 틀어 놓고, 춤을 추며 러너들의 시선을 잡는다. 기자도 남자라, '잘 할 수 있을까' 라며 잠시나마 긴장했던 마음이 섹시한 춤사위에 사라져 버렸다.

여유가 생겨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주말이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한불마와의 조우

행사장을 서성인지 잠시, 먼저 연락했던 최동순 회원과 만났다. 그가 이끌고 간 행사장 한편에는 한불마 회원들 20여 명이 몸을 풀고 있었다.

한불마는 불자 마라톤 동호회다. 총회원은 70여명으로 매주 수요일 남산에서 마라톤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연 2회 각 사찰을 찾아 철야정진을 하는 등 신행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월 동아국제마라톤, 4월 대구국제마라톤을 앞둔 전초전이었다.

"아이구, 기자님도 뛰시게요? 힘드실 텐데……."

몸 풀기를 하며 정해선 회장은 우려를 표했다. 자신의 개인택시를 법당으로 개조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 김희춘 부회장은 "마라톤은 10분 뛰면 10분 묵언, 1시간 뛰면 1시간 묵언"이라며 "말이 필요 없다. 고(苦)를 인내해야 하는 점에서 참선수행과 비슷하다"고 표현했다.

각자 몸 풀기도 잠시, 김 부회장의 집전에 따라 한불마 식구들은 경건하게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잠시나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사완주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함이랴.

무사완주 발원하며 출발

회원들은 이날 마라톤에서 풀코스, 하프코스, 10km로 나뉘어 출발했다.

이날 10km코스에는 문증국 총무를 비롯해 정해상, 유청렬, 이선주씨가 함께 뛰었다. 10km 출발선 앞에서 사회자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강조했다. 10km 구간은 짧은 코스지만 부상자는 제일 많이 발생한다. 기자처럼 초심자들이 무턱대고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탕' 하는 화약총 소리에 산수들은 일제히 뛰쳐나갔다.

처음 출전하는 마라톤이라 도로의 감각과 시간개념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자유공원을 지나 한강을 구경하며 뛰는 여유로움도 잠시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옆에서 문 총무의 "처음에는 천천히 뛰는 것이 좋다" 말에 느리게 뛰었건만, 오른쪽 발이 저려온다. 땀은 비 오듯 내리고, 추울까 입었던 옷가지도 체면이고 뭐고 제멋대로 풀어헤쳤다. 아침을 굶는 버릇이 절로 후회가 됐다.

#고비, 하지만 도반이 있기에 해냈다.

3km 표지판을 보자 다리에 힘이 탁 풀린다. '이렇게 힘든데 남은 7km를 어떻게 더 뛰나' 하는 생각이 든다.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순간, 함께 뛰는 도반들은 큰 힘이 됐다.

이선주 씨는 옆에서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하지 말고 속도를 맞추라' 고 조언했다. 함께 뛰는 그룹에서 일상생활의 얘기도 드문드문 하며 뛰니 몸에 느끼는 고통이 순간 사라졌다. 5km지점에 이르자 급수대가 보였다. 관세음보살의 감로수처럼 게토레이 한잔이 너무나 달았다.

급수대를 지나자 말을 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묵언'이다. 앞서 뛰는 한불마 일행 조끼의 '주선일미'(走禪一味)만 눈에 들어온다.

체험 기사를 쓴다는 초발심도 느슨해져가고, '조금만 걷자'는 마구니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났다. 결국 마구니들에게 넘어가고야 말았다. 힘이 빠져 터덜터덜 걷자 저 앞에서 문 총무가 다시 뛰어와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기자를 다시 마구니들 틈에서 구조했다. 왜 수행과정에서 함께 하는 도반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중요한 지 체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다가 걷다가 문 총무의 이끄는 힘에 달리기를 수차례. 9km 지점에 이르자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뛰고 있는 건지, 다리가 아픈 건지도 모를정도 였다.

1시간 15분대로 완주를 하자, 응원 나온 한불마 회원들이 정겹게 맞이해 줬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와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과 머릿고기의 맛은 극락이 따로 없음을 느끼게 했다.

이 날 대회에서 한재경 씨(53, 중앙신도회 이사)는 1시간 35분으로 하프마라톤을 완주했다. 보통 풀코스를 3시간 28분대로 뛰는 그는 매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달리기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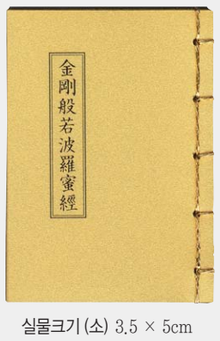
다음에는 하프마라톤에 도전해봐야겠다.

한불마 카페:www.daum.net/hsjung1959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믿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서 법보시마당 펼쳐

자신의 삶을 이끄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밖에서 찾으면 금생이 다하도록 헛수고다. 안에서 찾아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살림을 들여다보는 일도 쉽지 않다.


법보시 나눔마당에서 법문하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자신의 주인공에게 자기를 믿고 맡기고 바라보는 삶, 생활 속의 실천수행을 추구하는 '법보시 나눔마당'이 2월 22일 오후 2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에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과학원이 그간 안양 본원에서 진행했던 마음공부 포럼을 지원에서도 펼친 것. 마음공부 포럼은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일환이다.

이날 법보시 나눔 마당은 '수행, 내 주장자를 잡고'와 애니매이션 동영상 '마음의 뿌리, 주인공을 찾아가는 초초' 그리고 '공생의 삶, 공생의 행'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 수행의 삶을 성장시켜 온 불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동참한 불자들에게 새로운 신행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날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수없는 윤회를 거치고 거쳐 지금 여기서 인간의 몸을 받아 살고 있는데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늘 주인공의 근본자리를 관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아픈 중생 대자비로 감싸

통도사 · 양산부산대병원 법당 개원, '복지교류' 협약도

포교의 불모지였던 병원에서 부처님의 정법이 펼쳐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2월 24일 오후 4시 30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원장 백승완) 어린이병동 4층 모암홀에서 '법당 개원기념 및 정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는 협약서 조인, 정우 스님 특별법문, 백승완 원장의 병원 시설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정우 스님은 개원법회 법문으로 "부처님께서는 고단한 인생은 살지 언정,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곧 고단함은 육체이고 고달픔은 정신일 것"이라며 "오늘 개원하는 법당이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픈 중생들을 대자비로 보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한 "종교의 역할은 윤활유와 비타민처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쾌유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돕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법당 개원 법회에서 법문하고 환자들에게 염주를 걸어주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에 앞서 백승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병원과 의료진은 육체적 고통에서, 병원 내 법당과 스님께서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다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 주는 병원으로 잘 경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도사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지역복지 등 상호 긴밀한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대사회활동 △병원 내원환자에 대한 봉사 △임직원연수에 대한 협력 △통도사 대주의 의료 · 보건 · 위생과 관련된 사안 등이다. 특히, 병원 임직원연수 시에는 통도사 측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수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법회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양산포교당 주지 지수 스님, 서원사 주지 지원 스님, 백승완 양산부산대병원장 및 불자 환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심 담은 장학금 '희망' 심다

신불사·관음사·두송복지관·관음선행장학회

불심을 담은 장학불사가 이어지고 있다. 울주 신불사(주지 혜성)는 2월 22일 오후 2시 제5회 자비회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고, 총 20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2040만원은 총 17명에게 각 120만원씩 전달되며, 분기 마다 30만원씩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주지 혜성 스님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단체 '사랑 실은 교통 봉사대' 울산지대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불사 자비회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매년 소년 · 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선정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혜성 스님은 축사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회에 나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는 2월 25일 '2009년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기존 장학생 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정설아 외 7명의 대학 진학생에게 특별 격려금 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하구 내 7개 고등학교에서 19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3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선정된 19명의 장학생에게도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에서도 배석준 외 25명에게 2009년도 장학금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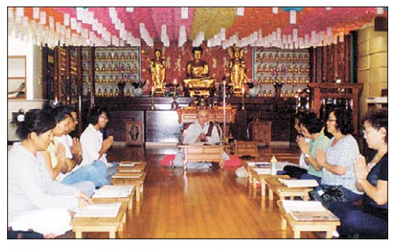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사)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괌 락가사 불교공부 바람 '솔솔'

원욱 스님 초청 법회 · 교리강좌 등

남태평양 괌도 한국사찰 보타산 락가사(주지 도휘)는 2월 11~25일 2주간 (사)금강승선관무회 회주 원욱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락가사에서 열린 원욱 스님 초청법회.

이번 법회에는 원욱 스님의 2주간의 특별법문 뿐 아니라, 외국이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기초 교리 · 경전반'을 개설해 현지 교민불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도휘 스님은 "이국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의 큰 신심으로 관음도량 보타산 락가사의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괌도 지역사회와 교민 대중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설했다.

괌에서 한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미영(44)씨는 "외국이다 보니 한국스님만 뵈어도 너무 반가워 락가사에 자주 왔는데, 이번 경전반을 통해 개인적인 수양은 물론이고, 여러 한국인 도반들을 알게 되서 좋았다"고 말했다.

어학연수를 위해 3개월간 괌에 머무는 대학생 한용선 군은 "학교 기숙사 방은 좁고 다른 학생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가끔 오시면 락가사에서 하룻밤 묵는다"며 "굳이 기도를 하거나 예불에 참여하지 않아도 절에 오면 마음도 편하고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종종 찾는다"고 말했다.

세계적 휴양지 괌 보타산에 자리한 락가사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현지 교민 및 유학생, 여행자 등 불자라면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1-671-687-6351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일념장학회

경봉 스님 가르침 이어 '공부 수발'

"곧 동아대학교 새내기로 입학하는데 등록금에 보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이동욱, 동성고3) "오늘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저도 어른이 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박지은, 양운고3)

한 사람 한사람 이름이 차례로 불리면 단정하게 교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들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낯선 법당에서의 생소한 불교의식이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의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모인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도움 받으러 온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죽어있기 마련인데, 웬일인지 이곳의 장학생들은 밝고 씩씩했다.


14년째 '공부 수발'에 여념 없는 일념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

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묘광선원에서는 '아주 유쾌한 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바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회장 이영채)의 제14회 장학금수여식이다. 일념장학회는 매년 승가대학 및 종립학교 재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많아,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명을 비롯해 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공부하는 스님 4명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일념장학회의 첫 출발은 경봉 스님의 생전 가르침에 있다.

이영채 이사장은 "경봉 스님께서 극락선원에 계실 당시, 늘 '스님들 공부 수발을 잘하라'고 강조하셨다. 그 가르침을 받들어, 현재 미국에서 해외 포교를 하는 법춘 스님의 유학시절 학비를 돕기 시작하면서 일념장학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승가대학 학비지원을 거르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뜻을 모은 지 30년이 지난 지금, 불교계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단체는 많지만, 일념장학회는 오직 어머니들이 주는 장학금이기에 더욱 남다르다. 창립 당시 아주머니였던 회원들은 모두 할머니가 됐다. 하지만 그 신심과 열정은 변함이 없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준지 벌써 14년째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부디 스님들께서 공부에 정진하셔서, 우리 중생에게 깨우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한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곳에 모인 일념장학회 보살님들의 보살행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며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은, 오늘의 이 장학금을 계기로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일념장학회 어머니들이 부처님을 기르는 마야부인들이라면, 이들이 주는 장학금은 엄마의 젖줄기다. 이들의 보살행으로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닐까. (051)818-9914 **박지원 기자**

나라 살리는 MICE, 경제를 깨우는 쇠북소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부산지역 불교 31 종단의 연합주최로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2553 불교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2009년 '신규전시회 개발분야'에서 유일한 지원대상으로 '2553 불교산업박람회'를 선정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글로벌 환경에서 약진하는 한국불교산업의 보루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서 경쟁력 높은 MICE 아이템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불교상품은 불교계에서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서비스는 물론,
불자들의 가정과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며,
불교기업은 불교상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불자로서, 불교를 구현하는 불자기업인으로서, 불교산업의 생산/유통자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명예를 걸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시아, 지구촌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에 불교산업발전을 위해
기쁜마음으로 동참하시어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석 정 여 스님(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석부위원장 류 화 산 스님(삼광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상임부위원장 김 정 각 스님(미룡사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이하 위원 공동 합장

2553
불교산업박람회
Buddhism Industry Expo 2009
2009. 3.26 (목) ▶ 3.29 (일) BEXCO 2홀
|문의처| 조직위원회 사무국 051-740-7900

주제관
사찰홍보/안내관(A) – 종단, 사찰의 안내 및 법회의 홍보 등
부처님오신날관(B) – 시민연등축제, 신행단체, 불교교육기관, 신도회 등
불교용품/선물관(C) – 예배/법회/재 용품, 공양/선물/기념/장식품 등
불사관(D) – 건축/인테리어 자재, 토목, 조경, 불교장엄, 법당장식품 등
정보관(E) – u-템플, 방범/방송장비, 금융/상조, 불교서적, 관광/레저 등
체험관(F) – 녹차, 대용차, 다도, 다구, 승복, 법복, 한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
웰빙관(G) – 사찰음식, 식기, 건강/웰빙식품, 건강/실버운동기구, 서비스 등
특별관
국제 불교민속전시 – 한국, 일본, 중국, 네팔(인도), 티벳, 양코르와트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 관| 불교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후 원|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www.bba.or.kr
국제불교민속전시와 함께하는
(한국, 일본, 티벳, 네팔(인도), 중국, 앙코르 왓트)
3X3 BOOTH : 288EA

소아암 환아 위해 1만배

광주생명나눔 3월 4~11일 기도 봉행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의 소중함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1만배 기도'를 펼쳐 눈길을 끈다.

광주생명나눔은 불자들의 집중 수행기간인 출가재일에서 열반재일에 이르는 3월 4~11일 8일 동안을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명나눔 특별정진 기도기간'으로 정하고, 각 사찰별로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봉행한다.

기도에 동참한 불자는 1배에 10원씩 적립해 환우지원금에 기부한다.

이에 앞서 광주생명나눔은 3월 1일 광주 원각사에서 '생명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2009년 생명나눔운동 소개를 비롯해 어린 환아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13개 사찰이 참여해 행복한 나눔의 108배 정진기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호남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금한 120만원이 전달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현지 스님은 "부처님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까지는 사찰마다 기도정진하며 출가의 올바른 의미와 열반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신 큰 공덕을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병고의 아픔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저소득 가정 · 소년가장 후원

고창복지관·신한장학재단



무공 스님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2월 23일 복지관에서 신한장학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고창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 5명과 소년소녀가장 1명에게 장학금 · 결연후원금을 전달했다.

신한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9년 신한장학금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지역 학생에게 지급됐다. 중 · 고등학생에게는 급식비와 자원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교육용 컴퓨터지원이, 대학생에게는 입학금 · 등록금 · 교재비 등 학업보조비 전액이 지원됐다. 이와 별도로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1명에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매월 25만원이 지원된다.

무공 스님은 "평등한 조건에서 자라야할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구김살 없이 밝게 사회의 큰 재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사암련 '금강경' 강좌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3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광주불교사암연합 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경전강좌를 시작한다.

<금강경>을 시작으로, 성오 스님을 비롯해 사암연합회 소속스님들이 강사로 나선다. 접수는 3월 15일까지이며 각 사찰 신도 및 신행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062)373-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재 사찰 앞에 교회?

군산 동국사 불자들 '반발'



동국사 인근 지도. 오른편 붉은 부분이 교회 신축 예정 부지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4호 군산 동국사 대웅전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213호 동국사 석가삼존불 등 2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군산 동국사 앞 126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높이 약 40m) 규모의 대규모 교회가 신축예정돼 동국사와 군산 지역 불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국사 앞 공터에 신축 예정인 대형 교회건물은 인근 영화교회 신축예정지로 동국사와는 폭 8m 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리다.

동국사 관계자는 "시공 중 지하굴착으로 인해 동국사 축대(약 90m)가 진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동국사 대웅전이 목조문화재인 점, 석가삼존불이 조성된 지 400년이 지난 소조불상인 점, 조망권과 일조권이 아주 없어지므로 경관 및 문화재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소음과 완공 후 교회 집회시의 소음이 불교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국사는 이같은 사항을 문건으로 정리해 군산시에 전달해 신축허가 불가 통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영화교회측은 이에 불복해 전라북도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허가신청을 내는가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국사 관계자는 "공사가 강행된다면 동국사 신도회는 물론 군산 사암연합회, 지역불자, 주민들과 연대해 공사를 저지하고 종단차원의 법적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혔다.

현재 동국사는 전통사찰 지정신청을 하고 전라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13호인 동국사 석가삼존불을 비롯해 복장유물 333점을 국가보물로 승격 요청해 문화재청이 심사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방차 배치

금산사 등 5곳

김제 금산사 등 전라북도내 유명사찰에 소방차가 배치된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손은수)는 최근 도내 중요 사찰의 목조문화재 보호, 사찰 안전 확보와 봄철 산불 발생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의 불용 소방차를 도내 사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차가 배치되는 곳은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완주 송광사, 정읍 내장사 5곳이다.

손은수 본부장은 "사찰에 비치된 소화전만으로는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일선 시군과 함께 불용 소방차를 사들여 사찰 안에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진압훈련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군민 평안' 기원법회

담양불교사암련



2월 2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봉행된 '담양군민 평안' 기원법회.

대나무의 고장인 전남 담양불자들 모여 화합과 번영을 위한 만남의 장을 펼쳤다.

담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신원)는 2월 21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나라의 융성과 담양군민의 평안'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담양 마하무량사 회주), 한탑 스님(문사수법회 회주), 신원스님(담양사암연합회 회장, 보광사 주지), 담양군의회 양대수 의장, 담양신도회 송진현 회장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암도 스님은 "생활을 잘하는 것이 불교이며 이를 위해 생각이 반듯해야 한다"며 "팔정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법문에 앞서 제4대 신임 회장에 취임한 신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담양 불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지역발전을 이야기 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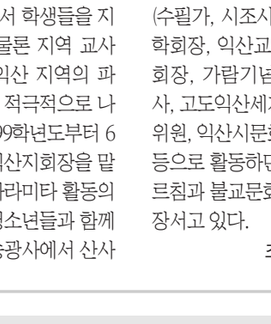
한편 이날 법회는 담양사암연합회 신임임원으로 수석부회장 정보스님(천불선원), 부회장 상원 스님(연화사), 총무 진덕 스님(화심사), 재무 법수 스님(월정사), 교무 정각 스님(마하무량사), 감사 자각 스님(자비암), 호법 각원 스님(무량사)이 각각 임명됐다. 또 담양신도회장으로 호남일보 대표 송진현씨를 비롯해 신도회 임원들도 임명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교 청소년 지도사 이택회 포교사

청소년 위한 '문화알기 골든벨' 인기



이택회 포교사가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시절인 1976년에 홍윤식 교수에게 '한국사상사' 강의를 수강하면서부터다. 이후 이 포교사는 불교에 심취해 전공인 국문학보다 많은 불교관련 책을 접하게 됐다. 그 인연으로 군 복무도 육군중앙법당에서 법회부장을 맡아서 병과 부사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택회 포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에선 후에도 1990년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해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1992년 조계종 포교사로 임용된 후부터는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해 지금은 전주전북포교사단 지역봉사팀장으로 포교일선에서 활동중이다.

이 포교사는 1991년 6월에 이리불교대학 개교 때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인연으로 14년간 교무처장을 맡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 업무를 전담했다. 교무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리불교대학을 비롯한 지역 불교대학 여러 곳에서 불교사 등 여러 교과를 강의하고 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결성된 1998년부터는 근무하는 남성여고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학생은 물론 지역 교사 불자들을 모아 익산 지역의 파라미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999학년도부터 6년간 파라미타 익산지회장을 맡아서 익산시내 파라미타 활동의 중심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에서 산사체험도 실시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답사를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불교사상과 불교문화를 전하고 일본 교토, 나라, 오사카, 대마도, 큐슈등지의 백제불교문화답사여행을 추진했다.

파라미타 활동 중 문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택회 포교사는 '파라미타'라는 지역소식지를 자비로 발간중이다. 매월 2000부를 발행하는 '파라미타'는 전북 도내 80여 개 학교의 파라미타 회원과 지도교사,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배포돼 불교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택회 포교사는 익산지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불교문화를 바로 알리는 '우리문화바로알기 도전 골든벨'이란 퀴즈대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사전에 예상문제로 제시한 뒤 퀴즈대회를 열어 교육감상과 교육장상, 장학금과 푸짐한 상품 등을 주고 있는데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이 포교사는 이 밖에도 조계종 불교청소년지도사, 익산신도연합회청소년국장, 전북불교문학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 부회장(수필가, 시조시인), 익산수필문학회장, 익산교원향토문화연구회장, 가람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고도익산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 익산시문화재단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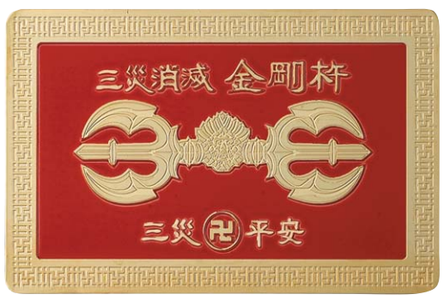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 색 글 씨 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 당 되 는 분 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 삼 재 입 니 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관음종 죽산 스님 종정 재추대

3월 6일 서울 묘각사서 취임법회 봉행



관음종 제6세 종정 죽산 스님이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2003년 제6세 종정으로 추대된 후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오던 죽산 스님을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하고,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묘각사(종로구 숭인동) 대불보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청와대불자회 강윤구 회장(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상축 △봉행사 △법좌등단 △법장봉정 △종정스님 법어 △축사 △관음종 합창단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죽산 스님은 1958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묘각사 홍선 스님에게 보살계를 각각 수계 받았다.

또한 통도사 전문강원(1959년)에서 수학(1959년)하고, 오세암 · 백련암 · 성암사 등에서 안거(1965~1995년)에 적극 동참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용어 없는 불교로 인성교육"

진각종 덕일 정사 '육바라밀' 출판



"어려운 불교용어는 자칫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진각종 종립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덕일 정사(속명 권영택 · 성남 대원심인당 주교 · 사진)가 그동안 심인당과 학교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겪은 재미있는 일화를 바탕으로 <마음 밝히는 길-육바라밀>을 출판했다. 특히 정사는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육바라밀을 자기확대 · 자기관리 · 자기극복 · 자기향상 · 자기모습 · 자기창조 등으로 표현, 불교용어를 배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한 육바라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어리석은 사자' '토끼와 거북이' 등의 동화를 통해 풀어냈다.

덕일 정사는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종비장학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마친 후 줄곧 종단 교육계에서 활동했다. 1983년 심인고등학교 정교실장 및 교사를 시작으로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및 불교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교실장 등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선여자중학교 교장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덕일 정사는 교장소임을 맡은 직후부터 불교정신을 통한 학교경영과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육바라밀과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교표(엠블렘)를 완성하고 '이타자리(利他自利)를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자'는 교육목표와 육바라밀을 접목시켜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덕일 정사는 "정사가 되기 전인 심우시절부터 교육관련 일을 하면서 육바라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육바라밀은 과학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비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정사는 또 "학생과 일반인들은 불교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있지 않아 육바라밀에 대한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을 책으로 옮기고, 친숙한 동화를 곁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음 밝히는 길-육바라밀>은 불교 교육자가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시하는 '욕심 없는 삶' 실천을 위한 생활지침서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 학생회 우리 절이 최고!

천태종 산하 연리회 ·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 지원 활발

종단 수련법회 등을 통한 인재교육불사를 2009년 종단 주요 계획으로 밝힌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어린이 · 학생회 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태종은 전국교원불자연합회와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모임 연리회,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 등을 총무원 산하에 두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하계와 동계 구인사에서 교원불자들의 수련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학생회 및 어린이 지도교사 직능교육' 등을 통해 교사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체육대회와 법회, 학생회 수련법회 등도 지원한다.

이는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희향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천태종 전국교원불자연합회 조용근 회장(마산 무학여고 교사)은 "연합회 소속 선생님들은 수련법회나 불경공부 등을 통해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있다"며 "부처님 법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쫓는 사람이 늘어나 불법을 통한 인성교육이 절실한 요즘, 이러한 소양공부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987년 꿈나무회로 창립, 1988년부터 천태종 어린이들을 지도해온 연리회(회장 정상준)는 종단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월 19일과 9월 20일 경산 문명고등학교와 이천 장화사에서 각각 남부지역과 중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6~7일에는 구인사에서 어린이 지도교사 하계연수를 진행하고, 10월 24~25일에는 지도교사 단합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상준 연리회장은 "종단에서 진행하는 직능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각 지역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종단에서 발간한 어린이 교육책자 <법화꽃>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종단 법사스님들이 각 사찰을 방문해 법문하는 것도 어린이 포교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회장 오용운)는 천태종 학생회 참여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1995년 창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지역 학생회를 묶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지역별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교무부 상명 스님은 "어린이와 학생들은 불교의 미래와 다름없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태종은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다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자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서울불교문화대학 묘각사서 졸업법회

"보다 발전적인 교육기관이 될터"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홍파)은 2월 23일 서울 묘각사에서 졸업식을 개최해 승가학과 46명, 불교학과 48명의 졸업생을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홍파 · 관음종 총무원장)은 2월 23일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2년간의 강의과정을 수료한 승가학과 1기 46명과 6개월의 과정을 마친 불교학과 3기 48명이 졸업했다. 학장 홍파 스님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앞으로 관음종 모든 승려들의 의무교육 기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졸업생들은 16~17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졸업수련대회를 진행하고 불국사, 석굴암, 대인사, 경주 남산 등을 순례했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

베트남 끄엉사에 선남선녀 지원센터 건립



태고종은 2월 23일 베트남 끄엉사에서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틱 타잉 끄잉 · 혜철 · 틱타잉삼 · 묵원 스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국내 최초로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다.

태고종 총무부장 묵원 스님과 홍보국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등은 2월 19~24일 베트남 끄엉사를 방문, 베트남불교회 틱타잉삼 부회장, 끄엉사 주지 틱 타잉 끄잉과 함께 23일 '문화교류 협정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협정서를 통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신랑과 베트남 신부의 건전한 만남 및 결혼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우선 끄엉사 경내에 설립(5월 준공예정)될 '선남선녀 지원센터' 건립 불사금을 지원한다. 또한 범패 시연, 양국 스님 교환연수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성사는 2008년 7월부터 베트남 하이즈엉도 끄엉사와 교류를 진행하며 국제결혼을 주선해 왔다.

김진성 기자

금강대생 일본 명문대학원 진출

정상교·원영아씨, 동경대·와세다대 대학원 합격

불교 교리에 입각한 인재불사를 지향해 온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졸업생 2명이 또다시 해외 유명 대학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금강대는 정상교(불교학전공 · 2008년 2회 졸업)씨와 원영아(일어통역전공 · 2008년 2회 졸업)씨 등 2명이 각각 일본 동경대 대학원과 와세다대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상교씨는 2008년 동경대 대학원 연구생으로 합격한 후 1년만에 석사과정에 합격했으며, 원영아씨는 2008년부터 일본 나고야대 대학원 연구생 과정을 거치다 이번에 와세다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금강대 성낙승 총장은 "이들 졸업생들에게는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목표한 바 학업을 마치고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난다면, 세계무대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는 3월 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성낙승 총장, 학부생 98명과 대학원생 11명(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황호성 · 김주영 학생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금강대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하겠다"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세계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학도로서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금강대는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첫 졸업생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고, 행정고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큰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베스트화제작 신간
百超歸藏術 (上)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 신한 010-3813-4443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5

"삶이란 무애이며 무정이니"

원효 대사 창건 죽림사, 천유 선사 표충사로 명명
'원한 반복치 말라' 금오 스님 경책 담긴 서한 번안

[원문]

세발향천복국류(洗鉢香泉覆菊流)
제시편석침운재(題詩片石侵雲在)
반오백운경부진(半塢白雲耕不盡)
일담명월작무흔(一潭明月釣無痕)
–표충사 죽림정사

[번역]

맑은 샘물에 바루 씻으니 국화꽃 흘러가고
돌 위에 시를 쓰니 구름 덮여 오네
반 이랑의 백운 갈아도 끝이 없고
연못속의 달그림자 흔적이 없네.

[선해(禪解)]

깊은 밤, 불면에 잠을 뒤적일 때가 가끔 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선문(禪門)을 열어 차가운 밤공기를 가슴 가득 들어 마시고 다시 잠을 청(請)하지만 좀처럼 오지 않는다. 몸이 늙고 마음이 외려 늙어 가면 시절 없이 산승(山僧)에게도 외로움이 가득 밀려들어 오는 것 같다. 오십 성상(星霜)이란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을 불가(佛家)에서 보냈었지만,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같다. 나는 슬그머니 방모서리에 놓아든 필묵(筆墨)을 꺼내 정갈하게 앉아 먹을 갈기 시작한다.

산승이 서예를 해온 지도 불가의 세월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글씨 한 점 만들어 내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글 한 점 쓰는 데도 온전히 마음을 다 잡아 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글은 곧 마음의 산물이다. 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나는 슬며시 다시 필묵을 물리고 생각에 잠긴다. 이럴 때면 속절없이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이 떠오른다. 팔십 생이 다 됐는데도 그리움이란 아직도 이렇게 짙은가 보다.

며칠 전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善終)소식에 마음이 우울해졌던 것 같다. 종교의 벽을 넘어 보여준 그분의 위대한 힘이 느껴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다가 자꾸만 금오 스님의 얼굴과 겹쳐졌다.

얼마 전, 나의 은사이신 금오 스님이 남기신 한자로 된 친필 편지 다섯 통을 번안했다.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40년이 됐지만 정작 은사스님께서 남기신 친필 편지는 제대로 번안이 되지 않은 터였다.

초서(草書)로 휘갈겨 쓰신 금오 스님의 친필 편지는 도무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번안조차 하기 어려워 오래전 발간된 <금오집>에서도 그대로 원문을 떠서 실은 터였다. 하지만 금오 스님의 힘 있는 문장과 글귀가 매우 돋보인 서한이었다. 실로 형태만 있고 그 뜻을 모르고 있었으니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글귀를 잡고 헤맸지만 도무지 번안해내지 못해 결국 지인의 도움을 얻어 모두 번안했다. 자칫 잊어버리기 쉬웠던 금오 스님의 법문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짧게 소개한다.

'유은념념보(有恩念念報) 보즉합천도(報則合天道) 유원념념해(有冤念念解) 해즉무번뇌(解則無煩惱)/ 일신류부운(一身類浮雲) 백년동과조(百年同過鳥) 약이원보원(若以冤報冤) 만겁무유료(萬劫無由了) 은혜를 입었다면 잘나마다 갚아라. 그렇게 갚으면 천도(天道)에 부합되리라. 원한을 지었다면 잘나마다 풀어버려라. 그렇게 푼다면 번뇌가 사라지리라./ 이 한 몸은 뜬 구름과 같나니 한 평생토록 날아가는 새와 한 가지더라. 만일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만겁(萬劫)토록 악연이 끝나지 않으리라.'

참으로 금오 스님다운 경책(警策)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이 한 몸도 뜬 구름과 같고 하늘을 나는 새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인생이란 덧없는데 어찌 원한을 반복하고 있는가. 실로 금오 스님의 법력(法力)에 대해 놀랄 다름이다

표충사 죽림정사 편액의 주련 역시,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표충사는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신라 무열왕 원년(654) 봄에 원효 대사가 지금의 극락암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재약산 기슭을 바라보니 대밭 속에서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떠올랐다.

원효는 곧바로 하산해 그 자리에 절을 세우고 이 절의 이름을 죽림사라고 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절 뒤 대밭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후 흥덕왕 4년(829)에는 왕의 셋째 왕자가 풍병으로 고생할 때 이곳의 신비스런 우물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으므로 절 이름을 영정사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것을 선조33년(1600)에 혜징 화상이 중건했다. 지금의 표충사란 명칭은 헌종5년(1839)에 사명 대사의 8세 법손인 천유 선사가 임진왜란 때 구국을 위해 헌신한 사명 · 청허 · 기허 대사 등을 기리기 위해 밀양군 무안면 표충사 사당에 있던 삼대 선사의 진영과 위패를 옮겨와 모시면서 고쳐 부르게 됐다. 이 절의 독특한 유래와 연혁만큼이나 이곳에는 국보와 보물 및 다양한 지방문화재들이 소장돼 있는데 죽림정사는 그 중의 하나이다.

'맑은 샘물에 바루 씻으니 국화꽃 흘러가고 돌 위에 시를 쓰니 구름 덮여 오네.'

한 밤중에 붓을 들고 글을 쓸 때면 한없이 마음이 정갈해지고 고요해진다. 글은 곧 사람의 마음이며 형태이다. 바루에 한 방울 맑은 샘물을 묻히고 먹을 가는 것 또한 선적(禪的) 명상이다. 잘 쓴 글씨에는 마치 국화 꽃향기 같은 아름다움이 배여 흘러나온다. 이처럼 글은 반드시 종이 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돌과 나무, 형체가 없는 마음에도 써진다. '먹을 갈고 돌 위에 글을 쓰면/ 하늘에 구름이 덮여 오듯' 그렇게 마음은 절대 고요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명상과 다름 없다.

'반 이랑의 백운 갈아도 끝이 없고/ 연못속의 달그림자 흔적이 없네.'

불가에서 흰 구름은 덧없음의 상징이다. 그런 덧없는 인생의 밭인 흰 구름을 아무리 갈아도 이 세상은 끝이 없이 그저 흘러갈 뿐이며 구름 속에 덮인 달그림자는 연못에 비추일 리가 없다. 이렇듯 삶이란 무애(无涯)이며 무정(無情)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주련 속에 담긴 그 무상의 이치를 아니 느낄 수 없다.

본디 맑고 고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 속에는 그 어떤 욕망도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마음이 다른 무엇과 무수하게 타협을 하게 돼 어떤 집착의 경계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안주하게 돼 웅덩이의 물처럼 갇혀 결국 썩고 마는 것이다. 이런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소유물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가진 온전한 사유조차 갇히게 돼 곧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게 되고 만다. 즉 덧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르친 것이 바로 표충사 죽림정사의 주련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5

마음 밖에 부처 없어

[원문]

佛及菩提 皆在何處 譬如有人 以手捉 虛空得否 虛空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 是捉空不得 除此心外 覓佛終不得也 佛是自心作得 因何離此心外 覓佛 前佛後佛 只言其心 心卽是佛 佛卽是心 心外無佛 佛外無心 若言心外有佛 佛在何處.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허공이란 이름일 뿐이고 모양이 없는 것이니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가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라.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이루는 것인데, 어찌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그 마음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니라.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는 마음이 없느니라.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연담 김명국(1600~1662)의 달마도.

[해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기에, 달마 스님께서는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허공(虛空)을 잡을 수가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은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허공은 마음을 상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허공을 잡을 수가 없듯이 진여당체(眞如當體)인 하나의 마음자리를 떠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자기 성품을 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걸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이 벽도 아무 걸림이 없어요. 눈을 감아도 집안 구석구석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물질의 원자 차원에서는 일초에 99억 번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면 벽이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일체가 다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일체가 모두 마음으로 돼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습니다. 인연이 다 돼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몸 안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마음이 빠져 나가면 '껍데기다' 이런 얘깁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다가 인연이 다 돼 낡고 병들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몸뚱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 반야(般若)에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닦아가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달마 스님께서는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이루는 것'이기에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를 알고 부처를 깨닫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자리에 우주와 하나라는 마음을 두고 닦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찾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는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그 마음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心卽是佛 佛卽是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본래의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법신불(法身佛)을 뜻합니다. 보신불(報身佛)이나 화신불(化身佛)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출현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말은 이 마음에 집중을 하고 정진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달마 스님의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은 마음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하는 것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외도(外道)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정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본래성품 자리에서 보면 우주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 밖에 따로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부처를 구한다면 외도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것이 '반야'이며 하나로 보고 행하는 이가 참사람(無位眞人)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경전연구회 2년결사 경전강좌안내

출가스님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 진심직설 • 몽산 법어 • 이입 사행론
• 증도가 • 간화 결의론 • 원각경
• 달마대사 혈맥론 • 달마대사 관심론
과 정 2년 과정
개 강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3~6시)
모집인원 50명 선착순(40여명 가등록 되있음)
장 소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50만원(1년)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공부모임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102608-01-001671(우체국) 예금주 :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스님)
재무 : 016-9669-3917(정담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古佛義林白羊寺
고불율원 율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고불율원의 율맥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의 만암, 서옹스님을 걸쳐 30여년이 넘도록 백양사에 주석하시는 율주 동성혜권스님께 이르렀습니다.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인원 : 0 名
■ 모집기간 : 2월 10일 ~ 3월 25일까지
■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2×3규격) 4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고불율원(청류암) 061)392-7506
종 무 소 061)392-7502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

“참 수행은 입에 문 풍선 부풀리는 것 같아야”

“급해? 차 한 잔 더 할까?”

참선하려면 ‘평삼심’ 제대로 알아야

법정 스님 (예산 향천사 주지)

경제공황으로 살기 팍팍해진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처럼,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실개천이 보인다.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이는 모양새는 외경(外境)에 끄달려 탐 · 진 · 치 삼독(三毒)을 일으키는 중생심과 같다. 때마침 불어 닥친 황사에 더해 시야를 짙게 가리는 흙먼지가 우리네 업장이요, 중생의 무명인가. 서해고속도로를 달려 신작로를 지나니 ‘금오산 향천사’를 알리는 초석이 보인다. 주위로 수목에 둘러 싸인 길은 뽀얗고 말갛다. 아기자기 모인 마을을 지나 절에 오르는 좁은 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백제 의자왕 무렵, 일본 백제사에 머물던 의각 스님은 중국에 건너가 옥으로는 3053불상과 16나한존상을, 향나무로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상을 조성했다. 3년 만에 불사를 마친 스님은 부처님을 돌배에 모시고 오산현 북포해안(現 예산읍 창소리)에 도달했다.

절터를 찾아 1개월여 배에서 기도했던 의각 스님 앞에 하루는 금까마귀 한 쌍이 날아왔다. 스님이 금까마귀를 따라가니 한참을 날던 금까마귀가 날개짓을 쉬고 물을 마쳤다. 스님이 다가서자 금까마귀는 자취를 감췄고, 이내 향냄새가 가득했다. 금까마귀가 머물던 곳에 절을 지은 스님은 산이름을 금오산(金烏山), 절 이름을 향천사(香泉寺)라 지었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향천사를 찾아 법정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며 “차나 한잔 하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한달음에 바삐 달려온 속내를 스님은 아시는 걸까? 찻잔에 차를 더하는 스님에 질세라 객도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하며 말없이 입술을 적신다. 한 잔 다시 또 한 잔. 찻잔이 채워지고 비워지기만을 반복할 뿐 고요하다. ‘이 순간, (차 마시는 본분을 잊고) 먼저 말문을 열면 본분사(本分事)를 잊은 철부지가 되지나 않을까?’ 고민하던 객이 먼저 말문을 연다. “스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 스님은 “허~ 차나 하고 하자니까. 급해? 한잔 더 할까?”라며 말을 막는다. “네. 스님. 한 잔 더 주십시오.” 또 다시 두어 잔 더 마시고 나니 조주 선사의 끽다거(喫茶去)를 알똥말똥 하다.

때가 됐나보다. 법정 스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허~. 어떤 말을 듣겠다는 건지. 나는 이야기도 잘 못해. 물어봐. 묻는 말에 대답 할테니까.”

오랜 기다림, 침묵을 깬 스님의 말씀은 “물어라. 답해주겠다.” 묻지 않는 자는 답을 구할 수 없듯이, 발심을 해야 수행을 하고,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큰 의심이 있어야 화두를 깨듯 스님의 말씀도 그러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자력(自力)인 까닭이다. ‘잠시나마 차 마신 공덕(?)으로 공짜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객이 뜨끔했다.

객이 하나둘 질문을 던지자 법정 스님의 법문보따리도 풀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15세에 출가했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 “절에 가서 생활하면 좋겠다”던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덕숭산 정혜사서 출가한 스님은 인천 용화사 창건 당시부터 전강 스님에게 선을 배웠다.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것이 전강 스님 모시고 공부한 덕분 같아. 공부할 때 야무지게 했지. 그때는 많이 자야 오전 12~3시까지 3시간씩만 자고 살았어. 묵언 · 탄성 · 활안 스님 모시고 공부했는데, 중노릇한 보람은 그 때가 최고였어.”

법정 스님이 화두 외에 평생 마음에 담은 법구는 “부처님 간 곳 알고자 하는가?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일세.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다. 부대사(傅大士, 497~569)가 쓴 선시의 일부를 인용했던 전강 스님의 가르침에 법정 스님은 쉼 없이 스스로를 경책하며 초발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다.

“전강 스님에게 처음 무(無)자 화두를 받았어. 판치생모(板齒生毛, 판때기 이빨에서 털이 난다) 하라는데, 의심이 안났지. 간화선은 의심이 생명인데 의심이 안나니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몇 년을 꾹 참고 버텼어. 앉아 있느라 용쓰며 용맹정진 했지.”

그 후 법정 스님은 공부에 더욱 재미를 붙여 용맹정진을 이어갔다. 1주일 용맹정진 하던 중 4일째 되던 날, 안개가 걷히는 듯한 것을 느꼈던 스님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됐다.

“어릴 적 서당에서 보던 책들이며 모든 것이 한눈에 다 꿰지더라고. 1700공안이 모두 타파가 됐어. 대중과 말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 미리 알아서 서너 마디는 미리 준비하고 말하게 됐지. 모든 것을 알고 환하게 보게 되니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의 신통은 그걸로 끝났다. “당장 뛰어가 조실스님과 법거량을 해야 하는데, 2~3일 남은 정진기간 꽉 채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 앉아서 화두를 붙잡아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화두는 어디 가고, 엄한 것만 맞춰보고 정신 쏟다보니 다시 안개가 끼듯 하더라고. 결국은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루묵이 돼버렸지.”

전강 스님 이후로도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두루 모셨던 스님은 큰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자신의 경험 탓에 스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용화사에서는 전강 스님이 지대방 문을 열고 너머에 앉아계시고, 열댓 스님들이 마주보며 12시간씩 정진했다. 대중들이 졸면 전강 스님이 소리를 질렀는데, 항상 “법정이 저 놈 잠만 자는 것 봐라” 하며 호통 쳤다.

“졸지도 않는데, 매번 전강 스님이 나만 나무라는 게 억울해서 짐을 몇 번이나 꾸렸는지 몰라. 그때 송담 스님이 ‘법정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일 막내라 그런 것이니 서운해 하지 말게나’ 라고 붙잡아서 꾸렸던 짐을 여러 번 다시 풀었지.”

법정 스님은 화두도 안들리는데 화두 드는 연습(?)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3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하늘을 보니 푸른 하늘에 둥근 달이 맑게 보였어. 어찌나 개운하고 또렷하던지. 그 달은 가슴에 담고 해제 후 동화사로 갔지. 효봉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였어. 동화사에서 가서는 화두를 바꿔봤어. 무자 화두에서 이뭣고(是甚麼)로 내 마음대로 바꿨어. ‘이 몸뚱이가 송장인데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냐’ 하고 찾으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한번 화두를 들면 30분, 1시간은 훌쩍 가버리더라고.”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은 “참선 공부는 풍선 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풍선을 입에 물고 있어봐야 부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맞닥뜨리는 경계에서 스승의 역할은 중요해.”

이어 법정 스님은 후학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부 해보니 정말 되더라고. 그 맛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 그때의 환희심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유할 수가 없어. 지금은 도루묵이 됐어도 그 경험 덕에 내게는 신념이 생겼어. 스님이라면 적어도 한 번 죽자사자 용을 써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타락하지 않아.”

법정 스님은 근기에 맞는 수행을 강조했다.

“참선을 하려면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제대로 아는 자라야 해. 아니면 주력을 해야지. 경전을 읽거나.”

법정 스님은 스님들에게는 선방에 가기 전 기도정진할 것을 권한다. “참선이 어려운 신도에게 ‘불보살님, 신장님 누구든 당신 한 몸 구제해줄 만한 힘은 가진 분들이니,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 고 말하지.”



법정 스님은 1944년 서산 출생. 수덕사에서 1959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수덕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이듬해 범어사승가대학을 수료했다. 인천 용화사 안거를 시작으로 제방선원에서 16하안거를 성만했다. 광천 영봉암 주지 등을 거쳐 2003~2007년 예산 수덕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현재 예산 향천사에 주석하고 있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3월12일(목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柄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우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전5권)에 이어 부처님이 계신 화엄의 세계, 그 화엄의 세계에 들기 위한 불자의 삶의 자세를 우학스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풀어낸 생활 속 법문집!

화엄경약찬게 법문(1)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부처님 세계, 정토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토는 반드시 대중성을 요구합니다. 함께 가면서 너와 내가 고루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토로 바꾸려면 늘 대중적으로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보살피고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입학상담) 053 474 8228 | www.TVbuddha.co.kr | 053 475 3707

하고 싶을때 해야 진짜 공부

법정 선지식을 찾아서



소용없어. 풍선에 바람을 넣으려면 입에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참선도 바람을 불어넣는 정신이 있어야 공부를 이룰 수 있어. 정성을 다해서 바람을 불다 보면 풍선이 빵빵해지다 터지지. 풍선을 부풀리는 방법을 알아야 해."

"풍선은 왜 부풀릴까? 터뜨리려고?" 순간 객이 망상을 피운다. 법정 스님은 어찌 알았는지 딱 잘라 말한다. "참선의 최종목적은 견성성불이야."

스님은 참선을 주로 해온 까닭에 대구 동화사 등 강원도 여러 곳 다녔지만 경전에 대한 집착은 없다. "경전은 공부를 하다 답답하거나, 선지식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만 짬짬이 참고했어."

"부처님을 비롯해 예수 · 공자 등 모두 사는 길을 알려줬어. 스님은 부처님 흉내를 잘 내고, 재가자는 재가자다운 흉내 내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산다는 것이 평생 남 하는 일 따라하는 것 아니야? 옛조상들이 하던 것을 몇 겹 두고 반복할 뿐이야. 한발 더 나가 불교는 이 윤회를 벗어나 생사초월을 한다는 것이 다르지만."

스님은 "사람 몸 받기 힘들다(人身難得). 윤회고를 벗어나려면 야무지게 공부해 생사를 타파해야 한다"며 선수행을 강조했다.

"생사초월까지 언급 않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수단으로는 참선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참선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법정 스님은 "참선은 너와 나의 분별을 떠나, 산하대지 삼라만상 등 일체와 합일하는 것으로 인연법을 알아야 자비심도 나온다"며 "참선은 나로 인해 모든 이가 있는 연기(緣起)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이 못미더웠을까? 스님은 "인연은 때 되면 꽃이 피듯,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하지 않고 스스로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길 중에는 부처의 길, 중생의 길이 있어. 순간 발 들이는 것에 따라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지.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도 달렸어. 이 순간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스님은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등 세상이 험악해진 것은 노력해서 얻기보다 쉽게 얻으려는 데서 악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인내와 화합을 강조했다.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것도 화합하지 못해서야.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지. 상대를 이해하면 아상(我相)은 저절로 사라지고 자기희생의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

수좌인 법정 스님의 인연처답게 향천사에는 천불선원(千佛禪院)이 있다. 규모도 작고 사중살림이 어려운 탓에 이번 동안거에는 일곱 분 스님만이 안거를 지냈다. 수덕사 주지 시절 '화합'과 '자율'을 강조했던 법정 스님의 리더십은 천불선원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선원 대중스님들에게 입승스님 위주로 자율정진을 하자고 했지. 천불선원은 최소한의 수행만 강제고 나머지는 자유야. 용맹정진도 없어."

환희심을 위해, 수행의 맛을 보기 위해 용맹정진 하라던 스님이 정작 천불선원 운영에는 왜 이리 여유로울까?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해야 진짜 공부야. 바보도 하루 종일 바보는 아니잖아? 잠깐 제 정신 들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돼. 시간 많이 짜서 앉아있게만 한다고 공부가 돼나? 10시간 앉아있어 봐야 풍선 입에 물고만 있는 것과 같아. 참선 하려면 1시간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용을 쓰고 화두에 매달려야 진척이 있어. 그게 바로 입에 문 풍선을 빵빵하게 부는 거야."

법정 스님이 다시 차를 권했다. 스님과 차를 마신 객의 배도 부푼 풍선이 됐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3〉 해원 황의돈 박사

황의돈 선생은 한국 초대 여판사 황윤석씨의 아버지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 네 살(1894) 때부터 할아버지 태현에게 한학을 공부하고, 17세부터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 침략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그 복권을 위해 동명학교를 창설하고 국사교육을 통해 애국사상을 고취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므로 중국으로 망명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승훈 · 안창호 등과 함께 YMCA에서 국사 강의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 휘문의숙 교직까지 파면 당했다. 보성고등학교 교사직을 끝으로 조선일보 고적조사를 담당했다가 52세에 불교에 귀의해 오대산 방한암 스님에게 선(禪) 지도를 받았다.

고적답사를 해서 그런지 어느 지역 문제가 나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인구는 총 몇 명이었고 남자는 몇, 여자는 몇 명이었으며, 어느 곳에 동네 우물이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하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 꿰뚫으면 비로서 알게 될 것이다"하는 식으로 선문답을 자주 하였다.

조그마한 키에 의기가 양양하여 서양식 잰틀맨쉽을 가진 동양사 전공 조좌호 선생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주신 김용배 교수의 동서문화비교론과 원해 박사님의 인생관(주체적, 명예적, 영적인 인생관)을 원고로 만들어 항상 외우고 다녔으며, 어디서 무슨 법문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외워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저술하신 <대동청사>와 <조선신사>를 통째로 외우고 계셨고, 서화담 · 목은전 · 안중근 · 손병희 ·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히 시간을 잊어 버렸다. 너무나 황홀하여 박사님께서 지은 삼각산 절에 가 하룻밤씩 자고 철야정진을 하기도 했는데, 법당을 솔밭 속에 지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번 앉으면 두 시간, 세 시간을 꼼짝 달싹 하지 않았으며, 일어나실 때는 다리를 주물거나 팔 운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딸 윤석이 여성운동을 하다가 단명하게 죽은 것을 매우 슬퍼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 '윤석장학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금을 내놓아 죽은 딸을 위로하였다.

아들 황석영씨도 유능한 판사였는데, 내가 서대문형무소 모 사형수를 위해 연판장을 돌리러 갔을 때는 손수 4,50명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날인을 받아 주었다.

황의돈 박사님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둥글납작한 얼굴에 머리는 시원하게 벗겨졌고, 검은 태 안경 밑으로 팔자 수염을 길러 매우 인상적이었다.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음성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소리를 하여 매우 선동적이었다.

"나는 이 음성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두들겨 맞았어. 안주, 가산, 정주 등에서 국사교육을 할 때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죽창을 들고 나설 정도였고,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중학에서는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켜 나도 죽을 뻔 하였거든.

그래도 목숨을 바쳐 국사 강의를 하였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 살 수 있겠어.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고향에 있을 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마침 방한암 스님을 만나 뵙고 나니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무엇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동양 사람들은 농사짓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약육강식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은 역세혁명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두고 봐.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서양이 동양되고 동양이 서양이 될 것이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동서가 한 통속이 되지. 유럽 사람들이 천년 동안 전쟁하다가 바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인권운동을 일으킨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깨달아야 해.

요즈음 청년들은 명예 · 사랑이면 정조까지도 다 버려 버린다니까. 일본놈들은 그것을 알고 화투에 광을 만들어 조선 땅을 통채로 먹어버린 것 아니어.

보라고 내가 거짓말인가. 12월 비를 보면 일본 하오리를 입은 사람이 우산을 받고 나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광 나와라. 광 나와라' 하니 그놈들이 안 나오고 배기겠어. 광이 무엇이야. 일본 국기 아니야. 그런 줄이나 알고 화투들 치라고."

입에서 하얀 거품이 진을 칠 때까지 열변을 토하셨다.

전통 유교 집안서 태어나 할아버지께 한학 공부
52세에 불교 귀의, 방한암 스님께 禪 지도받아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5>
(修習止觀坐禪法要)

證果 第十 ①

미혹과 깨달음은 두 마음 없어

若行者如是修止觀時 能了知一切諸法皆由心生 因緣虛假不實故空 以知空故 卽不得一切諸法名字相 則體眞止也

지금까지 서술했던 아홉 장 가운데 제1장부터 5장까지는 방편인 보조수행이었고 제6장부터 9장까지는 정수행이었다.

이미 정수행과 보조수행이 진실한 수행인지(因地)가 되었다면 반드시 증득하는 깨달음의 과보[實覺]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마지막 제10장 증과장(證果章)에서는 깨달음의 과보를 증득한 것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중생들은 미혹한 이래로 홀연히 천당에 태어났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털끝만큼도 감소하지 않고, 시방제불은 정각을 성취했다 해도 마음은 실오라기만큼도 증가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의 미혹한 마음에서 증득한 것이며, 중생은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미혹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혹과 깨달음의 자체는 동일하고 인과 과가 두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즉 중생의 마음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수행자가 이상에서 설명했던 정수행과 조수행을 할 때 일체제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모든 법은 세간의 육도범부와 출세간의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법을 자세히 분석하면 미혹한 법, 깨달은 법, 번뇌염법, 번뇌를 떠난 청정한 법, 생사유루법, 열반무루법, 방편교, 실교, 대승교, 소승교, 편교, 원교, 돈교, 점교 등 한량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일심에서 환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법은 일심을 따라서 조작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제법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 분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며 십법계와 세계미진이 마음을 자체로 해서 성립됐다"고 하였으며 "시방 허공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치 뜬구름이 허공에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이 세계 허공을 포괄하여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화엄경에서는 "내 마음은 솜씨 좋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오음을 조작하듯 우리의 마음이 일체 세간법을 조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들의 현재 일념 분별심은 십법계의 오음을 조작한다. 이는 마치 화가가 붓으로 갖가지 색을 칠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오음이 내 마음을 따라서 조작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한 생각 있다는 집착심이 일어나면 육도범부 중생의 오음이 일어나고, 공이 있다는 집착을 일으키면 이승이 일어나고, 대비심을 일으켜 자리이타행을 병진하면 보살이 되고, 동체대비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이 본래 평등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님 법계를 이룬다. 따라서 출세간 사성과 세간의 육도범부가 우리의 일심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생마음이 부처마음이고 부처마음이 중생마음
십법계와 세계미진은 마음을 자체로 해서 성립

마음이 일어나면 십법계 인과의 모든 법이 완연하게 건립되고, 일념 분별심이 소멸하면 십법계의 모든 법이 그 자리에서 공적해진다.

경전에서는 "삼계는 따로의 법이 없고 우리 일심 분별을 따라서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일체제법이 일심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해도 마음은 또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대상경계는 일어나는 원인이 본래 없고 마음도 경계가 없다면 제법도 마음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내 마음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고 마음도 본래 일어남이 없다. 이것은 단지 경계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마음이 일어남이 없다면 육진경계가 공적하고 육진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육근도 공적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허망한 거짓 인연법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가 공적하다"고 말하였다.

경계와 마음이 본래 공적하다면 무엇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이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일체 모든 법은 인과 연이 화합하여 허망한 거짓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인과 경계의 연, 경계의 인과 마음의 연이 분리된다면 제법이라는 허망한 명칭이 소멸하여 일어난 것은 인과 연이 일어났을 뿐이며 소멸하는 것도 인과 연이 소멸하였을 뿐이다.

허깨비와 같은 인과 연은 일어났다 소멸할 뿐 모든 법의 본체는 본래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제법과 마음은 본래 얻을 것도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본래 청정하여 모든 육진경계의 오염을 떠나 내적으로 내 몸과 외적으로의 세계를 철저하게 관조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안으로 육근은 제팔아뢰야식에서 일어난 분별심이며 밖으로 산하대지는 제팔아뢰야식이 변화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제팔아뢰야식에서 일어난 분별의 마음과 산하대지의 모습은 본래 따로의 자체가 없고 단지 제팔식을 자체로 삼을 뿐이다.

이를 두고 육근은 마음이고, 마음에 비친 제법은 육진이어서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에 묻은 때와 같다. 거울의 때가 지워질 때 광채가 스스로 나타나듯 마음과 제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잃는다면 마음의 자체는 즉시 진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일체 제법의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를 유식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성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최초로 일으키는 일념불각은 인이 되고 그 인이 변화한 것은 연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 큰스님은 "내적으로 우리의 몸과 밖으로 세계가 허깨비처럼 나타나 실제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내 마음 망상의 인과 연이 화합해서 나타난 모습을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체제법은 이미 내 마음의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따라서 제법은 있다 해도 실재 있지 않는 것을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타기성은 자성이 본래 없어 그 자체가 공적한 일심일 뿐 내 마음밖에 실재하는 법은 없는 그 자체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제법에 대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것을 제법의 진실한 자체를 체득하고 망상을 그쳤다 하여 체진지(體眞止)라고 한다.

체진지를 통해서 변계소집성은 본래 공적하고 의타기성은 있다 해도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한다면 사물 그 자체가 바로 원성실성이 된다.

가령 육도범부에서 모든 법의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하여 삼계내의 견사혹(見思惑)을 일으키지 않으면 체진지이고, 소승의 제법과 명칭을 얻지 못하여 진사혹(塵沙惑)을 일으키지 않으면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이고, 보살이 거처하는 실보장엄토의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하여 근본무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이다. 이것을 삼지(三止)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1) 자량위(自量位)

유식론(唯識論)에서는 보살의 수행위차를 자량위(自量位), 가행위(加行位), 통달위(通達位), 수습위(修習位), 구경위(究竟位) 등 오위(五位)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량위는 대승순해탈분(大乘順解脫分)에 해당됩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인 '순(順)'은 수순해탈하여 미혹의 이장[惑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종자[因]의 의미인 '분'은 혹장(惑障)에 떨어지지 않는 해탈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이익이 될 수행양식[量]을 근본바탕[資]으로 해야만 끝내 보리과위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량(資量)'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맹세코 이루리라고 발심은 하였으나 그 발심을 충족시킬 수행이 '순결택분(順決擇分)'에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는 모두 자량위에 포함됩니다.

대보리심은 무탐(無貪) · 무진(無瞋) · 무치(無癡)의 삼선근(三善根)을 자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심오하고 견고한 마음이 바로 대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은 담연한 명각(明覺)이어서 그 어떤 여타의 유혹에도 동요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심오 견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식론에서는 "자량위 보살은 능취심(能取心)과 소취경(所取境)이 공적한 이치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보살은 능취심, 소취경의 이취습기(二取習氣)를 조복받거나 소멸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 관점을 아직은 잊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부연해 본다면 우리의 허망한 분별식으로 집착하는 객관경계가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소취공(所取空), 즉 대상이 본래 공성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함이라 하고, 대상경계를 집착하는 주관적인 분별망식이 공적하지 못하는 것을 능취공(能取空), 즉 주관분별마저 공성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습기는 활동세력인 종자의 다른 명칭이며 '능취'는 집착하는 주체적인 망심이고 '소취'는 집착하는 대상의 경계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이장번뇌 가운데서 후천적인 분별아집으로 일어난 경험적 번뇌는 견도위(見道位)에서 끊어지고, 선험적인 구생아집(俱生我執)에서 일어난 번뇌는 수도위(修道位)에서 단계적으로 끊어집니다.

이장번뇌 가운데서 후천경험적인 분별아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비량지(比量知)로서 번뇌를 조복받을 수는 있으나 선험적인 잠재의식 속의 미세한 구생아집의 번뇌활동과 그 종자세력에 있어선 이 둘 모두를 제거해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지관(止觀) 수행력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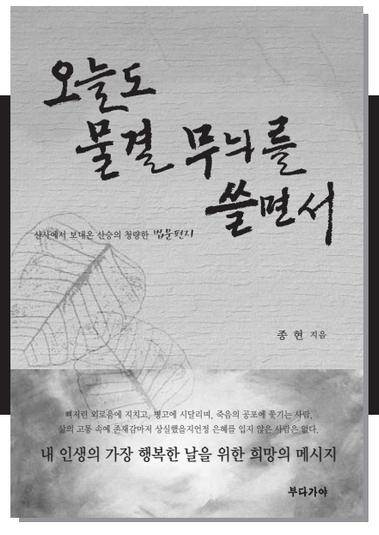
■정리=張如舟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을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속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나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종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종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금생에는 참선하고 내생에 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림 · 최문정

구참수좌 정진하는 퇴설당에 사미 최초 입실
‘강원 공부’ 권유 뿌리치고 상원사 선방으로

혜암은 사미계를 수계하자마자 구참 수좌들의 선방인 퇴설당에 방부를 들였다. 그러나 혜암은 사미승이었으므로 퇴설당 방부를 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퇴설당 대중들이 공사를 벌여 혜암의 입실을 반대했다. 입승을 보기로 한 우봉(愚鳳)이 조실스님인 효봉에게 따졌다.

“조실스님, 갓 계 받은 사미에게 퇴설당은 안 됩니다.”

해인사에 선방은 두 군데가 있었다. 신참이 드는 보통 정진실인 선방과 구참들이 가행정진하는 퇴설당이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 전통을 따른다면 혜암은 당연히 보통 정진실로 가야 했다. 그러나 혜암은 효봉을 찾아가 간청했다.

“가행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수좌들이 반대를 하니 좀 기다려 보거라.”

“오늘이 동안거 결제인데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그냥 선방으로 들어가 없는 듯 말석에 앉겠습니다.”

“인곡 스님도 성관 수좌를 부탁했어.”

할 수 없이 효봉은 퇴설당 대중을 불러 다시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효봉의 설득에도 대중들이 반대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신참이 퇴설당에 든 예가 없습니다.”

“성관 수좌는 사미지만 장좌불와를 해요. 거기다가 일일일식(一日一食)까지.”

“사미가 퇴설당에 입실해 문제를 일으키면 어찌하실 겁니까.”

그러자 효봉이 방바닥에 주장자를 내리치며 역정을 냈다.

“공부하는데 신참, 구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이 자리에 성관 수좌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효봉이 큰소리를 내자 대중들은 아무 반박도 못했다. 혜암의 정진력은 이미 대중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퇴설당의 전통을 지키자고 반대해 왔던 대중들은 납자의 태도를 가지고 따지는 효봉의 질책에 아무런 대꾸를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실한 혜암은 일주일 단위로 화두를 들고 참선했다. 환적대 부근의 굴에서 엿새 동안 단식하며 정진한 경험도 힘이 됐다.

훗날 혜암은 조계종 종정이 돼 이때 이후의 참선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했지요. 일주일이면 견성한다고 하니까. 오직 일주일만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건 내버리고, 이주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주일을 내세워 자꾸 하다보니까 일 년이 간 줄 모르고, 저녁인지 낮인지 몰라요. 공부할 때는 저녁도 없고 낮도 없어요. 일체 유심조라하지 않습니까. 오직 공부하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동안거를 마친 혜암은 인곡에게 불려갔다. 인곡은 마른 장작처럼 타듯 외골수로 치닫는 혜암의 기질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심의 불길이 솟구쳐 순일할 때는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것이 장애를 만나 꺼져 버린다면 큰 문제였다. 인곡은 자신의 경험상 재발심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재발심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는 부처님 말씀, 즉 불경을 방편으로 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긴했다. 그래서 인곡은 상좌 혜암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講院)의 이력(履歷)을 보게 하고 싶었다.

인곡은 첫 안거를 무사히 마친 혜암에게 격려부터 했다.

“조실스님이 너의 정진력을 칭찬했어. 실제로는 어땠느냐.”

“일주일 지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장좌불와는 할 만한가.”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인곡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선방에서 첫 안거를 났으니 이제 강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스님, 생사가 무상한데 어느 겨를에 강원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원을 가라고 한 것은 참선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된다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모르고는 발심이 안 되지. 아는 만큼 발심도 커진다는 얘기야.”

혜암은 상좌로서 스승의 권유를 아예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곡을 설득할 수 있는 방편을 냈다.

“스님, 조건이 있습니다.”

“무어냐.”

“제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스님보다 먼저 죽었을 때는 좋습니다.”

“그때 경을 공부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죽은 뒤 환생해 스님의 원력으로 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금생에는 무조건 참선공부를 하고, 다음 생에나 경을 공부하겠다는 혜암의 투지에 인곡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다음 안거는 어디로 갈 생각이냐.”

“오대산 상원사 선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한암 스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큰 복이지.”

인곡은 혜암을 붙잡지 않았다. 자비롭게 놓아 주었다. 그래서 인곡(麟谷)이 원래의 법호지만 스님의 어질고 자비로운 성정을 감안해 인곡(仁谷)이라고도 했다.

혜암의 은사 인곡

스님의 법명과 속명은 창수(昌洙)이고, 고향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14세에 고창 문수사로 출가해 금성(錦城) 화상을 은사로 수계하고, 19세까지 백양사에서 정진하고 20세에 금해(錦海)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아 지녔다.

이후 팔공산 금당탑전에서 100일 용맹정근 중에 꿈속에서 가사 한 벌을 받아 입으니 운수납자의 도인상(道人相)과 흡사했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은 스스로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설법(一代時敎)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처방(濟世之醫方)이기는 하지만 좋은 약(良藥)은 아니다.’

비로소 스님은 운수납자의 길을 떠났다. 예산 보덕선원에서 보월(寶月) 선사의 지도를 받으며 안거했는데, 대중 가운데서 선기(禪機)가 으뜸이라는 평을 들었다. 스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만공 선사,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선사, 그리고 수월, 혜월 등의 선지식을 두루 친견하고 도봉산 망월사로 가서 용성(龍城) 선사를 뵀다. 그때 용성 선사가 스님에게 물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스님은 주먹을 내밀며 답했다.

“이러한 물건이 이와 같이 왔습니다.”

“옳고 옳다.”

용성 선사는 스님을 다시 보더니 크게 웃으면서 인곡당(麟谷堂)이라는 법호를 내려주고 게송을 읊조렸다.

어진 마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니
깊은 골짜기 또한 밝고 밝음이로다.
온갖 조화가 이를 좇아 일어나니
영원히 생멸하지 않음이로다.
仁心抱天地 玄谷又明明
造化從斯起 亘古不生滅

용성 선사에게 법을 받은 스님은 32세에 백양사 운문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스님은 늘 선원 납자들에게 무자 화두를 주면서 당부하곤 했다.

“세상 전답은 식량을 수확하는 데 다함이 있지만 한 개의 무자 화두 논은 영겁의 양식이니라. 재미없음 가운데 재미있음은 하늘과 인간 세상에 으뜸가는 맛이니 무자 화두 맛을 선열식(禪悅食)으로 삼아라.”

스님은 양산 통도사 조실로 갔다가, 호남으로 건너가 나주 다보사 선원에서 우화(雨華) · 고암 · 전강 선사 등과 함께 납자들을 지도하던 중에 해방이 되자 효봉과 더불어 해인사로 주석처를 옮겼다. 해인사에 머물면서 하루는 법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일렀다.

“이 차 한 잔이 옛날 조주 스님의 차와 같은가 다른가.”

대중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이 게송을 읊조렸다.

여기 한 잔의 조주차여
불조를 죽이고 살림이 자유롭도다.
푸른 하늘 밝은 날에 전광이 번쩍이니
산하대지가 무너져 티끌이 되도다.
於此趙州一盞茶 殺佛活祖總自在
靑天白日閃電光 山河大地磨爲塵

해방 직후 해인사 살림은 몹시 궁핍했다. 스님은 승속을 위해 장경각에서 천일기도를 했다. 승속의 엷어진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뜻을 함께하는 대중과 천일기도를 하는 동안 떠났던 신도들이 돌아와 동참하고 기쁘게 보시를 했다. 스님은 승속뿐만 아니라 미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미물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헌식(獻食)을 했다. 그러자 가야산 허공을 나는 까마귀들이 스님을 따랐다. 스님이 음식을 들고 나가면 까마귀들이 몰려와 스님의 머리와 어깨에 앉아 스님의 염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까마귀들은 스님이 염불하는 동안에는 결코 먹이를 쪼아 먹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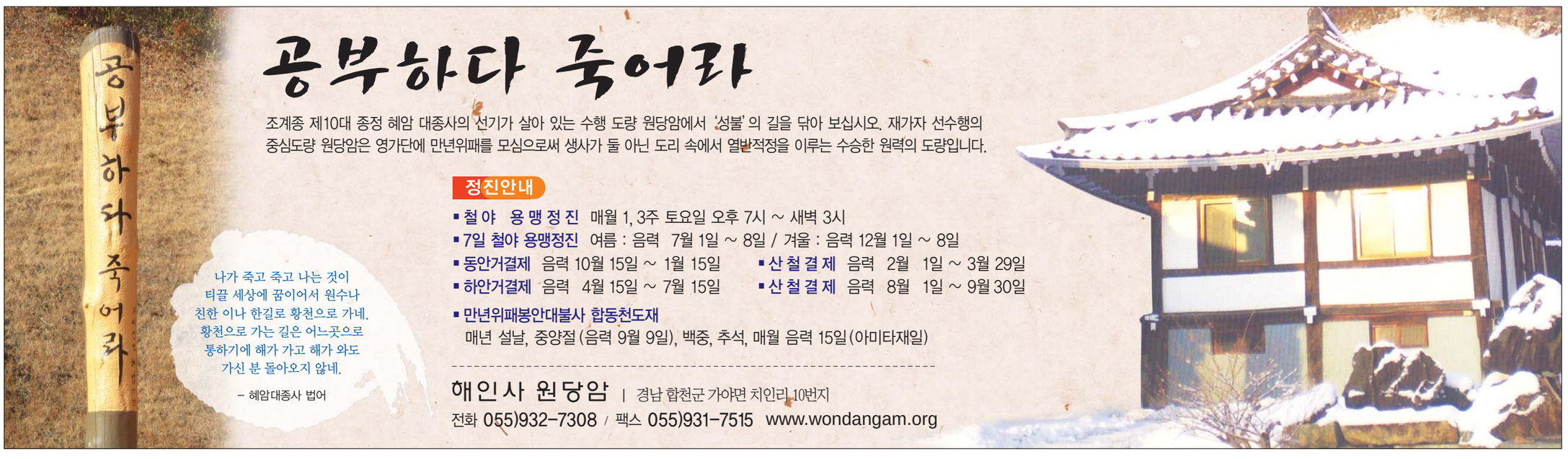
혜암은 상원사로 떠나기 전에 인곡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인곡이 간절하게 당부했다.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다. 가사 장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명심하라.”

“스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계행을 청정하게 잘 지키어 넓고 큰 인연을 닦아라. 선정을 닦아서 물러서지 아니하면 큰 광명이 널리 비칠 것이다.”

어디선가 매화향기가 퇴설당 담을 타고 넘어와 혜암의 코끝을 자극했다. 인곡도 향기를 맡고 있는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른 봄의 햇살이 방광하듯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혜암은 퇴설당을 나와 토방에 놓인 짚신을 신었다. 인곡이 밤새 엮어 만든 새 짚신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혜암은 인곡이 며칠 전에 빨아준 칼칼한 장삼을 입고 있었다. 혜암에게만 특별하게 짚신을 엮어주고 빨래를 해준 것은 아니었다. 인곡은 공부하는 수좌라면 누구라도 ‘화두가 보물’이라며 그렇게 돌봐주었다. <계속>



불서광장

그냥 가면 진짜 청평사는 볼 수 없다



청평사는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역사 아이콘이다. 천년 고찰의 전설과 각종 유물들이 청평사의 알맹이라면 웅장한 청평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은 청평사의 껍질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보면 굳이 알맹이와 껍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 산과 절을 둘로 보면 진짜 청평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시리즈 불서의 대명사 '빛깔있는 책들'의 272번째 책이다.

청평사|윤영활 지음|대원사 펴냄|8500원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도 도와주실까?



<묘법연화경>의 제 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떼어서 '관음경'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난을 살펴주시는 크나큰 위신력을 설해 놓은 대목이다. 지금 당장 입으로 이름만 불러도 달려와 도움을 주신다는 관세음보살님. 정말 믿어도 될까?

저자는 '기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짜 밥을 얻어먹듯 기대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의 관음경|히로사치야 지음|이미령 옮김|대숲바람 펴냄|1만원

5학년의 눈에 비친 '고통'의 실체



놀이터에서 지렁이를 낚아 채는 까치를 본 선재는 지렁이의 생명에 대해 생각한다. 또 까치의 생명에 대해 생각한다.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선재.

그 고민은 동화작가인 아빠가 차근차근 풀어준다. 아빠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원하지 않고는 아빠도 속수무책이므로. 초등 5학년의 궁금증을 푸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논술의 내공'이 쌓인다.

석가모니가 들려주는 해탈이야기|고영섭 지음|자음과 모음 펴냄|1만1000원

'활대의 논쟁' 그 핵심을 만나다



중국 선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활대의 논쟁'이다. 혜능의 직계제자 하택신회가 달마 이래의 돈법종지(頓法宗旨)를 세움으로 남종선의 큰 물줄기를 형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회의 가치는 크게 들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돈황에서 그의 어록과 법문집이 발견됨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역주가 없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 하택신회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택신회선사어록|박건주 역주|씨아이알 펴냄|2만원

사찰음식은 눈으로 먹는다?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정산 스님이 전국 사찰에서 채집한 음식 6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눈으로 먹는 절음식'이란 타이틀의 일본어판이다. 35년간 스님이 애지중지해 둔 비법을 털어 놓은 것이다. 스님은 사찰음식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먹길 권한다. 한국어판으로 인기를 모은 책을 일본어판으로 출간한 것은 한국 사찰의 '명약'이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의미겠다.

한국 명찰과 정진요리의 맥|정산 스님 지음|서울셀렉션 펴냄|2만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저자 인터뷰 '묵언마을의 차 한 잔' 펴낸 지개야 스님

"'자살'을 '살자'로 바꾼 사연 묶었어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심심찮게 소개되는 묵언마을. 그곳은 세상살이에서 받은 상처가 깊을 대로 깊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번' 하는 심정으로 찾는 곳이다. 묵언마을이 조명을 받는 것은 종교 시설로는 유일하게 '자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얘기를 들어 줍니다.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하염없이 속에 있는 것을 털어 놓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하나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외로움에도 지쳐버린 상태니까요. 그렇게 속을 털어내고 난 뒤에는 묵언을 하게 합니다. 보통 3일을 하게 하는데, 묵언은 끝없는 자신과의 대화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묵언을 하면서 뭐든지 좋으니 글을 쓰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 모두를 손으로 쓰면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출가 하여 '묵언마을'을 설립한 지개야 스님. 스님이 최근 펴낸 **<묵언마을의 차 한 잔**(에이엠 텐, 1만원)>에 실린 24편의 글들은 하나같이 막막하고 비통한 제목을 달고 있다. '남이 부러워 한 결혼, 불행의 시작 이었어요' '장애 있는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할까요' 등등. 그만큼 사는 것이 절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무리 큰 고통을 안고 온 사람이라도 지개야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묵언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것 이상의 방편을 쓰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스스로 답을 찾게 되거든요. 원인도 결과도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무외시(無畏施)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대개 돈, 명예, 사랑, 배신, 자존심 등을 키워드로 한다. 묵언마을에서는 바로 이들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자존심이 나를 죽인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자살을 하면 남은 가족에게 따라 붙은 꼬리표는 어찌 할 것인가? 내면 깊은 곳에 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불행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지금 행복할지라도 조만간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과 행복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묵언마을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묵언마을의 차 한 잔>은 묵언마을에서 '자살'을 '살자'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당신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냐? 자살을 하려거든 3일만 묵언해 봐라 하는 뜻에서 여러 사연들을 소개 한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지개야 스님.

수행자 고뇌 통한 인생 진실 궁구



두 번째 출가
현진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원



우리시대의 많지 않은 '글 잘 쓰는 스님' 가운데 한 스님으로 꼽히는 현진 스님의 '출세작(?)'은 12년 전에 펴낸 <두 번째 출가>다.

산사의 향기를 세속으로 전하고 무소유의 승가 생활을 세상 사람들의 생활모범으로 이끌었던 법정 스님 이후 출현한 글 잘 쓰는 젊은 스님들의 활약은 자못 크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생활상과 정체를 고집하는 승가의 풍속도가 그나마 부드러운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젊은 글쟁이 스님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각종 신문에 맛깔스럽고 위트 있는 칼럼을 실으며 부상한 현진 스님의 글은 수행자의 고뇌 또는 에피소드를 통한 인생의 진실을 궁구하는 진지함이 매력이다.

<두 번째 출가>는 현진 스님이 산사가 아닌 도심 사찰에서 수행과 전법의 '이중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상념과 일화들, 갓 출가 했을 때의 에피소드, 큰스님들로부터 듣고 배운 교훈들 등이 진솔하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알알이 엮어져 있다. 이 책이 12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 약간의 손질을 통해 새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걸망을 세 번 묶었다 풀어야 산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6	인과경	현담	선
7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꿈속의 인연들	기후	맑은소리맑은나라
10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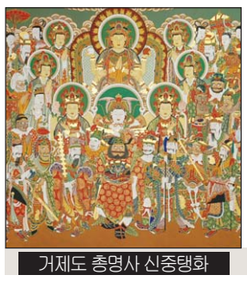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국문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소중한 자료, 말계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이 글에 대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교공부와 함께 고려청자 복원에 힘쓰는 윤도현

지름 3m 청자로 기네스북 도전



대형 청자를 어루만지며 기네스북 도전 의지를 다지는 청자명인 윤도현 불자.

2006년 국내 최초로 높이 140cm, 둘레 170cm의 초대형 청자 제작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청자명인 윤도현(66) 청자골 도강요 대표가 이번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윤 대표가 이번에 기네스북 도전을 위해 만들어내려는 것은 지름이 3m에 이르는 초대형 청자접시. 현재 세계 기록은 2m 80cm다.

이를 위해 윤 대표는 우선 청자를 구울 가마를 위해 너비가 4m가 넘는 전기가마를 만들었다. 접시를 구울 때에는 1400도가 넘는 고열이 골고루 닿아야 하는데 기존 장작이나 가스불로는 어렵고 전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물레와는 비교되지 않을 초대형 물레도 새로 마련했으며 상형을 위한 틀 제작도 마쳤다. 초대형 접시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령토 500kg도 확보했다.

윤 대표는 2월 말부터 제작에 들어가 흙고르기와 반죽, 성형, 건조를 거쳐 굽기(소성) 등을 마친 뒤 3월 말쯤 대작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는 "접시가 워낙 커서 성형 과정에서 쳐지기도 하고 굽더라도 뒤틀리기 쉽다"며 "전통 청자제작 기법에 해당하는 진사로 당초무늬 등을 양각으로 새겨 넣어 강진청자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2006년 초대형 청자를 1억원에 팔아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 윤 대표는 2005년 대한 신문화예술교류회에서 청자부문 '대한명인'으로 추대됐었다. 그는 약사 출신으로 지방의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친환경 농법 영농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강진 정수사 신도인 윤 대표는 백련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불교공부를 함께 하며 고려청자 복원에 심혈을 쏟고 있다. 김성우 기자

대전선사博 '고이 접어 나빌레라' 승무 강습

법우 스님 지도로 '입춤' 배울수 있어

대전선사박물관(관장 류용환)은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 주관으로 3월 4~25일 전통무인 '승무' 강습을 개최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강좌는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예능보유자 법우 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의 지도로 기본무와 어떤 형식에도 매이지 않는 전통춤의 기본인 입춤을 배울 수 있다. '고이 접어 나빌레라'를 부제로 한 이번 강좌는 경제난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성인남녀 30명 선착순 모집, 강습비는 무료. (042)826-2814

김성우 기자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 '미술사 큰 획' 호평

전각·서예 기법 회화로 무의식 세계 표현

만다라는 우주의 축소그림이다. 대상화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 본 우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월 18~24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은 만다라를 주제로 한 독특한 기법과 소재로 서예·전각계를 비롯한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8일 오픈식에서 미술사학계의 권위자인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서예계는 물론 한국미술사에서도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격려사를 했으며, 서예계 원로 구당 여원구 선생과 초정 권창륜 선생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도 없는 작품들로,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고 격찬했다.

전각학회 권창륜 회장과 분석심리학회 이문성 회장 등 각계 원로들도 "전각과 회화, 서예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신선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색의 조화가 감동을 자아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우방 원장은 '무의식계(無意識界)의 탐구-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표현'이란 평론을 통해 김영옥의 작품세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무의식이란 우주와의 일치를 의미하며 우주에 충만한 영기(靈氣)를 체득하는 것이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예술작품은 감동을 준다. 다년 간 익힌 서법(書法)과 전각(篆刻)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이나 고전을 공부하며 닦은 교양을 바탕으로, 작가는 대우주에 몸을 내맡기는 것 같다."

강우방 원장은 "작가가 갖가지 크기와 여러 종류의 돌에다가 무수히 다른 형태를 새겨 닥지나 장지, 비단 그리고 화선지 등 위에 한없이 찍어 나간 것은 글자뿐만 아니요, 단순한 불상이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늬들,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갖가지 영기문(靈氣文)이 많았다"며, 무의식을 묘사한 작품에서 '일체가 영기화생(靈氣化生;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상태) 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원광대 김수천 교수는 월간 <미술세계>에 기고한 글 '김영옥 만다라 새김전'에서 "작가가 서예와 전각에 근거를 두고 발전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 서단의 희망"이라며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것보다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무의식(無意識)에 대한 부분을 작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시"라고 평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작품의 색감과 표현은 한국의 어느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00여 점에 달하는 대형 작품들은 모두 돌에 경문이나 문양을 새겨 찍은 것으로서 이것은 전통전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대전각이나 현대미술에서 시도된 적도 없는 새로운 장르에 속한다는 평가다. 10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돌에 문양을 직접 새기고 무거운 돌을 지면에 찍어가며 서예작업을 겸들인 작품들은 가녀린 여성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크기와 섬세한 문양들이 눈을 의심케 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외부환경을 차단하고 정한수를 떠놓은 채 기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화려한 색상과 완벽에 가까운 구도는 황홀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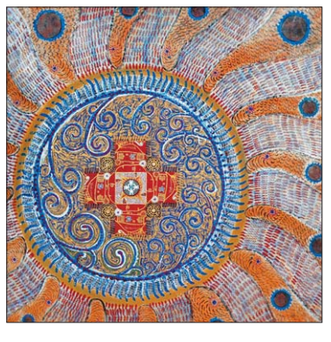
김영옥(41)씨는 "하루 12~15시간씩 1년간 해온 작업은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가며 무의식을 탐구하는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며 "정신장애우를 미술치료 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탐구하고 치유한 작업과정은 마음공부의 시간이었기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의 호평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유럽 순회전시회를 구상하고 있다. 명상을 통한 몰입상태에서 만다라를 완성하는 회화세계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세계를 알리겠다는 발원이다.

김영옥씨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현재 노틀담복지관 정신장애시설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서예심리치료강사를 맡고 있다. 서예는 35년, 전각은 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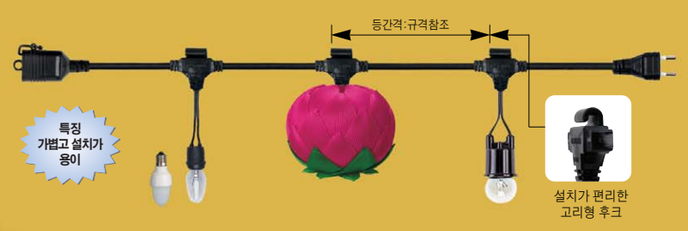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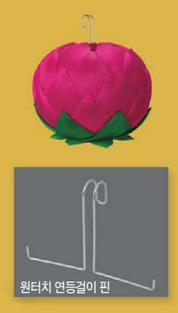



김영옥 작가가 아무런 작품 구상 없이 백지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출발해 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어떤 작품이 형성될 것인지는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 사진은 돌에 문양을 새겨 찍어낸 만다라 작품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⑰ 인사동 사모곡3

천연재료만 고집하는 깐깐함의 대가

인사동 찻집, 소금인형의 주인언니는 전통차의 달인이다. 워낙 깐깐한 성품과 알뜰함도 모자라 살뜰한 살림솜씨를 찻집 운영에 그대로 반영하다보니 대부분의 손님은 질 좋은 차 맛에 반해 단골이 된다. 책이나 구전으로 접한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직접 다려보고 마셔보는 극성스러움으로 쌓인 차에 대한 노하우는 언니의 재산목록 중 하나. 그중 하나를 풀어보라고 하니 기침감기에 직방인 민간차를 하나 소개한다.

"환절기엔 목도 아프고 감기에 걸리지 쉽잖아. 요즘은 기침감기가 유행을 하데. 그럴 때는 대파를 사다 뿌리 부분을 잘라. 여섯 뿌리 정도면 되고, 거기에 도라지 반 근 하고 배 하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물 붓고 푹 달이는 거야. 5리터짜리 주전자에 물을 3리터 정도 붓고, 2리터까지 졸여지게 끓이라고. 기침이 심할 때는 물을 조금 더 졸여서 마시면 되고. 그러면 기침이 뚝 떨어져."



체질과 제철에 맞는 차를 잘 챙겨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언니와 계절별 좋은 차에 민간 약차와 실제 사례까지 곱아보니, 체질과 제철에 맞는 차를 잘 챙겨먹는 것만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새삼 실감해본다. 차도 그러할 진데 더구나 음식은 두 말하면 잔소리. 그러니 '먹는다'는 행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업인가.

"우리 집은 애당초 다시다나 미원같은 건 사본 적이 없어. 직접 담근 장하고 참기름, 깨소금 정도만 쓰고, 다시마를 분말로 만들어 그걸 가끔 넣는 정도지. 그냥 소금이나 장만 써서 해도 얼마나 맛있는데.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된장 하나로 자박자박 무쳐도 맛있고, 고기요리 할 때는 청주랑 매실차 담가놓은 걸로 재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 누린내도 하나 안나. 나는 인공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하고 머리가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 있지."

밥을 짓든 차를 달이든 천연의 재료만을 고집하는 언니에게 그러한 영향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의 노모다. 민간요법으로 가족들의 병과 건강을 관리했다는 노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 엄마는 어려서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약을 일절 안 쓰고 차나 음식을 만들어줬어. 감기에 걸리면 생강차도 끓여주고 대추차도 끓여주고, 몸이 골골하니까 자라탕도 만들어 주곤 하셨어. 우리 노인네는 지금도 소화가 안 되면 일단 한 끼를 굶고, 계속 굶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흰죽에 새우젓 넣고 끓여 드신다니까. 지금 92세인데 아주 정정하셔."

그야말로 그 어머니에 그 딸이다. 노모에게 물려받은 신조와 솜씨로 보나 그 극성과 부지런함으로 보나, 작은 찻집만 운영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하나 제안을 해본다.

"언니, 요즘 웰빙이 대세 아니유? 그러지 말고 천연재료로 음식도 만들어 팔고 차를 파는 웰빙 레스토랑을 크게 차려보는 건 어떠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얘, 차만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차를 담그려면 한 일주일은 김장하듯 해야 해" 라며 고충어린 사연이 술술 이어진다.

"유자나 모과, 매실 같이 한철 나오면 끝인 과실은 김장하듯 한꺼번에 담가야 하거든. 사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시장을 몇 번은 나가 돌아야지, 몇 십 박스씩 사들이는 것도 일이야. 또 그거 닦으려면 도우미 아줌마를 구해도 이틀은 닦아야지, 썰어서 담그는 게 3~4일은 걸린다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 그 과정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만한 묘안이 떠올라 다시 조언을 곁들여본다.

"그러지 말고 인터넷으로 사. 인터넷에 농장직영으로 소비자랑 거래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집 앞까지 택배로 배달도 되니까 사들이느라 고생은 안 해도 되서 조금은 편하잖아." "그렇게 사면 편하고 물건도 좋은 편이지만 약간 하품인 것도 섞을 수밖에 없다니깐. 빨리 소진을 해야하니까.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나가 눈으로 직접 보고 박스 뜯어서 속에 내용물까지 확인하고 사야 확실한 거야."

살림계의 지존에게는 조금이라도 어설픈 제안은 애당초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 그 성질을 겪어보고도 잠시 깜빡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㉔ 고결한 죽음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잠들어 있는 나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기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무지하고 무명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지르고 치닫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나머지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잠들어 있는 인간을 흔들어 깨우듯 혼신의 힘을 다해 깨워야만 한다. 망각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와 목적 즉, 인간 존재이유에 대한 생각과 인간존재의 위치 찾기에 대해 열정을 쏟아부어 제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고결한 죽음 맞이하기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善終) 소식에 온 나라가 마음으로 명복을 빌었다. '감사와 나눔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방송과 신문보도 등에서 수없이 홍보를 해도 세계국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장기기증 서약이 평소보다 3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 영향력의 실감과 더불어 또 다른 보살의 모습으로 화현하셨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시대의 가장 중요한 스승 중 한명이며, 영적 해방의 선구자인 구르지예프가 말년에 말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단순한 목적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품위를 지키며 고결하게 죽으려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개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목적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으며, 이를 이루고 나서야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본받고 싶은 죽음

헬렌니어링의 남편인 스콧트 니어링은 본받고 싶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삶은 그 어떤 종교도 강조하지 않았으며, 명상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거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명상적인, 선(禪)적인 삶이었다. 그의 삶은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담백하고 초연하였으나, 열정적이었다. 삶이 이러했으므로 죽음도 마찬가지로 담담하니 그러나 아주 침착하고도 준비가 잘 된 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고결하게 마무리했다. 죽기 일주일 전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곡기도 끊고 집에서 편하게 쉬엄쉬엄 휴식을 하면서 이 세상에 여행을 왔듯이 죽음으로의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채비를 여유 있게 했다. 그의 아내인 헬렌니어링도 그의 죽음으로의 여행을 고이 잘 배웅하면서 100세의 생을 마감하는데 까지 동행한 진정한 소울메이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부의 삶과 죽음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존재의 목적 '깨어있기'

이제 세상은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어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고결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결한 죽음의 근본과 기초에는 반드시 고결한 삶이 함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며, 깨어 있기를 요구한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⑲



중국서 침향이라 주장하는 백목향은…

하롱베이로 숨어든 티엔 여신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적들을 피하기 위해 침향 나무로 위장해 위기를 모면하고는 했지만 결국 나무로 변한 여신을 뿌리째 뽑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을 더 이상 따돌릴 수 없게 된다. 여신은 하롱베이를 떠나 중부 서쪽의 밀림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훗날 티엔 여신은 칸 호아나 광동지방 등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위급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신화적인 존재로 남았다고 한다. 티엔 여신이 나타나면 그 주위가 온통 침향의 향기로 가득했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침향은 오늘날에도 향수에서의 신화적인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하롱베이로 티엔 여신을 잡으러 갔던 이웃나라 남중국 왕의 군사들은 티엔 여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티엔 여신이 변신했던 나무와 비슷한 나무를 대신 뽑아서 들고 가는데, 그 나무가 현재까지도 중국 서남부 지방에서 난다는 침향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위 중국 침향인 백목향(아퀼라리아 시넨시스 Aquilaria sinensis)이라는 것이다.

백목향은 중국의 해남도, 관동, 광서, 복건성, 홍콩, 대만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백목향을 침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는 진정한 의미의 침향과는 다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중국여행을 하면서 침향염주라고 구해오는 태반의 소재가 바로 이 백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백목향은 향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진품 침향의 수지를 조금 섞어서 침향처럼 보이게 하는데, 침향은 그 특성상 침향에서 나온 순수 수지가 아니면 침투를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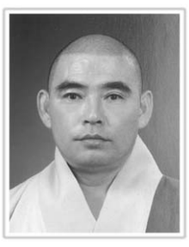
따라서 이 백목향에도 순수 침향수지는 침투를 하지 않기에 백목향나무에 인공적인 기름과 침향수지를 95대5의 비율로 섞어서 강제 주입 하거나 겉에 코팅만 하는 방법으로 염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되는 많은 염주들이 인공 수지를 화학처리에 의해 강제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백목향도 한약재의 일종으로 약재로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인공적인 염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진품 침향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는지.

뒤에 침향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하겠지만, 아무튼 티엔 여신에게 고사를 지낸 심마니들은 보통 한두 달의 여정으로 길을 떠나 밀림으로 들어가게 된다. 깊은 밀림에 도착한 그들은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2~3일 걸리는 거리 단위로 주위를 집중적으로 수색을 한다. 주로 찾아보게 되는 곳이 늪지와 벼랑이나 숲이 빽빽한 곳 등인데 그 중 아주 위험한 경우는 늪지 근처를 답사할 때라고 한다. 늪은 죽은 늪과 살아있는 늪이 있는데 죽은 늪에서 가남이나 침향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심마니들은 주로 4인이 움직이는데 죽은 늪이라고 여겼던 곳이 갑자기 움직여지면 4인조라 해도 그곳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02)3663-6777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을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동양구운마늘환으로 활기찬 생활을!
마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드시기 편리한 100% 마늘환입니다
강한 살균력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지혈증등의 성인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간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준다.
2.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3. 면역력을 키워 체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주문 전화 080-323-7575 동양물산
인터넷:http://gk24.co.kr, 한글주소:건강24시

초·중·고 입학기도 상담
재학생 신학기, 대학 입시 기도
보살님,거사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들, 딸 액운 소멸과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올바로 하기위해 기도합시다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개인지도
초급에서 최상급까지 가능
천안, 대전까지 가능
다곡, 유재숙(백두선생)
011-685-6566
02)6217-9171
이기론. 문점. 목적점
「사주박사」 인터넷 쳐보세요!

퇴마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 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불임여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글로벌 작명 대사전 IIIII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286성씨 별로 모든조건을 다 갖추어 지어진 좋은 이름을 당사자 팔자와 접목시켜 기록만하면 작명작업끝. (작명소用)
참좋은 이름나라 운동본부 편저
송금후전화주세요, 가격:150000원
국민은행 038701-04-039079(설현우)
주문전화 02)928-8123

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6-9223-7893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절입니다
선원불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女 사무장 구합니다
(40세에서 50세)
▷서울 강북구 소재
011-9087-6287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건당 상좌될 인연있는 조계종비구니. 법랍 20년 이상이된 50대 건강한 스님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청정한 나반도량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들 모십니다
011-9790-1779
055)835-9450

전국 어디든 절이나 절지을 터 싸게 보시하실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보시금 상의후 결정)
▷경남 밀양 삼랑진
055)355-9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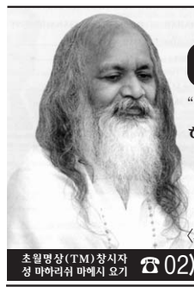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운영을 믿고 맡겨주실 귀한 인연기다립니다
佛法度量으로 반듯하게 닦고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여무량
010-2446-2626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 노전자리 원합니다
010-8537-0108

대 형 버 스 기 사 구 함
(숙식가능)
▷의왕 대안사
031)459-3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역 학 공 부
사주, 택일, 궁합, 성명학
•초급 : 3월20일 개강(18시 30분, 정도형 선생)
•중급 : 3월 16일부터(18시 30분, 이선종 선생)
•전문가반 : 수시 입학 가능(18시 30분,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생각을 초월하라(바라 아제)그것이 깨달음이다" - 반야심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학업성적, 집중력증가 / 불안,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 비만, 우울증 등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에시 요기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평생을 함께 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오나무, 생수, 천연굴법당, 부담없는 경비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수정산 수정사 효봉원 *
문의전화 : 031)333-5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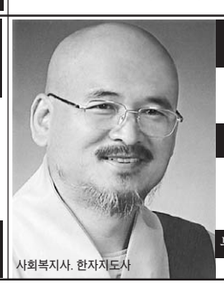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秘 法 무 료 강 의
귀의 삼보하옵고!비구 비구니들아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별것아니다. 본 강의 들으시고 홀륭한 선지식 되소서!
1.전생요법, 빙의치유법, 최면학, 확실한 천도재식 | 2.귀신병에 침놓는곳, 건강따주기, 관상학 등 | 3.통술학(신비그자체다) 심식법, 약손법 등
*** 비구, 비구니스님들 꼭 이강의를 들어보세요 ***
•장소 : 마산 무악산하 법향사 內 / •강의 시간 : 매주월요일 10시~17시까지
전화 : 055)221-3358 / 010-9027-311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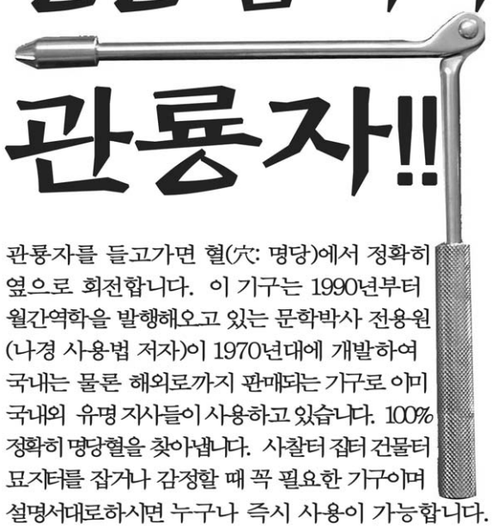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의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外,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 02)833-8683 지역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051)908-8683 지역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찰 대여 하실분

● 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소재
● 산사사찰로 법당과 요사채등이 갖춰져 있지만 포교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찰로 불사 성공과 유명 사찰이 되기를 원하는 창건스님또는 창건불자님
● 조건 : 2009년 불사준비기간이 끝나면 2010년 정월달부터는 매월월세를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사찰양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본회는 : 유명불자회로 현재 1000명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불자들이 수행 기도하는 도량을 만들고저 본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2011년내로 5000명 이상이 기도 정진하는 큰도량이 될것입니다.

010-9346-12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옥산면 구성리 부근
● 국도접, 법당15평, 요사채(목재 방5개) 황토방1채
창고1(10평), 대지 약 220평. 마당에 잔디
● 가액 : 5,000만원

010-9911-3425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15평
● 요사 : 10평
● 부지 : 80평
● 전세 : 1억5천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4억5천만원 (세:1억 월15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계곡접
● 약 30억불사 ● 가액:12억

지리산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 총평수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양도가 6억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600평(종교용지)
● 법당 : 30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60평(목조,황토)
● 기타 : 산신각5평, 석탑(15자), 연못 등
● 가액 : 2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4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특징 : 주지스님 개인사정으로 급히 양도코져함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서울 010-5828-0455 / 대구 010-9636-0455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부산 대사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3억
● 20년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 평수 : 110평
● 법당 :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3억 1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1층 60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2,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동
● 대지 : 130평, 건물 : 45평 (법당,산신각,방3칸,거실,주방,욕실)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임대, 양도가능

055)366-38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상가 4층중 4층,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 최고위치
● 평수 : 54평
● 거실,법당,요사채,원주실,목욕실
● 가액 : 1억 5천만원
● 주지스님 불사 관계로 급매

010-3443-28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800평, 요사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 대지 : 300평, 법당 20평
● 방3개, 거실, 주방, 대도로변 조경, 잔디밭 200평
●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절충가능)

011-468-991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0-4100-9497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366평, 임야 40평
● 요사채 60평, 대웅전 33평
● 삼성각 10평, 실사용평수 약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조경잘되어있음
● 지하철 및 시내버스
● 가액 : 7억

011-9143-009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 70평
● 법당, 방3, 공양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에,월1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112-182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개운동 마을끝집, 조용하고 한적한동네 교통편리(시내 가깝고, 부산, 서울 2시간 거리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 인접
● 평수 : 100평. 슬라브 지붕 (건평17평, 실사용평수 30평)
● 비구니스님적합,심야보일러있음
● 가격 : 9,000만원
● 2004년에 신축함

054)536-9960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영천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지 200평, 주차장 170평
● 방5칸, 법당 15평, 심야전기 밖에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 2억1천(담보대출 가능)

011-769-702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법당, 요사채, 옆산, 연꽃 연못, 텃밭, 마당잔디
● 총 32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7-813-9126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5평
● 임법당 : 13평(종교시설) 방2, 주차장 넓음
● 현재 법회 성황리에 진행중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7천 500만원

010-6357-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와가법당 20평 2층
● 요사채 38평(창고15평) 옥외화장실6평,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전화사절
● 가액 : 3억 8천 5백만원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223-7757

지리산 토굴안내

● 위치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입구
● 평수: 양옥 슬라브 건평40평 보일러실 4평, 대지 198평, 전139평(주차장사용가능)
● 가액 : 2008년 감정가로 8300만원 협의
● 특징 : 앞이 트이고 샛강이 보이고 주위는 송림, 한적한곳

010-9452-4800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30-1
● 대지 360평
● 건물 : 임법당 40평
● 관세음보살계십니다
※ 100여가옥이 사는 마을 맨뒷집(산자락) 명당이라 첫눈에 반할 겁니다 직접 와보세요
● 가액 :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도심포교 관심있으신분 중 10억 이상 불사 가능하신분 전화요망
● 위치 : 울산지역

010-4752-8822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20평, 요사 30평
● 대지 151평
● 가액 : 9천 5백만원
※ 인근국가공단과 한방특구공단조성 교통 편리한 사통오달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아파트 대단지 밀집
● 천수관음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상가건물 3층 총 37평
● 법당,미타,3존불,중단탱,감로탱
● 방,주방,욕실,기본집기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약간

010-3033-10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2동 광안리 해수욕장 5분거리
● 반지하 55평
● 법당,방1,공양간1,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526-902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방3,주방,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70평
● 법당 : 16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 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 ● 대지 1500평 ● 가액 : 15억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010-9797-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2리 518
● 평수 : 대지 101평, 건평 : 26,5평
● 가격 : 9,500만원 (가격절충)
● 내용 : 비구니 스님 환영, 건물내,외부 황토,
● 심야-기름보일러 설치,살림살이 갖춰져 있음

연락처 : 011-9235-0720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2, 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43번지 화전마을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 18평
● 가격 : 3,000만원
● 내용 : 옛날집 현대식 주방,아궁이 온돌, 가스통 온수, 부처님 모셔져 있음

연락처 : 011-9235-0720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제주 10분거리 ● 가액 : 3억 5천만원

018-590-3583

포교당 급 인수 할분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동상동 재래시장 근처
● 평수 약 50평. 4층 건물 중 3층 법당
● 보증금 3백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시설완벽, 거실 큼
● 신설법당, 스님사정상 '급'
● 아미타5자, 지장, 관음, 약사

055)335-0314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6739-6426

경제논객이 들려주는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소규모


우리시대 경제선지식 우승택 삼성증권 PB가 침체된 주식시장에서 희망투자를 역설하고 있다.

강 사 : 우승택 (삼성FN HONORS 신라호텔지점 PB)
일 시 : 2009년 2월 21일
장 소 : 서울 연화사 연화문화센터
주 최 : 자비은행(대표 묘장)
주 제 : 세계 경제위기 속에 숨은 희망 찾기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가 돼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 자선을 하는 편이 쉽다. 돈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옛말에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 이처럼 돈의 미학을 외치는 이가 있으니, 우승택 삼성증권 PB다. 우 지점장은 재미있고 쉬운 경제풀이로 이미 잘 알려진 투자상담가다. 삼성증권 FN HONORS 신라호텔 지점장으로 2008년까지 'MBC 경제야 놀자'에 출연, 시청자들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불교TV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승택의 달마도 알아야 할 경제'라는 칼럼도 썼다. 그 외 '유식(唯識)'과 〈금강경〉 등 불교사상에 해박한 경제전문가로도 유명하다. 불교가 녹아 있는 그의 투자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자.

최근 현각 스님, 무심 스님, 대봉 스님 등 영어로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을 가르치신 분이 돌아가신 숭산 스님이셨죠. 숭산 스님이 외국인들에게 가르쳤던 주 방법은 큰 원을 그려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0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90도로 기도 · 참회를 하는 수행을, 180도로 '무아의 세계'를, 270도로 '진공묘유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다시 360도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도 이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말씀하셨죠. 실제 우리 안에는 법안(法眼)도 있고, 불안(佛眼)도 있고, 혜안(慧眼)도 다 있습니다. 업에 걸려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니고, '어느 스님, 목사님이 속 시원히 잘 맞추더라' 하며 이를 따릅니다. 주식투자로 보면 '누가 여기에 돈 넣으면 번다더라'는 것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큰스님들이 '있는 그대로' 속의 진리를 말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돈 버는 이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식투자 해법, 결혼 생활에 비교하라

조지 소로스의 거품 붕괴이론 그래프를 보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 현재가치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총 주식으로 나눈 것입니다. 주가의 등락은 '주당 순이익'이 서서히 올라가는 반면 사람들의 기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며 생깁니다.

사실 결혼과 주식은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과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① 처음에 처녀, 총각들은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은 것이죠.

② 하지만 주변인들이 다 결혼하고, 좋아 보이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③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 보이면 관심이 구체화 됩니다. 그때부터 뒷조사를 합니다. '쟤가 뉘 집 자식인지' '혹시 애인이 있는 건지' '성격이 어떤지' 나름 방대한 조사를 합니다.

④ 그리고 난 다음, '괜찮겠다' 생각이 들면 일단 연애를 합니다. 데이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데 말이죠.

주식이나 펀드도 돈을 넣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뒷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면 문제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⑤ 결혼 후엔 대부분 쪽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실제 가치와 자신의 기대가치가 차이가 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현실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웁니다. 참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⑥ 계속 가면 무관심이 됩니다. '저까짓 주식 쳐다보기도 싫어' '우승택 전화 오는 것도 싫어' '남편 너 멋대로 해.'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태는 그나마 나중에 좋은 일이 다시 생깁니다.

⑦ 하지만 구청 가서 이혼 도장 찍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돼' 하며, 주식과 펀드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 구청 가서 이혼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생활과 시장이 뭔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은 내려갈 것 같지만 끝없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것 같지만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랑 자신이 투자한 펀드나 주식에 느끼는 감정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업(業)이 같기 때문에 절묘하게 비슷합니다. 저 인간과 미워도 그냥 사는 스타일이다 싶으면 주식 또한 길게 투자하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묻으면서 가지고 가십시오. 완전히 깨달아 경제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신 업에 순응해 장기투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증시도 자연… 자연 알면 불안감 망상서 온 것 알아
경제 흐름 읽지 못하면 업에 순응해 장기투자 해야

감정과 생각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24절기와 경제흐름 '비슷'

저는 작년에 불교TV 나가서 종합주가지수 1600대에 사라고 추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미치겠습니다. 증권회사에 와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 인생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돈'을 날려먹으면 그 사람의 과거인생 몇 년간을 공염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업이 엄청난 것입니다.

'돈'도 망념이 있어, '돈'을 컨트롤 하는 것도 오온을 다스리는 것처럼 공부입니다. 돈이 과거인생을 수치화 한 것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오가는 '돈'은 그 자체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욕망과 두려움이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경칩입니다. 이것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보통 생각하면 음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력입니다. 옛 사람들은 농사는 일조량을 책임지는 태양과 관련 깊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반대로 바다는 해수면, 조류와 관련이 깊어 음력을 씁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영국 해군 등이 잠수함 등에서 음력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24절기를 양력으로 쓴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삼국시대일까요. 고려시대일까요. 놀랍게도 무려 5000년이나 됐습니다.

옛 사람들의 모두가 양력을 안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위계급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음력을 아는 사람들이 양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정보로 도인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 양력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맘 때면 씨를 뿌려라' '논에 가서 물 터라'하며 농경 경제를 비롯한 사회를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농사와 제일 관련 깊은 것이 태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24절기로 보면 1300대로 떨어졌을 때는 대설, 현재는 바닥을 친 동지를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지는 절기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주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줄어든 거래량과 떨어지는 주가도 동지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위에서처럼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장을 다 찍고 나오는 시점이죠. 동지는 이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입춘까지 저점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여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인위적인 등락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등락은 5%의 더 많은 정보를 가진 Smart Money가 그 하위 정보세력의 자본을 뺏는 시기입니다. 절대로 자연적으로, 경제가 나빠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입춘을 맞이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내년 2월쯤입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의 소박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틈을 타 작전을 비롯한 사기도 많을 것입니다. 올해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진 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춘은 가진 자에게는 '봄의 시작'이지만 없는 자에게는 '보릿고개'를 의미합니다. 입춘 때에는 주가가 칼날처럼 다시 한 번 요동칩니다. 마지막 남은 자본을 털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생각보다 자비로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위 정보세력의 자본을 뺏는 이유는 입춘이와 다시 폭등할 때 하위 정보세력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등락만이 지속되고 급등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알면 지금의 나의 불안감과 기분 나쁨이 전혀 나의 근거 없는 망상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의 감정처럼 처음 연애해서 애를 낳고 이혼하고 싶어지고 다시 살고하는 것이 2~3년 마다 사이클로 도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복리로 벌다가 복리로 잃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인간의 쏠림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한번만이라도 지혜로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이 복리로 잃을 때, 복리로 벌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다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봄은 확실하게 옵니다. 운이 좋다면 올해 10월 아니면 내년 2월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지경고도 초조한 구간입니다. IMF때나 전쟁 때나 다른 사람이 먹고살기 바빠 투자를 못할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세상은 솔직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주식이 3만 원대에서 60~70만 원대가 됐던 이유는 한국에서 월마트 같은 곳이 망했기 때문이죠. 4명이 나눠먹던 것을 혼자 먹게 됐기 때문이죠. 롯데제과 주가 폭등 또한 해태와 크라운제과가 망했기 때문이죠.

원리를 알면 사람들의 쏠림현상에 남들과 다르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올해는 속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못 올라갑니다. 월 1만원, 10만원 소액이라도 감을 잡는 '거꾸로 투자방법'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포교원
● 법 명 : 공한(김응모)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983-7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법하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웃음보살 불등거사 〈37〉

구성 : 김흥인



발로 장자의 입을 찬 하인

〈백유경(百喩經)〉



옛날 큰 재물을 가진 장자가 있었다. 좌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공경을 다했다. 장자가 가래침을 뱉을 때에는 모시는 사람들이 재빨리 발로 밟아 문질러버렸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가래침이 땅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재빨리 밟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뱉으려 할 때 먼저 밟으리라.' 그때 장자가 막 가래침을 뱉으려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곧 다리를 들어 장자의 입을 차서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장자가 그에게 "왜 내 입을 쳤느냐?"고 물으니 그는 "장자의 침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먼저 밟아 장자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무릇 어떤 일이나 때가 있는 것이니,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마땅히 '때'와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옛 판화의 세계

국청사의 세 성인 국청삼성(國淸三聖)



석풍간 습득 한산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국청삼성(國淸三聖)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곡(半谷) 272×180㎜ 선학박물관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의 사대총림중에 하나인 천태산 국청사의 유명한 국청삼은(國淸三隱)의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동양화에서 국청삼은과 호랑이를 함께 표현하는 것을 사수(四睡)라는 화제로 사람들이 즐겨 그렸다. 국청삼은(國淸三隱)은 아미타불의 화신인 풍간선사와 문수보살의 화신인 한산과 보현보살의 화신인 습득을 말한다.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풍간은 천태산 국청사에 거주했으며, 항상 호랑이를 타고 출입했다. 풍간(豊干)이 주워 기른 아이가 한자 그대로 습득(拾得)이다. 부엌에서 밥을 하던 습득은 인근 한암이라는 굴속에서 비승비속으로 사는 한산(寒山)을 형이라고 부르며 헤어진 옷을 입고 나막신을 신으며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곤 했다. 마침 여구윤이 대주자사로 임명되어 왔는데 그만 병을 얻게 됐다. 그런데 그 병은 어떠한 약과 의술로도 효과가 없었다. 이를 알게 된 풍간 선사가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었고, 이에 여구윤은 크게 사례하며 설법을 청했다. 하지만 풍간선사는 "나 보다는 문수와 보현께 물어 보시오." "두 분께서는 어디 계신지요?" "국청사에서 불 때고 그릇 씻는 한산과 습득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사는 예물을 갖추고 국청사로 한산과 습득을 찾아가니, 한산과 습득은 화로를 끼고 앉아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자사가 절을 올리자 한산은 자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풍간이 실없는 소리를 지껄였군. 풍간이 바로 아미타불인줄 모르고 우리를 찾으면 뭘 하나?"이 말을 남기고 한산과 습득은 절을 나와 한암굴로 들어 가버렸다. 자사 여구윤은 숲 속의 나뭇잎, 석벽과 돌 틈에, 혹은 촌락의 벽 등지에 써 놓은 한산의 시(詩) 삼백여 수를 모아 책으로 편집했다. 이 시집을 삼은집(三隱集)이라고 하며, 〈한산시(寒山詩)〉라는 제목으로 전해 오고 있다. 청나라 나빙의 작품 가운데 실린 시의 한 구절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한 줄기 감로로 가슴을 울린다. "두 성인은 하하하 허허허 웃으며 살라 시네. 걱정 않고 웃는 얼굴 번뇌 적나니, 이 세상 근심일랑 웃는 얼굴로 바꾸라네. 사람들 근심 걱정 밑도 끝도 없나니, 큰 깨달음의 도는 기쁨 속에 꽃이 피네 …중략… 하하하 허허허 웃으며 살라 시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노랑어리연꽃

밤새워 걸어와서 등신불이 되는 꽃
웅덩이에 그보다
암자 하나 세운다 더 눈부신 날 없으리
그 순간 -김경/시집 〈누가 바람의 집을 보았는가〉에서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운주사는 앞으로도 불교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주 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1 호 현대불교
2009년 3월 4일(음력 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여러분 마음의 철벽을 좀 더 뚫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심봉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진(漏盡)이 레이더망이라면 레이더망을 받친 심봉은 그 오신통과 레이더망과 같이 전부 굴려도 이거는 움쭉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시고) 하늘을 받쳐, 천지를 받친 바로 평발로써 받친 뭐라고 그럴까, 불기둥이라고 그럴까? 불은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물도 하나듯이 말이에요. 물은 흘러가는 것, 흘러 도는 걸 말하고 불은 움쭉거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는 돌고 돌아 불기둥은 하늘을 받치고 움쭉도 안 한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밝아 있다, 그대로 넉넉하고. 그러니 거기에 붙어서 돌아가도, 움쭉을 안 해도 항상 이렇게 돌아요.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죠. 그리고 뻑뻑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조여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통 움쭉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죠. 바깥에 붙어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드리려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입력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거기다 놔라.' 그러니까 또 놓는 걸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네? 나중에 써먹으려고 입력을 번호대로 시켜놓고, 또 모두 입력을 시켜놔야만이 그놈의 게 전부 일사천리로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다고 합디다. 허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비싼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고 여러분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 가정 속에서는 대들보예요. 그리고 자기 2세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테두리가. 하다못해 제비새끼들도 테두리가 있고 둥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야 되겠으며 또 집 속에 식구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지 항상 남한테 빌어서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답답할 때는요, 음성이 커지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작게 하려 해도요, 답답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건 왜냐? 내가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입력만 된다면 그래도 어딘가 언젠가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파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음파가 되돌아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요. 허허허 참! 그러곤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공을 던졌으면 탁 받아서 되던져야 또 탁 받을 텐데, 공을 던져도 그냥그냥 어디 가서 푹 박히고 푹 박히고 이런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마음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도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며 공했다는 거며, 움쭉거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공했다'라고 예전에 부처님들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없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공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뜻에 속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드려도 참….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붙어 돌아가는데 레이더망이 제일 위에 붙죠. 누구든지 주장자를 가지면 거기다가 용머리를 갖다가 떠억 붙여서 주장자를 만들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주장자 하나로 인해서, 이 주장자를 깊은 물로 비유한다면 용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춤을 추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레이더망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보고를 해 들이면 안의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만이 대뇌로 해서 저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입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 꿈을 꾸고도 이것은 '아이구! 꿈이 언짢아. 언짢으니까 이거 무슨 탈이 또 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 요렇게 생각을 하니 고게 고렇게 입력이 돼가지곤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으면서 입력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무너진들 어떠랴.' 하고, 나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요.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죠. 그런데 중생들은 생사에 끄달리거든. 좋아하고. 죽고 사는 거 아주 그냥 그거에 얽매이죠. 그래서 마구니나 외도들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소견에 흔들리질 않아요. 또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이거 죽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버려. 그냥 죽는 것도 좋아하고. 죽어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둘 다 놓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러니까 보살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양면을 다 버리지 않는 거죠. 놔버리니까.

여기에서 또 인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걸 어떻게 해야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죠? 그것은 입력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아프지 않고 죽게 하는 것도 너밖엔 없다.' 이러면 입력이 돼요. 여러분이 소신껏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아, 이건 그냥 아주 절벽이야, 절벽! 그러곤 나한테 와서는 "집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어떡했으면 좋고?" 아, 이러고 물을 때는요, '야! 내가 이날까지 이럭하고 있었던 본의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른단 말입니다. 나를 좀 덜 울리려면 여러분이 좀더 그 철벽을 뚫으세요,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입력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드렸습니다. 오신통이 무슨 이럭하고, 지난번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그냥 얘길 해드려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력이나 전력이나 통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무한량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레이저 그, 광력에 대한 그것을 안에서 받아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런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는 그 자리를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속에 있는 것은 속에서 그거를 해야죠. 입력을 해서 이놈들을 시켜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에도 지수화풍이 돼있어서 안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있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마음은 벽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으셨어도 천리를 다녀오라고 해도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 저 딴 혹성에 갔다 오래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체를 다 보고 오라고 그래도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안에서도 레이저의 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에서 치료를 하고 바깥에서 할 것은 바깥에서 치료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은 바로 그 지배인이 끌고 가게끔, 주인공이 끌고 가게끔 자꾸 입력을 넣어주는 거죠. 제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날더러 어떤 분은, 경을 달달 외우신 분들은 부처님의 경 얘기는 안 하고, 똑같이 안 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나 본래 체계 없는 게 진리기 때문에 또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변천해 돌아가니까 우리는 마음의 인등을 켜고 앞장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는다는 거를.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고 아무리 기다리고 섰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 이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거기 입력만 해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관(觀)하라!' 이런 거는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켜봐라! 지켜보면 그것이 바깥으로, 입력됐던 거니까 바깥으로 탁, 팩스에서 나오듯이 탁 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실험과 체험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것은 아주 쉽게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극한 믿음, 그리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말이에요, 또 효도하고 충성하고, 시간 지키고 약속 지키고, 술을 과음하지 말고, 너무 과음을 하면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 남도 나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건 해로운 일이라.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도 난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 살생을 그렇게 안 해요. 살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아유, 닭을 한 마리 사다 드려야 할 텐데….' 이럴 때 살생이 간접적으로 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주인공에다 탁! 맡기세요, 둘 아니게. 그러면 그것이 살생이다 할지라도 그건 살생이 아니에

☞26면으로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 사무실 : 02)483-2355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해 임 공 고

- 성 명 : 손성수
- 법 명 : 가 산
- 직 위 : 종 정
- 소 속 : 대한불교석가종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284(원융사)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154차 정기 월례회에서 위인(대한불교석가종 석가산 종정스님)이 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참석회원 99% 찬성이 나와 부득이 해임으로 통과시켰음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 장 석혜철 / 이사장 석지산

buddhanews.com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자기 근본에다 입력시켜야

☞25면에서 계속

요. 그 몸과 모습만 쳐서 약으로 썼을 뿐이지, 그 의식은 내 주인공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이죠. 내 주인공의 컴퓨터에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벌써 사람으로 요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만 쳤을 뿐이지, 무명만 벗겨준 거지 살생을 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죽이고 먹고 그러지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지 무조건 그럭한다고 해서 다 살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나쁘고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지렁이를 수십 마리 끓여다가는, 자기 은사가 그냥 헛헛증이 나가지고는 영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시니까, 산에서야 뭐 먹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야 더했죠. 그런데 그 제자 스님이 '살생하지 말라!' 이러는 것도 무릅쓰고 '내가 살생을 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벌레가 되든지 아무걸로나 만들어도 좋다. 우리 스님을 일어나게 해야겠다.' 그러고는 호미를 들고 가서 그냥 진창을 파서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는 그걸 소금을 넣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고아서 베보자기에 꽉 짜서는 매일 두어 대접씩 먹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살이 뽀얗게 찌고 아, 일어났거든요. 그래 은사 스님이 "얘야! 네가 그거 만날 약이라고 주는 그 국물, 참 맛있더라. 그거, 어디서 났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무인데 저 깊은 산에서 사는 나무에서 나오는 순을 갖다가 고아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휴! 그런 나무도 있었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봉양을 하고 그랬지만 그 지렁이는 전부 그 스님 덕에, 다 지렁이라는 모습을 벗었더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무능한 것이 착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너무 무능한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딨느냐? 안의 몸뚱이 속의 그 의식들이요, 전부 하나로 뭉쳐집니다, 마음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다, 그냥!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둬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 장가를 들여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부모들 모르게 그냥 땅도 뒷구멍으로 다 팔아가지곤 시골집 뭐 몇 알갱이나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골집 하나 남겨놓고 홀딱 가지곤 그냥 둘이 튀었어요. 시부모 잔소리도 듣기 싫고 농사짓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꼬셨겠죠. 그래가지곤 둘이 훌쩍 딴 나라로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부모는 어떻게 됐느냐? 부모는 살면서 이때나 들어올까, 저때나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집 하나만 남겼어도 부모는 생각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괘씸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몇 푼 금방 쓰고 돈 다 없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나? 죽었나 살았나?' 이게 항상 걱정이죠. 돈 가져간 미움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것이 그저 잘 살고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안 찾아보더라도 그저 이것들이 속썩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저 굶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집도 팔아가지고선 그냥 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요. 절에 들어가서 한 분은 공양주는 힘에 부쳐서 못하지만 반찬 만드는 채공 노릇을 했고 하나는 부목, 나무는 해오지 못하나 불 때고 나무 패고 이러는 부목 일을 맡아가지고선 했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절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이웃에 다시 태어나서 그 절의 스님이 됐어요. 부부가 다 스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끈한 비구승으로 어엿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비구로다 태어나서 이제 절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요, 아, 그 밑에 있는 사제 스님이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하는 얘기가요, 길가에 있는 움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포대를 두르고 있고 하나는 옷은 입었는데 영감 마누라가 다 늙어가면서 아주 병이 심하고 그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참 불쌍하더라고 사형 스님한테 했어요. 그래 젊은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인제 남편은 사형이 되고 부인은 사제가 됐어요. 그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네가 갔다 오너라. 네가 나가서 그 바지저고리를 시주하라고 그래라." 허허허. 아, 글쎄 바지저고리도 바지저고리 나름이지 글쎄, 이가 서 말은 들었을 테고 그냥 헤진 거는 말도 못하고, 더러운 것도 말도 못하는데 아니, 그것을 글쎄 시주하라고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스님은 불쌍한 마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기 은사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그 천륜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네 자식들이니라, 과거에. 그것이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네 자식이었던 사람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스님 앞에 푹 엎드러져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과거에도 빌었고 현실에도 빌고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 말씀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지은 건 자기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지 어디 그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아무리 줘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담기지가 않느니라. 그릇에 욕심과 삼독이 꽉 찼는데 어떻게 네가 주는 그 기도와 베푸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형 스님은 인제 동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시주를 하라니깐요, 이 옷 한 벌 있는 거를 마저 시주를 해달라느냐고 "아이, 옷 한 벌 있는 거 달라는 스님 난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호통을 치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아, 그걸 두르고 말입니다. 하나가 밥 얻으러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고, 하나가 인제 거기 있을 때는 그 포대를 두르고 쓰고 있고. 아, 이랬는데,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으라고 글쎄 그 옷 한 벌을 있는 걸 마저 달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지금 밥도 얻어먹으러 나가야 할 텐데 그 옷 없으면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도 시주하라고 득달같이 그냥 그 거적문을 들고는 야단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는 포대를 반으로 잘라서 새끼로 매어 두르고는 그 옷을 갖다가 "여기 있소!" 그러고 바깥으로 내던지거든요.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못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새끼오락지에다가 꿰어가지고선 들고 갔어요. 가다 보니깐 그냥 바깥으로 이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요, 이도 그거 살생이라 그러니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들고는 갔어요. 가니까 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은사 스님이요, "얘야! 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제자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러니깐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웃도리는, 뜯어서 솜 빼고 깨끗이 빨아서, 양잿물 넣고 삶아서 아주 몇 번씩 헹궈서 말갛게 해서는 웃도리는 법당을 닦고, 아랫도리는 저 요사채를 닦아라." 이렇게 사제한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냥 옥사슬 같이 빨아가지고는 노냥 둘이서, 그 아버지는 위 법당을,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는 법당을 치우고 아랫도리는 어머니가 치우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헤지도록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걸 닦으니까 그게 온전합니까? 요만큼 남거든. 요만큼 남아도 그냥 고걸 꼬옥 짜가지고는 항상 고걸로만 닦아요. 닦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부실부실하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남거든. 그래 요것을 태워서 말입니다, 자기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정성이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때도 그랬고, 현재에 태어나서 비구로서 형제가 된, 사형 사제가 된 그 판국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럭하고 나서 그 두 노친네는 그래 밥도 못 얻어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 동네에서 말입니다, 저 건너,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히 있지 않죠. 저 건너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거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두 부부 거지가 요새는 밥을 얻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벌어진 거죠. "야! 그럼 노인네가 죽었나봐. 밥을 얻으러 오지 않잖아?" 이런 자비스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그런 자비스런 생각이 안 들어갔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는 그 동네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그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

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쓰고서는 달달 떨면서 그냥 병이 든 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죠? 허허허. 그래서 동네서 그냥 전부 나서서 어느 집 바깥채에다가 그 두 내외를 들게 하고는 뜨뜻하게 불 때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깨끗이 입히고, 그래가지곤 노인네들끼리 봉양을 하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두느냐 그러면서 잘 봉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살도 붙고, 옷도 좋은 것 입고, 목욕도 항상 하고 그러니까는 병도 낫고, 그렇게 그냥 잘 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집도 살펴주고 또 어느 자식 많은 집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보살피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네가 부모를 버리고 도주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 시주한 절에 찾아간 겁니다. 그 두 노인네가 찾아가서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스님한테 옷 한 벌 있는 거를 입은 거를 벗어서 시주하고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를 도와줘서 호강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뜨뜻한 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깐 저희 부모 생각이 납니다." 인제 그때서야, 그때서야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불효가 어딨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스님네들께서 이 옷 한 벌을 시주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저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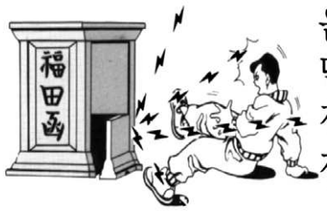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시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아이구!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언제나 사람은 영원한 걸세."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없으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여기 당신네들 옷 시주 받아온 그 스님네들일세."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스님네들 둘이서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버질세. 그 두 분이서 과거에도 자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거를 시주 받아다가 위 닦고 아래 닦고 해서 요만큼 남는 것까지도 태워서 자기네들이 먹었다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서 그 스님네들한테 그냥 폭 고꾸라져서 그냥 손을 쥐고 벌벌벌벌 떨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랬으니 글쎄 그 부모 손에 또 간 거야, 그냥. 그 어루만지면서 다 씻겨서 또 그렇게 해서는 승천했어요.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떠안은 거죠. 의식은 자기한테다 넣고 그 무명만 치운 거죠. 그랬으니 자식들은 산 거죠, 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립니다. 자기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셨죠? 참, 그렇다고 우리가 참선한다고 저녁에 오래 앉았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일을 무심히 하시고 저녁에 한 30분 동안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주인공! 네가 있으니깐 바로 내가 생겼고 내가 생겼으니까 너를 생각하고 너한테다 모든 걸 다 맡기지 않느냐. 그리고 너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수억겁을 이렇게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창조가 됐으니까 너는 다 알지만 현실의 나는 모르고 있잖아. 내 현재 의식은 모르고 있으니 현재 의식도 너의 뜻을, 당신의 뜻을 알려다오.' 이름은 임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인공의 뜻을 나한테 알려다오. 나한테 실험이 되게끔 알려다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거든지 놓고 자기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겠죠. 저녁마다 꼭 30분씩 관한다! 이렇게 거기 컴퓨터에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입력을 시켜놓곤 자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지켜보는 것이 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잘되게 해주시오, 못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송,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자 세상보기

박 명 순
前 동대부속여고 교장

교사의 얼굴

어느 해 바람이 옷깃에 차갑게 느껴지던 늦은 밤, 우리 학교 교실마다 형광등이 대낮처럼 켜져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반복되는 자율학습 시간을 지내며, 쉼없는 줄긋기를 힘들어 하듯 맥 빠진 모습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다.

그 풍경 한 켠에는 연이은 수업과 진학지도로 피곤한 담임교사가 수업지도에 석고처럼 굳은 얼굴을 창가에 비추고 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마저 바윗돌 구르는 것처럼 들릴 만큼 정적이 흐른다. 이따금 불호령이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울 뿐. 또 다른 한 켠에는 어둠 깔린 운동장,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교실을 향해 꽂혀 있다.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망과 포부, 꿈과 이상을 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대부속여고는 부처님 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다. 부처님 자비 아래 고운 마음, 옳은 행동으로 바른 마음에서 새로운 의욕을 다짐하며 학생들에게 밝은 얼굴로 다가서는 이들이 우리들(교사)이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 그들(학생)이 교정에서 넓은 사회를 위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 생각의 폭을 넓혀 잠재된 능력을 꽃 피워 사회의 동량이 될 때까지 돕는 것이 교사의 몫인 것이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암울한 사회의 그늘과 빈곤의 소리가 교정 안으로 성큼 다가선 듯 하다. 시행 전부터 전국 단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따지던 논란이 결과 발표 후에는 집계 오류와 보고 누락 등 조작 의혹을 더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학생이, 학교가 일렬로 세워져 서열화된 결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차치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른 학업성취도 평가를 어찌해야 할까?

당장 서열화된 지역과 학교를 보는 순간, 뒷줄의 학교 선생님들은 곤욕을 치루겠구나 하는 노파심이 앞선다. 학부모의 성난 소리와 폭행이 2008년 한 해 일어났던 교사인권 침해의 30%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석고처럼 굳은 얼굴로 교실에 서 있던 교사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는 것만이 옳은 선택일까? 당장 중단하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학력미달 학생들은 어떻게 찾아내 도울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그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재량과 판단에만 맡길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미 교육은 학생의 인성과 교과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할 사회문제다.

교육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고, 평가 없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 교사의 능력 성장을 가늠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집중된 지역을 파악함에 있지, 학생들 평균 성적이 몇 점인가에 있지 않다.

평가를 주관한 교과부도 이번 평가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완벽한 대책이 없다면 또 다시 잘못된 평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나는 항상 생각한다. 내 안의 교육철학이 무엇일까? 내가 그들에게 안겨줄 선물은 준비하고 있는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도적인 방편일 뿐이다. 자애로운 교사의 지도가 없다면 학업성취도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중도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부를 갖고 다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불보살의 자비가 맥 빠진 학생들에게는 활기를, 석고처럼 굳은 교사에게는 미소를 안겨주길 바라며.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출가 · 열반절 '자기' 찾는 기간

부처님의 출가절인 음력 2월 8일(3월 4일)부터 열반절인 15일(11일)까지는 불교도들에게 매우 뜻 깊은 기간이다. 탄생 출가 성도 열반 등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일을 기념하는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출가와 열반절이 7일 간격으로 배치돼 이 기간 불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가는 승가에 국한하는 일일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단순히 수행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몸으로서의 출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심을 하는 것도 출가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날마다 출가하라. 매 순간 출가하라"고 가르쳤다.

실제 큰스님들 가운데도 날마다 아침에 오늘이 출가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한다는 분들이 많다. 늘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이 출가인 것이다. 이렇듯 간절한 출가의 마음을 갖는다면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열반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무명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한 것을 의미하기에 불자들이 다다라야 할 최종 목적지인 것이다.

출가와 열반절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승가로서 혹은 재가로서 어떤 발심을 하고 있는지, 나의 발심은 견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행실은 불자다운가를 끝없이 되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기간을 기려 전국의 많은 사찰이 용맹정진 등 뜻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한다. 불자라면 자기를 찾는 이 정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대불련의 전성시대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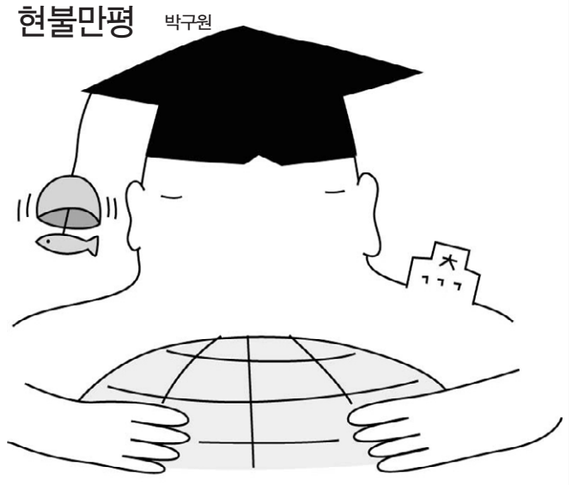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 포교에 훈풍이 불고 있다. 날로 변해가는 캠퍼스 문화는 포교와 항상 반대방향이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대학 신입생 포교를 위한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의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은 '신입회원 모시기'에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불련과 대학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불련 초창기 맴버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명호근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대불련 총동문회는 단체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격을 갖추고 일정의 수익사업을 해 거기서 조성되는 기금을 후배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신한 발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획이다.

이렇게 총동문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간 무관심했던 동문들이 하나 둘 모여들 것이고 각 종단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깃발을 들면 뜻을 모을 수 있는 일이 포교, 그것도 신세대 포교가 아니겠는가.

그간 대학 포교의 침체에는 지원 부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어느 종단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불련 총동문회의 법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하루 속히 대불련의 전성시대가 오길 기다린다.

현불만평 박구원



인재양성에 큰 힘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순수하고 깨끗한 초심으로 돌아가자"

3월의 테마-처음처럼

올해는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선출과 중앙승가대학 총장 등의 중요소임이 정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초심(初心)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공심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심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 초심은 처음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맑은 청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발심수행적인 면에서 보면 처음 깨달음을 일으키고자 가졌던 마음인 초발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가졌던 바르면서 곧은 마음(直心)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처음 마음으로 발심한 원력의 마음이 깨달음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심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변질돼 버릴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로 들면, 참선수행을 하는 자의 경우 처음에는 결가부좌 자세로 선정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뇌로 인하여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정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가 점차 번뇌 망상으로 인해 기도삼매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기도의 성취에 대한 마음보다도 우리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힘이 들어 수행을 계속 하지 못하겠다'라는 퇴굴심(退屈心)과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생겨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 사회적 면이나 종교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처음엔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게으름없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생각의 상(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념적 생각이나 자신을 괴롭히게 되며 내 마음을 욕심과 집착으로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이 처음 가졌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을 때 가능해집니다.

신공 스님
통도사 창원포교당 주지
동국대 박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이 땅에 첫 선문 여니 실상은 한결 같아라

⑥ 실상사, 변혁 이끄는 기운 부증불감



왼쪽부터 실상산문을 연 홍척 대사의 부도탑비와 부도, 수철 화상의 부도와 탑비.

"범부가 성인 되게 하니 흥함이 갑작스러워"

실상산문 첫 주인 홍척과 제자 수철의 부도 '단아하고 화려한 맛'

탑비는 몸돌 유실과 마멸로 원문 해독 불가능

통일신라 말기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의 학식과 문장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이요 후대불급(後代不及)입니다. 신(神)의 심장소리를 빼앗고 천지의 기운을 총섭(總攝)해 운(韻)과 율(律)을 삼은 그의 문장은 사산비명(四山碑銘;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만수산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초월산 숭복사지비, 희양산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서 더욱 웅혼합니다.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는 "도의(道義)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서당 지장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 광명을 배워서 돌아 왔다"는 내용과 함께 도의 선사가 선법을 펼치지 못하고 깊은 곳에 몸을 숨긴 일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 최치원은 "이 즈음 홍척 대사(洪陟大師)가 당나라에 가서 서당지장으로부터 수법(受法)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남악(南嶽)에 머물렀다. 임금이 국태민안을 위해 법문을 청했고 대궐에서는 그가 온 것을 경하했으니, 선법을 보여서 아침의 범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게 함이니 변함에 차제(次第)가 있지 않으며 흥함이 갑작스러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받고 귀국해 남악 즉 지리산 자락에 머물렀던 홍척 선사. 그는 해동에 처음으로 선문(禪門)을 연 주인공입니다. 육조 혜능 선사로부터 남악회양 마조도일 서당지장으로 이어지는 선의 정맥을 받은 신라의 스님으로는 가지산문의 원조 도의 선사와 실상산문의 홍척 선사 그리고 동리산문을 연 적인 선사 혜철 스님이 꼽힙니다(경덕전등록 권9). 정리하면, 이 땅에 선을 들여 온 초조(初祖)는 도의 선사지만, 선 도량을 처음 열어 아홉의 산(九山)으로 선의 문(禪門)이 활황(活況)토록 한 것은 홍척 선사였습니다. 그 첫 산문이 바로 남원의 실상사 실상산문(實相山門)입니다.

실상사는 산중이 아닌 평지에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한 탓에 먼지가 폴폴 날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탈교를 건너려는데 옆에서 누가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왼쪽에 투박스러운 얼굴의 돌장승 하나가 서서 시비를 거는 듯 주먹코를 실룩 거리며 웃어 보이는 것입니다. 눈길을 한 번 주는 것으로 답례를 하고 다리를 건너니 양쪽에 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어쭈~ 만만치 않은 걸?' 최대한 촌스럽게 생겨먹은 그들에게 다가가 깊은 눈길을 주고 셔터를 눌러대는 것으로 안부를 때웁니다.

일체의 가식을 벗어 던지고 실상(實相)으로 가는 해탈교를 지키는 돌장승들, 그들은 맘만 먹으면 뚜벅뚜벅 절집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아라한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다리목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절을 찾아드는 고단한 중생들이 행여 물에 빠질까 걱정이 돼서 다리목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실상사 경내에는 홍척 선사의 부도인 증각대사응료탑(證覺大師凝蓼塔, 보물 제38호)과 귀부와 이수만 남은 증각대사부도비(보물 제39호), 홍척 대사의 제자 수철 화상의 부도인 수철화상능가보월탑(秀澈和尙楞伽寶月塔, 보물 제33호)과 능가보월탑비(보물 제34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선맥이 시작되는 심장부에 첫 산문의 주역과 그의 직계 제자의 부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홍척 선사의 부도를 배알하기 위해서 천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연못을 지나 극락전이 있고 그 앞에는 증각대사부도비가, 왼쪽에는 증각대사응료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철 화상 부도와 탑비가 있는데 부도는 요사채에 바짝 가까이 있고 탑비는 1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와 탑비 가운데 자리한 극락전의 원래 이름은 부도전(浮屠殿)이었습니다. 산문을 연 큰 스승들의 부도 사이에 이 건물을 지은 스님은 계오(戒悟) 대사로 조선 숙종 10년에 건물을 짓고 부도전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의 이름은 부도전(扶道殿)으로 바뀌었다가 1832년(순조 3)에 의암대사가 중건한 뒤 이름을 극락전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락전 앞의 대문은 청동조각으로 만든 양철잉어를 문 가운데 달아 두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극락전 아미타불께 삼배를 올리고 마당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며 세월을 따라 바뀌어 온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의 부도전(浮屠殿)이나 두 번째의 부도전(扶道殿)은 스승의 묘탑 곁에서 선맥을 받들고자 하는 의지가 다분합니다. 부도(扶道)를 직역하면 도를 받든다는 뜻이니 조사들의 선맥을 유지 계승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이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극락전으로 바뀐 것은 조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 보다는 사찰의 전체적인 당우 배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들의 묘탑이 있고 마침 방향도 서쪽입니다. 지금의 가람배치를 두고 볼 때 본당에 해당하는 보광전의 동쪽에 약사전이 있고 서쪽에 극락전이 있는 것입니다. 약사여래는 동방유리광세계의 주인이고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의 주인이니….

명확한 근거도 없는 혼자만의 생각을 극락전 마당에 내려놓고 홍척 선사 부도 앞에 섭니다. 겨울 햇살을 등지고 바라보는 부도는 단아하면서도 선명한 세부 조각이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으로 치석된 하대석부터 능숙한 석공의 솜씨가 눈길을 빨아들입니다. 중대석 안상을 장식한 팔부중의 형상엔 위엄이 깃들어 있고 상대석의 연잎들은 지난 여름에 연못에서 따다 붙여 놓은 듯 합니다.

특이한 것은 탑신괴대입니다. 고임의 용도로는 좀 높다 싶게 올려졌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탑신석이 높지 않습니다. 괴대와 탑신석의 높이가 합해져서 전체의 높이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깊지 않지만 섬세한 조각을 많이 쓴 부도다보니, 비교적 조각이 단순한 탑신석의 높이를 낮추고 괴대를 높이 놓아 화려하기 그지없는 기단부의 문양들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탑신에 해당하는 옥개석은 기왓골의 질감이 잘 살아 있고 아기자기한 눈 맛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추녀 위에 있었을 귀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녀 끝 모서리마다 귀꽃이 있다면 옥개석을 하늘로 사뿐 들어 올릴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극락전 앞에 있는 홍척 선사의 부도탑비는 몸돌을 잃고 귀부 위에 이수만 덩그러니 올려두고 있습니다. 거북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귀부, 떨어졌던 목을 다시 붙인 흔적이 먼저 눈에 들어와 안쓰럽습니다. 용머리가 아니라 거북의 머리를 그대로 조형한 것이 이채로운데 그래서인지 화려하고 당당한 맛 보다는 수더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뒤쪽에서 보니 등에는 육각의 귀갑문이 선명합니다. 뒷발도 꼼지락거리며 연못으로 들어갈 듯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수철 화상의 부도와 탑비는 신라 진성여왕 7년(893) 5월 수철 화상이 입적한 뒤에 왕이 내린 시호와 탑명을 받들어 조성한 것입니다. 탑비의 마멸이 심해 전문을 판독할 수 없습니다.

신라시대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을 따른 수철 화상의 부도 역시 단아한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대석부터 생동감 넘치는 운룡문이 장식됐고 상대석의 연잎과 탑신석의 사천왕과 문비, 옥개석의 기왓골과 처마의 비천상 등이 스승 홍척 선사의 부도 못지않은 격조와 장엄미를 발산합니다.

실상사 사역(寺域)은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뒤쪽으로 난 논둑길을 걸어 수월암에 이르면 주인의 이름은 선명하지만 생애를 파악하지 못한 석종형 부도가 두 기 있는데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월암을 지나 솔숲이 끝나는 곳에도 역시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 두 기가 있습니다. 석종형은 비지정이고 팔각원당형은 보물 제36호로 지정됐지만 주인을 알 수 없어 '실상사부도'란 이름을 얻었을 뿐입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부도만 해도 화려함과 장엄미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팔각의 하대석에는 힘찬 용트림이 조각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다시 실상사로 돌아와 왼쪽 산길을 걸어 약수암을 향해 걷습니다. 오솔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을 살피며 걷다보면 돌보는 사람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는 부도밭이 나옵니다. 독특한 모양의 부도 한 기와 균형이 잘 맞지 않은 석종형 부도 세 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단부는 물론 탑신부까지 모두 둥근 모양을 기본으로 조성돼 각(角)을 찾아볼 수 없는 부도의 이름은 '창조홍척제자안봉창조편운화상부도(創祖洪陟弟子安峰創祖片雲和尙浮屠)'입니다. 이 긴 이름의 주인 편운 화상은 수철 화상과 같이 홍척 선사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부도를 조성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 부도들의 주변을 좀 정비하고 대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타고 길을 되짚어 백장암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사역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삼층석탑(국보 제10호)과 석등(보물 제40호) 앞에는 올망졸망 부도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지만 백장암의 역사를 안으로 단단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백장암 마당 어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석종형 부도에서도 실상산문의 선맥을 지키고 있는 백장암의 내일이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구산선문의 첫 도량 실상사는 아침의 범부를 저녁에 성인으로 만들어 내는 기운을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승풍진작을 통한 올바른 수행자 상 확립을 목적으로 1990년 당간을 세운 '선우도량'과 새로운 시대 교육불사의 모범이 되고 있는 '화엄학림', 연구와 수행 공동체 '화림원', '귀농학교'와 '대안 학교'. 이 모든 불사의 동력은 바로 홍척 선사의 차제가 없는 선법인 것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미묘법의 향기가 지리산 자락에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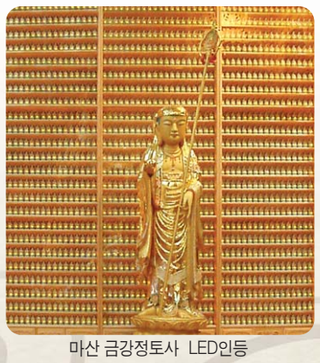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